

# 농업인력 육성정책의 성별영향분석평가

(Gender impact assessment of Training Policy for Farmers)

2004

연구기관 :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연구책임자 : 이 영 세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책임연구원)

공동연구자 : 공 선 영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연구원)

공동연구자 : 김 영 주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연구원)

공동연구자 : 임 덕 규 (부안 여성농업인센터 소장)

여 성 부

본 보고서는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이 여성부의 연구용역 의뢰를 받아 수행한 연구의 결과입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이며, 여성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 차 례

연구요약 .....	1
I. 서 론 .....	27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9
2. 기대효과 .....	32
3. 연구내용 .....	32
4. 연구대상 .....	34
5. 연구방법 .....	41
6. 연구의 한계 .....	42
II. 농업인력육성정책과 젠더 .....	43
1. 농업과 젠더 이슈 .....	45
가. 농업정책과 성 분석 .....	45
나. 농업에서의 젠더 이슈 .....	49
다. 농업인력육성정책에서의 젠더 이슈 .....	53
2. 농업인력육성정책의 현황 .....	57
가. 여성농업인인력육성정책 관련 법령 및 계획 .....	57
나. 농업인력육성정책 체계 .....	60
다. 최종 분석대상 정책의 현황 .....	65
III. 농업인력육성정책의 성별영향분석평가 분석틀 .....	95
1. 지표의 근거 및 내용 .....	97
2. 분석지침 .....	100
IV. 농업인력육성정책의 사업별 성별영향분석평가 .....	109
1. 후계농업인육성 사업 .....	111

2. 영농기술교육 : 품목별 상설교육 .....	127
3. 정보화 교육 .....	149
4. 농촌관광마을인력육성 .....	179
V. 농업 분야의 성 인지적 정책 사례 .....	209
VI. 정책 및 제언 .....	219
* 참고문헌 .....	231
* 부록 : 수혜자용 질문지 .....	233
* 부록 : 분석자료 목록 .....	236

# 연구 요약

---

# 연구요약

## 제1장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농업농촌구조 재편에 따른 후계인력의 확보가 농정의 핵심과제로 부상
- 농업종사인력의 절반을 넘는 여성농업인의 전문인력화 필요성 증대
- 성 인지적인 농업인력육성정책의 필요
- 주요 전문농업인력육성 사업의 단계별 지침에 따른 성 인지성 분석
- 농업정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지침 및 참고자료 제공
  - 정책담당자들의 성 인지적 관점의 이해 및 공감대 확산
  - 성별영향분석평가작업의 도입 및 제도화를 위한 지침 제공

### 2. 연구의 내용

- 농업인력육성정책의 검토와 젠더이슈 파악
- 성별영향분석평가 지표의 검토 및 수정 보완
- 농업인력육성사업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시범분석
- 농업인력육성정책의 성주류화를 위한 정책제언
- 외국의 사례 소개
- 향후 농업정책의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을 위한 지침수립 방안제시

### 3. 연구의 방법

- 문헌분석
  - 국내외 농업인력육성정책의 성분석 및 제도화에 관한 선행연구 분석
  - 현행 농업인력육성체계의 개관
  - 현행 사업계획 및 자료 검토
    - 법적근거, 추진방향, 사업시행주체, 선정기준, 근거법령, 지원계획, 예산분석
- 면담조사
  - 정책담당자 및 수업수행기관의 실무자

- 수혜자로서의 농업인
- 질문지 조사
  - 정책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수혜자의 요구, 현황, 만족도 조사
- 전문가 자문회의 및 워크숍 개최

## 제2장 농업인력육성정책과 젠더

### 1. 농업 및 농업인력육성에서의 젠더이슈

#### 가. 농업과 젠더이슈

- 법적지위에서의 차별
  - 농업인으로서의 직업과 전문성을 인정받지 못함
- 농지소유에서의 소외
  - 농지 소유권이 남성에게 집중되어 있음
  - 여성가구주의 영농규모는 남성가구주보다 작음
- 농업노동력의 주변화
  - 농업노동의 성별분업화
  - 핵심적 지식, 정보, 기술에서의 소외
- 경영 및 마케팅과정에서 의사결정권의 제한
  - 여성들이 많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주도권은 남성이 가지고 있음
- 신용이나 담보를 통한 재정지원의 차별
  - 농업관련 재정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남성보다 제한되어 있음

#### 나. 농업인력육성과 젠더이슈

- 전문농업인력육성 교육훈련 참여기회의 제한
  - 농업노동 및 가사노동의 이중부담으로 인한 교육참여가 매우 어려움
- 성별분업적 교육내용
  - 성별 고정관념 및 전통적인 가치에 기반한 교과목 및 내용
- 남성중심적 교육운영
  - 여성의 현실적 조건을 고려하지 않는 운영방식의 문제
  - 모집에서 교육운영까지 성 인지적 관점의 결여

□정보 및 인적네트워크의 제한

■협소한 정보교류 및 인적망

□현장 서비스 접근기회의 제한

■남성을 통해 여성들에게도 현장 서비스가 전달될 것이라는 가정을 쉽게 함

■현장서비스가 남성가구주를 통하여 제공됨으로써 여성들은 제한됨

## 2. 농업인력육성정책의 현황

□여성농업인력육성정책 관련 법령 및 계획

■농업·농촌기본법 제14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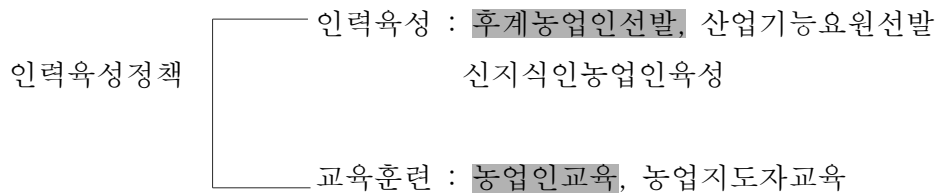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여성농업인육성5개년계획(2001-2005)

□농업인력육성정책의 체계

■농림부의 농업인력육성정책은 크게 인력의 선발 및 관리의 성격을 띠는 인력육성정책과 농업인에 대한 교육훈련으로 구성되어 있음

■농업인의 교육훈련의 경우, 농림부의 행정적 관리 및 지침을 기본적으로 받기는 하지만 교육계획 및 수행에 있어 전 과정을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기관들로 이루어짐



① 후계농업인 육성 : 직접적인 인력의 선발 및 관리를 내용으로 하는 정책으로 인력육성정책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② 농업인 교육훈련 : 다양한 분야, 내용, 수준의 교육을 포함하고 있으며 현재 다양한 운영 체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농업인력육성 기관

■농촌진흥청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농업정보교육원



- 국가전문행정연수원 농업연수부
- 농업생산자단체 및 협회
- 학교기관 : 농학계 대학, 특성화 대학

□최종 분석대상 정책의 현황

- 후계농업인 육성
  - 여성에게 20점의 가산점을 주어 후계농업인 선발에 있어 여성들의 비율을 높이려는 규정을 두어 성인지적 정책의 하나라고 평가받음.
  - 그러나 실제 정책의 수행과정인 선발과정에서는 여전히 남성중심적인 관행이 광범위하게 남아 있음.
- 영농기술교육 : 품목별상설교육
  - 품목별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연간 교육인원이 34,200명이고 예산도 매우 큰 장기적인 영농기술교육의 핵심사업으로서 전문농업인력의 역량을 키우는데 큰 도움이 됨
  - 농업생산조직인 품목별연구회와 연계한 현장교육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여성농업인이 소외되고 있어 여성농업인의 전문인력화의 기회가 제한되고 있음
- 정보화 교육
  - 농업생산, 유통에서 정보화기술의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으나 농촌지역의 문화적 소외와, 자신감의 결여, 낮은 컴퓨터 접근·활용도 등으로 여성농업인은 정보접근기회의 장애요인을 다양하게 가지고 있음
  - 여성농업인의 농업관련 정보활용능력을 제고하여 전문인력화를 도모함
- 농촌관광마을인력육성
  - 농외소득을 높이고 농촌사회를 활성화시키고자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도입되는 마을 단위사업임
  - 마을리더와 추진위원들이 소수의 남성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고 성별분업적인 노동형태로 여성이 소외되고 있음

### 제3장 농업인력육성정책의 성별영향분석평가들

#### 1. 정책의 결정단계

평가지표	수정평가지표	세부 평가지침
1. 정부의 양성평등 구현을 위한 정책 방향을 알고 있는가? - 동 정책과 관련하여 여성과 남성의 요구를 각각 고려하고 있는가?	1) 정부의 양성평등 정책방향과 관심사 반영 여부	① 정부의 성 주류화 정책 인지 여부 ② 여성농업인육성5개년계획 인지 여부 ③ 성별영향분석 평가 인지 여부
	2) 여성 관련 이슈 파악 여부	④ 인력육성사업과 관련한 여성 이슈 확인 여부 ⑤ 전문농업인육성과 관련한 여성농업인들의 인력육성사업의 중요성 인식 여부
	3) 여성의 요구 파악 여부	⑥ 성별 요구조사 실시 여부
2. 계획서 등에 성인지적 통계를 사용하고 있는가? - 성별 통계가 없는 경우 이를 생산 하였는가, 또는 생산할 계획인가?	4) 성인지적 통계자료 수집 및 활용 여부	⑦ 추진과정에서 성인지적 통계자료 수집 및 활용 여부
		⑧ 성인지적 통계생산 여부 및 생산계획 여부
3. 동 정책의 서비스 혹은 재원이 양성에게 균등하게 전달될 것인가? - 만약 성별 격차가 존재한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나 예산을 편성하였는가?	5) 성인지적 예산편성 여부	⑨ 양성에게 균등하게 전달되는지 여부
		⑩ 성별격차 존재시 해결대안 마련 여부
		⑪ 인력육성사업의 여성 관련 예산 항목 유무
4. 동 정책의 가치나 이념이 성역할 고정관념 극복 등에 기여하는가?	6) 여성 관련 목표 포함 여부	⑫ 인력육성사업이 양성평등의식 변화에 기여 여부
	7) 여성의 자문 참여 여부	⑬ 젠더 전문가, 여성단체의 자문 및 의견 수렴 여부
		⑭ 인력육성사업 관련 위원회 성별 비율
	8) 여성 관련 목표달성을 위한 근거법령 정비 여부	⑮ 여성 관련 근거법령 및 지침 유무
		⑯ 근거법령이 없는 경우 대책마련 계획 여부
	9) 담당자의 성인지성	⑰ 담당공무원의 성별 비율
		⑱ 담당공무원의 양성평등의식 수준
		⑲ 양성평등의식교육 참여 경험 유무

## 2. 정책집행단계

평가지표	수정평가지표	세부 평가지침
5. 현재 동 정책의 추진과정에서 서비스나 재원이 양성에게 균등하게 전달되고 있는가? - 이를 입증할만한 성인지적 통계가 구비되어 있는가?	1) 서비스 (혹은 재원) 전달 여부	① 인력육성사업 실시를 위한 홍보 또는 정보전달 여부 ② 성별에 따른 홍보, 전달 방안 수립 및 활용 여부
	2) 성별 수혜도 파악 여부	③ 인력육성사업의 성별 수혜도 파악 여부 ④ 수혜자 격차의 원인 파악 노력 여부
	3) 성인지적 예산집행 여부	⑤ 성별 예산집행 여부 ⑥ 여성의 독특한 필요에 의한 추가 예산 배정 여부

## 3. 집행 후 단계

평가지표	수정평가지표	세부 평가지침
6. 동 정책에 대한 만족도가 성별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는 지 확인하였는가?	1) 사후평가 여부 및 성별분리 평가 여부	① 사업수행자 및 수혜자의 성별 만족도 평가 ② 인력육성사업의 지속의향 조사 여부 ③ 개선점에 대한 양적 질적 요구조사
7. 동 정책이 성역할 고정관념의 변화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왔는가?	2) 양성평등 의식 변화의 긍정적인 영향 여부	④ 여성의 전문능력향상, 사회참여확대 등 양성평등에 영향을 주었는지 여부
8. 동 정책의 집행 성과가 양성 모두에게 긍정적(혹은 부정적) 영향을 가져왔는가? -수혜도의 성별 격차가 존재한다면 향후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예산 편성 포함)하였는가?	3) 집행성과의 성별영향력 확인 및 대안 마련 여부	⑤ 양성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왔는가 여부 ⑥ 수혜도의 성별격차 존재시 대안 마련 여부 ⑦ 여성 관련 예산 마련 계획 여부
9. 성별요소를 포함한 정책의 집행 결과를 정책 대상 집단 또는 일반 국민(주민)에게 전달하였는가?	4) 집행결과 전달 여부	⑧ 집행성과 자료공개 여부 ⑨ 사업결과 보고서 성별 내용 포함 여부 ⑩ 사업결과 자료를 관련 공무원들에게 전달하였는지 여부

## 제4장 농업인력육성정책의 성별영향분석평가 내용

### 1. 정책결정 단계

- 정부의 양성평등정책과 관련한 '성주류화'나 '성별영향분석평가'라는 용어는 전혀 생소하다고 하는 담당자들이 대부분이었음
- 해당사업이 성 형평성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으며, 인터뷰를 하고 나니 이해된다고 하였음. 좀 더 빨리 알았다면 연초 사업수행실무자와 농업인교육을 할 때 포함시켰을 것이라고 하였음.
- 후계농업인육성관련 위원회의 여성비율은 35.4%, 농촌관광마을선정 심사위원은 12.5%이었으나 젠더관련 전문가는 아니었음. 품목별상설교육과 농업인 정보화교육은 여성위원이나 여성의 자문이 한명도 없었음.
- 해당사업들이 성형평성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별요구조사 실시, 여성관련 목표 명시, 성별통계자료, 성별예산편성, 홍보전략의 차별화에 대한 필요성은 느끼지 못하고 있었음.

### 2. 정책집행 단계

- 후계농업인육성사업은 역사가 오래되었으므로 전반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정책이었으나, 그 외의 사업은 전달경로에 성차가 있었으나 홍보방법에 반영되지 않고 있었음.
- 수혜자는 남성에게 편중되어 있었음. 성별수혜도는 후계농업인육성사업의 경우 신청대비 선정비율에서는 여성이 더 높았음. 농촌관광마을인력육성사업의 경우 참석자 명단은 성별로 집계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았음. 품목별상설교육도 성별수혜도가 파악되고 있지 않았음.
- 성별수혜자 격차의 원인을 파악하거나 성인지적예산 집행, 여성의 독특한 필요에 의한 추가 예산배정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음.

### 3. 정책집행 후 단계

- 대부분 사업집행 후에 만족도, 지속적인 참여의향, 개선점에 대한 조사가 있었으나 성별로 분리하여 결과를 내는 경우가 없었음.
- 여성관련예산의 마련이나 대안의 마련에 미흡하다고 평가되었음.

- 정책집행의 사전 사후 평가가 없었기 때문에 객관적인 양성평등의식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쳤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수혜자조사를 통하여 간접적으로나마 양성평등에 영향을 미친 성과를 발견하였음
- 집행결과의 자료는 일부 공개되고 있으나 결과보고서 성별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음.

## 제5장 외국의 사례

### 1. 호주의 “농업과 자원관리에서의 여성을 위한 국가계획”

(The National Plan for Women in Agriculture and Resource Management)

#### □추진배경

- 농촌여성, 여성농업인, 농촌여성관련기관 종사자 등 활동가들이 작성함
- 1998년 ‘농업 및 자원관리 상임위원회’가 승인후 지방정부에서 채택함

### 2. 호주 연방 농림부의 ‘수혜자로서의 여성’ 전략

(AFFA, Women as Clients)

#### □추진배경

- WARM 국가계획의 후속조치
- 정책결정에서 여성을 수혜자로서 포함시킬 수 있는 실천 지침 개발·제공

#### □추진대상

-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
- 서비스 전달
- 집행부서, 위원회, 자문위원회의 선발과정
- 교육훈련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주요내용

- 농업정책 성별영향평가 및 정책분석을 위한 분석도구 제시
- 성인지적 지표 및 지표와 관련된 질문 개발

### 3. 호주연방 빅토리아주 ‘농업 및 자원관리에서의 여성 인명록’프로젝트

(Women in Agriculture and Resource Management Register)

□추진배경

- WARM 국가계획의 주차원의 후속조치
- 정책결정에서 여성의 대표성 증진 요구

#### 4. 뉴질랜드 농림부 성 평등한 지속가능 농업 촉진 프로그램

(Gender Equal a Sustainable Agriculture Facilitation Programme)

□추진배경

- 농촌기반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지역경제성장의 요구
- 지속가능한 농업 추진을 위한 성평등성의 필요성 증대

### 제6장 정책 및 제언

- 농업인력육성사업과 직접연관이 많은 농진청-도원-시군센터의 담당자들에 게 <여성농어업인육성법> 및 <여성농업인육성5개년계획> 등에 근거한 농업 인력육성의 역할과 책무가 있음을 전달하고 수행규정을 마련함
- 성 인지적 통계 및 자료 생산과 활용이 이루어져야 함
- 농업인력육성정책관련 사업지침에 정책수혜도의 성별 격차가 큰 사업의 경 우 원인 파악 및 격차해소 방안을 마련하도록 해야 하며, 그 결과를 보고하 도록 함
- 여성의 자문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젠더전문가, 여성농업인, 여성단체 등 의 참여와 편의를 고려하고, 굳이 여성이 아니더라도 성 주류화의 지식과 경험을 가진 개인이나 단체들이 충분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고려함
- 부부농업인 단위의 양성평등의식교육이 필요하며, 교육시기, 장소, 탁아시 설, 여성강사 등을 배치하여 여성친화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함
- 후계농업인 선정시 농가단위가 아닌 개인단위의 선정 및 지원이 이루어지도 록 ‘부부 중 한사람에게만 지원가능’조항은 삭제될 필요가 있음
- 품목별 상설교육은 품목별 연구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특성을 고려할 때, 품목별 연구회 운영 및 활동이 남성중심적으로 이루어지는 현실을 개선 하고 여성들이 보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직 육성을 해야 함
- 농촌지도사 및 관련 공무원들의 연구조직인 전문지도연구회의 과제활동에

여성농업인 육성 관련 정책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켜, 이 집단들이 여성농업인 육성정책을 이해하고 정책 인지도를 높일 수 있게 해야 함

- 농촌관광마을 공모사업 선정기준에 여성이 마을주진위원회에 일정비율을 참여한 마을에 가산점을 주고 교육훈련에도 일정 비율 여성 참여를 명시하는 지침마련이 필요함
- 여성농업인이 참여한 교육훈련을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인증제를 마련하여 여성후계농업인, 농촌관광마을사업 선정 등에서 가산점을 주는 방안을 모색함
- 농업인력육성사업관련자들에게 양성평등교육 및 성주류화정책 교육을 실시함

# Gender Impact Assessment of Training Policy for Farmers

## **1. Necessity and Goal of Research**

In the WTO trade system, the agricultural market is being opened in all areas. Countries around the world are carrying out many measures to develop agriculture as a competitive industry. Inevitably, Korea is also faced with demand for change regarding farming and agriculture policies. The core issue of the changing agricultural policies is to secure the human resources who will lead farming and to develop and foster them to become professionals in this field.

Women are an important part of the farming population. Already more than half of the farming population comprises women and the dependency on the labor of women farmers is expected to increase in the future. Not only due to the increasing importance of storage and processing in farming and also due to the diverse and specialized distribution routes, the role of women farmers is becoming more important. Accordingly, there is a need for the planning, execution and assessment of the overall human resources training plan which goes beyond gender-sensitive policies only for women.

In this research, the projects considered the most important were selected among the farmer training policies of the Korean Ministry of Farming and Agriculture and analyzed as an example to review the possibility of applying the Gender Impact assessment of the farming policies and to provide material to introduce and make the Gender Impact assessment take root. Ultimately through this work, the execution of policy based on the gender sensitive viewpoints of those public officials responsible for the policy will be expanded.

## **2. Research Content**

First is to review the overall farming training policies and to find out the gender issues related to farming and farming training policies.

Second is to review whether the gender impact assessment indicators



can be applied realistically and widely and to suggest areas which can be revised and complemented.

Third is to select projects which have a high relation to the specialization of women farmers among the farming training policies and to analyse them as an example.

Fourth is to make policy proposals for the gender mainstreaming of the farmer training policies and to introduce cases abroad.

Fifth is to set forth guidelines for the gender impact assessment of farming policies in the future.

### **3. Research Method**

#### A. assessment of documents

- assessment of preceding research in and outside of Korea
- Find out current policies in general
- Planning and execution of objects for assessment, review of related documents in the assessment

#### B. Research through Interviews

Working level public servants responsible for policy and the policy execution institutes and men and women farmers who are beneficiaries of the policy

#### C. Questionnaire Survey

Current situation of men and women farmers, their demands and their rate of satisfaction regarding the current policy

#### D. Advisory meeting, report reviewing meeting and workshop

### **Chapter 2 Finding out the gender issues in training policy for farmers**

#### 1. Gender issues related to overall farming

##### A. Gender discrimination in a legal situation

##### B. Farmland mostly owned by men

##### C. Division of farm labor due to gender

D. Not able to actively take part in the management and marketing decision-making

E. Isolated from financial services related to farming due to lack of credit or collateral

2. Gender issues related to training policies for farmers

A. Limitation of opportunities to take part in the training and education for professional farmers

B. Subjects and content based on gender stereotypes and traditional values

C. Male-based training starting from recruitment

D. Limitation on information exchange and support due to weak human network

E. On-site support service concentrated on males

3. Current situation of training policies in Korea

A. Laws and plans related to women farmer training policies

1) 「Basic Law on Agriculture」

2) 'Five-year plan for women farmer green'

3) Law to foster women farmers and fishers

B. Ministry of Farming and Agriculture's system for farmer training policies

It is divided into selecting future farmers and developing policies to foster the education training for farmers. These programs basically follow the administrative management and guidelines of the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 but there are many institutions apart from the Ministry which individually operate education plans and execute them. Some are the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Korean Agriculture Forestry Fisheries Information Service, Agricultural Information Education Institution, Korean Administrative Education Institute, farming education sector, farmer producer organizations and associations, universities with agricultural majors and universities with specialities in this area.

C. Programs for final assessment

1) Future Farmer foster Program by the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

This program is to select the future farmers according to the selecting criteria and to provide up to 100 million won in credit. This program has been cited as the representative gender-sensitive policy to increase the ratio of women by providing 20 additional points to women. However there are still male-centered points in the selection of beneficiaries during the policy execution process.

#### 2) Farming Technique Education by the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This is a program to select competitive farming products in each region and provide on-site education for the long term from the farming technique to sales. Most of this education is related to a agricultural production organization called the Farming Technique Education and there are 34,200 people who are educated through this program which has a big budget and greatly helps foster the capabilities of the professional farming population. However, since the operations are male-centered, opportunities for women to participate are severely limited.

#### 3) IT Education Program

The importance of IT technologies in agricultural production and distribution is growing but since the opportunities for women farmers to take part in this program are low, there are limitations for them to develop as professional human resources.

#### 4) Green Tourism Village training program

This is a program for each village as a new paradigm in order to increase the non-farming income and to emphasize the diverse functions of the rural area and to promote the agricultural society. The green tourism business maintains the male-centered division of labor and the women villagers are isolated since the few village leaders and the members of the programs are mostly men and the participation of women is very limited in education training opportunities.

**Chapter 3** Result of applying the Gender Impact Assessment to program  
After following the 9 guidelines including the policy-making, execution

and after-execution stages set by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s closely as possible, the revised assessment indicator and detailed assessment guidelines were written to analyze the four programs. The principle was to exclude as much subjectivity as possible and to maximize convenience by making it possible to quantify the methods of the indicators and the assessment or to make it possible to check it simply. It is because if there is a lot of subjectivity in assessment or if there are many qualitative analyses, the analyst encounters difficulty, and as a result it is an obstacle in expanding and executing it.

The table with the following assessment indicators and the assessment guidance measures are as follows. The one on the left comprises the 9 Ministry of Gender Equality collective assessment indicators according to the policy stages. Next is the revised assessment indicator which has 19 assessment indicators including the 9 decision making stages, 3 execution stages and 4 post-execution stages. The detailed assessment guidelines according to the revised assessment indicator are 35 in total.

Stage 1		assessment Indicator	Detailed assessment Indicators
<p style="text-align: center;"><b>1.</b></p> <p style="text-align: center;"><b>Policy making Stage</b></p>	<p>Does it know the policy direction for gender quality by the Government?</p> <p>–Does it take into consideration the demands of both men and women in this policy?</p>	<p>1) Whether it has reflected the government's gender equality policy direction and interests</p>	<p>① Whether it recognizes the government's gender mainstreaming policy</p>
			<p>② Whether it recognizes the 'Women farmer foster 5 years plan'</p>
			<p>③ Whether it recognizes the gender impact assessment</p>

		2) Whether it has found out the women related issues	④ Whether it has found out the women's issues related to fostering future farmers ⑤ Whether it recognizes the importance of education for women farmers' farming techniques related to training professional farmers
		3) Whether it has found out the women's demands	⑥ Whether there was a survey on the demands of each gender
	Does it use the gender sensitive statistics in the plans? -If there are not any gender-sensitive plans, is there one or a plan to make one?	4) Whether there is gender-sensitive material and has applied this	⑦ Whether gender-sensitive material was collected and used during the preparations for the program ⑧ Whether gender-sensitive statistics were made or if there are

			plans to produce them
	<p>Will the services or resources from this policy be equally delivered to both genders?          –If gender differences exist, is there a plan to resolve this (including budget?)</p>	<p>5) Whether a gender sensitive budget has been allotted</p>	⑨ Whether they are equally delivered to both genders
			⑩ Whether there is a way to resolve the problem if there is a gender gap
			⑪ Whether there is a budget for the future farmers training for women
	<p>Do the values or ideologies in this plan contribute to overcoming gender role stereotyping?</p>	<p>6) Whether there are goals including those related to women</p>	⑫ Whether the values and the ideologies in the program for training of future farmers overcome the gender stereotypes
		<p>7) Whether there is a women advisor</p>	<p>⑬ Whether there was advice from a gender expert or adviser from a women's group and if their opinions were accepted</p>
			⑭ Gender ratio in

			the makeup of the future farmer foster program
		8) Whether there are laws for reaching the goal related to women	<input type="checkbox"/> ⑮ Whether there are laws and guidelines for women <input type="checkbox"/> In case there aren't laws, whether measures will be taken
		9) Whether person in charge is gender sensitive	<input type="checkbox"/> Gender ratio of public servants in charge <input type="checkbox"/> Level of gender equality by the public servants in charge <input type="checkbox"/> Whether they have taken part in gender equal training
<b>2. Policy Execution Stage</b>	Are the services and the resources in this policy being equally delivered to both genders? –Are there	1) Whether the service (or resources) are being delivered	<input type="checkbox"/> ① Whether there is promotion or information delivery for execution of future farmer foster program <input type="checkbox"/> ② Whether the

			promotion and delivery methods have been set and utilized
	gender-sensitive statistics to prove this?	2) Whether it found out the amount of the benefits of this policy per gender	③ Whether the rate of benefits to each gender in the future farmers foster program have been surveyed
			④ Whether there were efforts to find out if there is a reason behind the reason for the gender gap in the benefits
		3) Whether gender sensitive budget execution was carried out	⑤ Whether the budget according to gender was executed
	⑥ Whether there is additional budget allocated due to the unique necessity of women		
<b>3. Stage after policy</b>	Was it confirmed if the rate of satisfaction regarding this policy was	1) Whether there was assessment afterwards and whether is was	① Survey of the satisfaction rates per gender of the official in



<b>execution</b>	different according to each gender?	analyzed per each gender	charge of the program and the beneficiary
			② Whether there was assessment of the participation rates of the future farmer foster program
			③ Survey on the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demands regarding improvements
	Did this policy bring about positive impact on changing the gender stereotypes?	2) Whether there is a positive change in awareness of gender equality	④ Whether it has influenced the improvement of gender equality such as improvement in the professional qualities of women and expansion of social participation
	Did the results of this policy execution bring positive (or negative) effects to both genders?	3) Whether there was confirmation of the execution results and whether there is an alternative	⑤ Whether there was positive influence on both genders
			⑥ Whether there is an alternative in

	<p>–If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the amount of benefits according to gender, and if there is an alternative (including budget) to resolve this problem?</p>		<p>case gender gaps in benefits exist</p>
	<p>Were the results of the policy execution including the gender factors relayed to the group which will receive the benefits of the policy and the general people?</p>	<p>4) Whether the execution results were delivered</p>	<p>⑦ Whether there are plans to make a budget for women</p> <p>⑧ Whether the execution results and the material have been made public</p> <p>⑨ Whether there are gender related contents in the program result report</p> <p>⑩ Whether the program results were delivered to related public servants</p>

The following is the assessment for each indicator and guideline for each program.

#### 1. Policy making stage

Most of the people responsible said that they were completely unfamiliar with the words such as 'gender mainstreaming' or 'gender impact assessment' which should be taken into consideration related to the government's gender equality policy

They said that they had never thought that this program was related to gender equality, but after the interview they replied that they understood why. Furthermore they said that they would have included this when educating the working level employees in charge of the program and the farmers.

The proportion of women in the committee related to this program were 34.5% for the future farmers foster, 12.5% for the green tourism village training program and there were not any women or women advisors in the farming product education and the farmer IT education. In case of the women members, they were not experts on gender.

Since they had never thought that this program was related to gender equality, they did not feel any need for carrying out the gender demands, goals related to women, gender statistics, gender budgets and differentiation in the promotion strategy.

#### 2. Policy Execution Stage

Since the future farmers foster program has existed for a long time, it was relatively well known but although there were different ways of promoting the other programs, it was not reflected in the promotion methods.

In case of the benefits according to gender, in the case of the future farmers foster program, there was a higher percentage of women being selected among the applicants. In the case of the Green Tourism village training program, there were more cases when gender of the participants was not specified in the participant list. However there was gender specification in the final count. The rate of benefits to each gender in the farming product education. Accordingly, there is not assessment of the gender gap in the benefits or execution of gender sensitive budgets or additional budgets

allocated according to the unique necessity of women,

### 3. Stage after policy execution

In case of most agricultural training programs, there was research on the demands related to the rate of satisfaction after program execution, whether they will continuously take part in the program and whether there are any points of improvement but there were almost no cases when the results were differentiated by gender.

It is difficult to think that there was a direct positive influence on changing the objective awareness of gender equality since there was not assessment before and after the policies were executed. However, there were some areas where, through this survey on beneficiaries, we exerted an influence on gender equality.

The execution results were concentrated on men and it was found that the budgets for women or alternatives for them were lacking.

Some of the execution results are disclosed but the gender contents were not included in the final report.

## **Chapter 5** Cases in foreign countries related to gender impact assessment

'Women, strategies as the beneficiaries of policy' (AFFA, Women as Clients)'

After completing 'The National Plan for Women in Agriculture and Resource Management', follow-up measures

Development of guidelines where the women are actively included in decision making process as 'Women of client strategy'

The group in question are public servants in charge of farmer training policies

Need to develop gender sensitive indicators and questions related to it as a tool for the gender impact assessment and policy assessment of farming policies (Commonwealth of Australia, 2001, Gender Mainstreaming in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 A Reference Manual for Governments and Other Stakeholders).

## **Chapter 6** Policy Proposal

There is a need to take into account the role and responsibility of

fostering agricultural human resources in a gender–equal manner according to the related laws and guidelines and to make the regulations.

Production and usage of gender–sensitive statistics

Fostering a women–friendly environment where more women can participate

Expansion of gender–sensitive women advisor participation

Programs where prior gender impact assessment should be made

Selection of different promotion methods and strategies according to gender

# I. 서론

---

# I.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그 동안 우리 사회는 급속한 자본주의적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농업이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졌으며, 농업인구도 급속하게 감소되어왔다. 그에 따라 농업인구의 부족현상과 함께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다. 한편, 농산물 개방으로 인한 농업경쟁력의 약화는 전문적인 농업인구를 중심으로 경쟁력 있는 농업생산 체제를 확립하고자 하는 구조적 변화를 피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만성적인 노동력 부족 현상과 전문적인 농업인구의 확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농업 인력의 육성이 매우 중요한 정책적 관심사로 대두되었다.

적정 규모의 농업 인력을 확보하고 유지하지 못한다면, 결국 국내 농업생산 기반의 존립이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근래 영농형태가 시설원예 및 특용작물 재배 중심으로 바뀌어져 왔고, 전반적으로 농업의 과학기술화, 전문지식화가 심화됨에 따라 전문 농업인력 육성은 매우 중요한 정책 과제가 되었다.

그 동안 농업 인력의 부족 현상 속에서도 이제는 절반 이상을 차지할 만큼 규모의 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농업인에 대한 관심도 조금씩 증가해왔다.

여성농업인들이 국내 농촌·농업의 안정적인 재생산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정책 입안자 및 관련 전문가들이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에 따라 여성농업인의 역할 증대 및 지위향상의 필요성이 증대되었고, 결과적으로 여성농업인의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계획 등이 수립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법 중에서 1999년에 제정된 《농업·농촌기본법》에서는 처음으로 여성농업인 육성에 대한 내용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었다. 이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농업정책의 수립·시행 시 여성농업인의 참여를 확대하고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과 전문인력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여성농업인육성 규정을 두어 여성농업인의 육성을 중요한 과제로 설정한 것이다.

그리고 2001년에는 《여성농어업인육성법》을 제정하고 이 법에 근거하여 《여성농업인육성 5개년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시행중에 있다.

그러나 최근 여성농업인육성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고는 있으나 전반적인 농업인력육성정책의 모든 부분에서, 여성농업인육성을 진전시키기 위한 세부적인 정책 수행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책은 계획단계의 목표설정과 방향도 중요하지만, 정책의 수행 과정 및 그 결과도 매우 중요하다. 실질적인 목표 달성은 일련의 정책 수행과정을 통하여 수행의 결과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정책의 수립과정에서 구체적인 수행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정책의 목표가 적용되어야 실질적인 정책 목표는 달성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농업정책에서 인력육성정책은 농업생산의 기반을 형성하는 매우 중요한 정책 영역이다. 그러므로 여성농업인이 전문 농업인으로서 발전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농업인력육성정책이 여성농업인의 육성을 위하여 적극적인 목표를 지향해야하고 다양한 추진 방침 등을 포괄해야 한다.

이는 곧 농업인력육성정책이 정책전반에 걸쳐 성인지적 시각에서 수립·추진되어야 함을 말한다. 그렇지 않다면, 핵심적인 전문 농업인은 남성들이 중심이 되고, 여성농업인은 주변화되어 보조 노동력으로서 기능하는 성별 분리된 인력 체계가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농업인력육성정책에 있어 양성평등한 참여와 수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력육성정책의 결정과 수행이 성 인지적인 관점에 입각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농업인력육성정책이 과연 성 인지적 시각에서 입안되고 수행되고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고 평가할 필요가 있다. 농업인력육성정책이 여성농업인의 육성을 적극적으로 목표로 삼고, 실제 정책의 계획에서 수행에 이르기까지 여성농업인의 육성에 걸림돌이 되는 제약 조건 및 환경을 고려하였는지, 또 기존의 남성중심적인 정책 대상 설정 및 정책 수행의 관행을 타파하도록 노력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농업인력육성정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기존의 농업인력육성정책에 대하여 성 인지적 관점이 적용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즉, 성별에 따른 차이와 조건을 고려하여 양성에게 평등한 인력육성정책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이다.

농업인력육성 정책의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기존의 인력육성정책에 대한 성 인지적 평가뿐만 아니라, 정책 계획 및 수행자들에게 성 인지적 관점의 중요



성을 인식하게 하고, 담당자들의 정책 업무 과정에서 성 인지적 관점이 적용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정책 업무 담당자들이 앞으로 정책 업무 과정에서 성 인지적 관점의 적용 여부를 점검하고 자체 평가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지침을 제공해주는 것이다.

정책의 계획단계에서 구체적인 추진 단계에 이르기까지 성 인지적 관점의 적용은 매우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정책의 계획단계에서 수행단계에 이르기까지 매 단계별 평가하고 지침을 제공해야 한다.

특히 농업인력육성정책의 경우, 큰 틀의 정책 기획은 농림부에서 담당하고 관장하고 있으나 인력육성정책의 수행은 지방자치 정부, 농촌진흥청과 농업기술원 및 농업기술센터, 농협, 농업연수부 등의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추진 체계를 지니고 있다.

농업인력육성정책에서도 후계농업인 선정 등의 수행은 지방자치 정부에서 맡고 있으며, 농업기술교육이나 농기계교육 등과 같은 교육훈련은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등에서 수행되고 있다. 더구나 농업기술교육과 같은 교육훈련은 농촌진흥청에서 독자적으로 예산을 마련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지침을 농업기술원과 농업기술센터에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농업인력육성정책이 다양하고 복잡한 추진 체계 속에서 계획·시행되고 있다는 것은, 정책 기획 및 입안의 단계에서 구체적인 정책 추진의 과정까지 정책 목표가 일관적으로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도 많음을 의미한다. 즉, 농림부의 거시적인 정책들에서 여성농업인 육성을 고취시키는 성인지적 관점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었다 하더라도, 다른 체계 속의 기관들에 의해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정책과정 속에서는 이것이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도 농후하게 존재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농업인력육성정책에서는 상위의 농업인력육성정책의 기본계획과 지침에서부터 하위 단계의 정책 수행과정 및 결과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면밀하게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해야 하며, 평가 결과 마련된 지침들을 각각의 정책 수행 담당 주체에게 제공해야 한다. 바로 본 연구에서 이러한 평가 지침을 마련하고자 한다.

## 2. 기대효과

본 연구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효과와 정책적 활용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기대효과로는 첫째, 농업인력육성정책 담당자에게 성 인지적 관점의 이해 및 필요성을 인식시키는데 기여한다.

둘째, 농림부의 농업인력육성정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지침을 제공하고, 앞으로 농업인력육성정책 및 농업정책에 대한 성분석의 제도화에 기여한다.

셋째, 농림부의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한 발전적인 정책대안 발굴 및 시책 수립에 기여한다.

넷째, 본 연구를 통하여 참여정부의 국정과제인 ‘양성평등사회 구현’을 위한 정책과 제도의 재구조화에 기여한다.

다섯째, 여성과 남성의 사회 공동참여 및 국가발전에 대한 동등한 기여를 촉진하는데 기여한다.

여섯째, 정책 수요자인 여성과 남성의 정책 만족도를 동시에 제고함으로써 정책 효과성 및 공공재원 배분의 형평성을 제고한다.

일곱째, 여성과 남성의 서로 상이한 경험과 실질적 요구를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맞춤형 정책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여한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활용방안을 제시해보면, 첫째, 지속적으로 농림부의 제반 정책에서 성 주류화가 달성될 수 있는 정책자료로 활용가능하며, 둘째, 본 연구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농림부 정책 업무에 성 인지적 관점을 통합하고 정책의 민주화·선진화를 도모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본다.

## 3. 연구내용

본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업인력육성정책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농업인력육성정책은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한 사업과 내용을 포함한다. 또한 정책사업의

수행도 매우 다양한 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이 되는 농업인력육성정책의 특성과 체계를 전반적으로 개괄·검토하고, 구체적인 분석대상이 되는 정책분야를 선정할 것이다.

둘째, 농업 및 농업인력 정책과 관련한 젠더 이슈를 검토하고자 한다. 성인지적 정책 추진 배경은 농업 분야에서의 성 불평등과 기존 정책의 남성중심적 추진 관행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계속 제기되어왔다. 따라서 현재, 농업 부문과 농업 인력 정책에서의 성 불평등과 관련한 젠더 이슈가 무엇인지를 정리해보고, 우리나라 농업 인력 정책의 성 인지성을 강화하는데 어떤 함의를 지니는지 살펴볼 것이다.

셋째, 성별영향분석평가 지표를 검토하고,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농업인력육성정책에 맞게끔 수정·보완하고자 한다.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선행 연구들에서 제시된 정책 분석 단계나 성별영향분석평가용으로 개발된 분석틀, 지표들을 고찰하고, 이러한 지표들을 농업인력육성정책에 대한 적합한 평가분석틀이 되도록 수정·보완할 것이다.

넷째, 농업인력육성정책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시범 분석을 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수정·보완한 분석지표에 따라 구체적인 분석대상으로 선정한 정책사업에 대하여 시범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할 것이다.

다섯째, 외국의 성 인지적 정책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1990년대 후반부터 선진국을 중심으로 정책의 성 분석이나 성 인지적 관점의 정책평가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으며, 그러한 분석 및 평가를 바탕으로 실제 정책에 반영하는 프로젝트가 이루어져왔다. 일부 다른 국가에서는 농업 분야에서도 농업정책의 성 분석과 관련한 일련의 사업들이 수행되어왔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정책 사례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여섯째, 본 연구에서는 향후 농림인력육성정책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을 위한 지침 수립 방안 및 정책 제언을 하고자 한다. 앞으로 농업인력육성 정책, 더 나아가 농업정책 전반에 걸친 성별영향분석평가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서 성 인지적인 정책 추진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분석 지침 수립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분석 결과에 따른 성 인지적 정책을 위한 개선점 및 제언을 할 것이다.

## 4.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하고자 하는 정책은 농업인력육성정책이다. ‘농업 인력’은 정의하기에 따라 포괄하는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며, 서로 상이한 성격의 인력이 포함될 수 있다. 예컨대 농업 인력을 좁은 범위로 한정지어 본다면, 직접적으로 농업생산을 담당하는 농업생산인력을 지칭하지만, 보다 넓은 범위에서 농업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지칭하는 것으로 볼 경우에는 농산물의 유통이나 농기계 생산 및 농업관련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인력도 모두 농업 인력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농업인력육성정책도 농업 인력을 어느 범위까지 설정하느냐에 따라 초점이 달라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농업 인력을 직접적인 농업생산에 참여하고 있는 농업생산인력에 초점을 두어, 농업인력육성정책도 농업생산인력과 관련한 정책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우선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일차적으로 농림부의 모든 정책에 관한 세부적인 지침 규정을 담고 있는 농림부 사업시행지침서를 기반으로 농업인력육성정책에 해당되는 부분을 연구범위로 설정하였다.

다음으로, 교육훈련 분야는 농림부 사업시행지침서와 농촌진흥청의 지도사업지침을 기반으로 현재 농림부 및 농촌진흥청에서 기획·추진·관리하고 있는 교육훈련 사업 분야를 연구범위로 설정하였다.

### □□ 농림부 농림사업시행지침

농림사업시행지침은 과거 중앙집권적 하향방식의 농정추진방식을 지방화시대와 WTO 신무역질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농어촌특별세’를 신설하여 총 57조원의 재원을 마련, 상향식 농정체계를 추진하기 위하여 1994년 12월 ‘농림수산사업통합실시요령’을 마련함으로써 시작되었다(농림부·한국여성개발원, 2001).

농림사업시행지침은 총 5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농업인력육성정책사업의 내용은 제4권의 ‘농촌개발분야 사업시행지침’에 포함되어 있다.<sup>1)</sup> 여기에는 인력육성과 관련한 각종 사업들의 추진방향, 사업시행 주체, 선정기준, 근거법령, 지원계획 등 세부적인 내용과 추진목적이 상세하게 포함되어 있으며, 농림부

1) 제1권은 관계규정 해설 및 사업별 주요변경사항, 제2권은 농업(식량작물) 구조개선, 제3권은 농업구조 개선분야, 제5권은 임업 및 산촌구조 개선 분야이다.

에서 관장하고 있는 농업인력육성정책을 시책사업별로 모두 다루고 있어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위한 정책대상 선정에 매우 유용한 자료이다.

## □□ 농촌진흥청 농촌지도사업기본지침

농촌진흥청은 매년 농촌지도사업 기본지침을 마련하여 농촌지도 및 교육훈련 사업을 각 지역에서 실시할 때 기본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의 『2004년도 농촌지도사업 기본지침』의 개요와 추진방향은 다음과 같다.

### □ 농촌지도사업 기본지침 개요

- 매년 개발된 농업과학기술의 신속한 기술보급을 위한 새기술시범사업 및 시책사업과 교육훈련 등의 추진요령이 수록된 농촌지도사업 기본지침을 시달하여 사업추진 효과 제고
- 지방지도기관에서 중앙지침에 따라 지역특성에 맞는 농촌지도활동을 전개할 지방단위 실시계획 수립 시 기본자료로 활용

### □ 법적근거

- 농촌진흥법 제4조 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농촌진흥청장은 매년 개발된 농업과학기술의 신속한 기술보급을 위한 새기술시범사업 및 시책사업과 교육훈련 등의 추진요령이 수록된 농촌지도사업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시달

### □ 2004년도 중점 추진방향

- 국민식량의 안정공급과 친환경 농업기술 보급
-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과 농가소득 향상
- 농촌자원의 소득화와 생활환경 개선
- 지식과 경영능력을 갖춘 전문 농업인력 육성
- 농촌지도 기반조성과 조직의 활력화

그러나 농림사업시행지침이나 농촌지도사업지침에서 제시되고 있는 농업인력육성정책들은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한 사업들을 포괄하고 있다. 이러한 사

업들을 모두 분석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구체적인 분석 대상 사업을 선정하였다.

분석 대상 사업 선정 기준은, 첫째, 농업인력육성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예산이나 사업 규모면에서 비중이 높은 사업, 둘째, 서로 상이한 내용의 사업들을 고르게 선정할 것, 셋째, 여성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고, 여성들이 사업의 대상이 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성별 수혜도의 격차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이다.

이와 같은 기준에서 본 연구에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위하여 크게 4가지 분야의 구체적인 사업을 선정하였다.

- 후계농업인육성
- 영농기술교육 : 품목별상설교육
- 정보화교육
- 농촌관광마을인력육성

#### ① 후계농업인육성

후계농업인 육성사업은 후계자로 선정된 개인에게 영농설계에 따라 차등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사업은 농업인들이 농업에 필요한 농지구입, 설비구입 및 설치, 경영컨설팅 등에 활용하여 전문농업인으로서의 물질 기반을 갖추고 농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후계농업인 육성사업은 전문농업인력으로서의 역량을 갖추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력육성정책이다. 그러나 그동안 후계농업인 육성사업은 여성농업인에 대한 가산점 부여가 실시되기 이전인 1996년까지는 여성농업인 선정 비율이 10%가 되지 않은 낮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그러다가 1997년 이후 여성농업인에 대한 가산점 부여와 함께 10%대를 넘어섰고, 1999년에는 20.3%를 차지하기도 하였다.

여성농업인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한 때 20%를 넘기도 했으나, 1999년 이후 여성농업인 선정은 다시 20%에 못 미치는 상황이다.

이렇듯 후계여성농업인 사업의 기본 정책틀에는 여성에 대한 적극적인 가산점 부여의 조건을 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선정비율을 차지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밝힐 필요가 있다.

즉, 정책계획 및 기본지침과 달리 정책 수행과정, 즉 실질적인 선발의 과정에서 과연 정책담당자들이 성인지적 관점에서 후계농업인 선발을 수행하고 있는지, 성 형평성의 관점에서 여성들에게 불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이나 관행은 없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후계농업인 육성사업을 농업인력육성정책의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의 한 영역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 ② 품목별상설교육

품목별 상설교육은 영농기술교육 분야에 포함되며, 시군의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을 수행하고 있다. 품목별 상설교육은 시군별로 3~4개 품목을 선정하여 연간 3~4회 이내 주요 영농단계별로 교육을 실시하며, 교육대상은 품목별 농업인 조직체의 회원이 중심이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품목별 상설교육을 구체적인 분석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첫째, 품목별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교육인원이 34,200명으로 영농기술교육 중에서 비교적 많은 수의 농업인들이 받을 수 있으며, 예산액의 규모에서도 새해 영농설계교육 다음으로 규모가 큰 사업이다.

둘째, 이 교육은 교육대상이 ‘품목별 조직농업인’으로 생산조직과 연계하여 교육이 이루어지므로, 현실적으로 농업생산조직에서 소외되고 있는 여성농업인들이 교육의 수혜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표면상 ‘조직농업인’을 교육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남성중심적인 조직활동이 중심이 되는 현실을 고려하여 여성들의 교육참여 증진을 위한 보완책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실질적으로 남성농업인 중심의 교육이 될 가능성이 높다.

셋째, 농림부 및 농진청의 『사업시행지침서』와 『농촌지도사업기본지침서』를 보면, 품목별 상설교육은 1회에 1일의 단기교육이지만 연중 단계적으로 3~4회 실시하여 생산기술 및 관련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교육이다. 강의, 토의, 실기실습, 현장교육 등 현장 영농기술교육의 성격을 띠고 있는 이 교육은 전문농업인으로서의 역량을 키우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교육으로 여겨진다.

< 표 1 > 2004년도 영농기술교육 계획

과 정 별	수행기관	기간	계획인원	대 상	예산액
소득작목 전문기술교육	중앙	3~4일	477명	교육희망농업인	한농전
전문농업인교육	중앙	2~3일	400명	작목별농업인조직체회원	한농전
영농공개강좌	중앙	1일	3,000명	주산지역 희망농업인	73,984천원
지역특화작목교육	도	1~2일	20,000명	교육희망 농업인	도자체계획
품목별 상설교육	시군	1일	34,200명	품목별 희망농업인	171백만원
새해영농설계교육	시군	1일	481,821명	교육참여 농업인	13.5억원
특성화농업경영자과정교육	시군	30일	600명	영농교육 희망자	90백만원
농업인수출품목교육	시군	3일	1,000명	수출품목 교육희망자	27백만원
당면과제현장교육	시군	1일	150,000명	교육희망 농업인	시군비

\* 자료 : 농진청, 『2004년도 농촌지도사업기본지침서』.

### ③ 농업인 정보화교육 사업

농업인 정보화교육 사업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여성과의 관련성을 가지고 있으며 성 인지적 관점의 정책 분석의 필요성을 시사해 준다.

여성 농업인은 정보화에 있어 농촌이라는 지역적 특성과 함께 여성이라는 이중적 장애요인을 가지고 있다. 여성 농업인의 정보접근기회의 장애요인을 보면, 과학기술 발달과정의 문제, 농촌지역에서 문화적소외 현상이 빚어지는 특성으로 인한 문제, 인식의 성차로 인한 접근기회의 부족, 여성농업인의 수동성과 새로운 정체성 형성의 문제 등의 요인을 들 수 있다.

농업 인력으로서 여성농업인의 인적 자원 수준에는 연령과 교육수준 이외에 농업과 관련된 각종 기술과 지식 등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데, 특히 농업생산과 유통에서 정보화 기술의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정보 접근·활용도는 농업인력으로서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핵심적 지표가 된다.

그런데 여성농업인 가운데 3.0%만이 농업과 관련해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어 농업정보 접근·활용도가 매우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2003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내용에 의하면, 컴퓨터를 사용할 줄 아는 여성농업인은 39세 이하의 연령층에 집중되어 있으며, 농업과 관련해 사용하는 비율도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은 편이어서 여성농업인들의 인적 자원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은 가운데에서도 젊은 세대의 수준은 비교적 높다. 그러나 39세 이하의 비교적 젊은 연령층에서도 46.5%는 컴퓨터를 사용할 줄 알면서도 농업과 관련해서는 사용하지 않고 있어 여성농업인의 정보화 능력이 농업생산 분야에서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이 농촌지역 사회에서의 여성지위의 현주소이다.

한편 정보화 능력을 비롯한 인적 자원 수준을 높이기 위해 정부에서는 각종 훈련기회를 제공해 왔다. 그런데 『2003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에 의하면 전체 여성농업인 가운데 5.1%만이 컴퓨터 이용 및 농업정보이용에 관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어 수혜율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여성농업인 중에도 28.6%만이 농업과 관련해 정보를 사용하고 있을 뿐, 교육을 받았던 여성 중 70% 이상은 컴퓨터를 사용할 줄 모르거나 사용하더라도 농업과 관련해서는 사용하지 않고 있어 정보화 기술을 중심으로 여성 농업인적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교육의 실효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앞으로 농업정보 활용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39세 이하의 연령층에서는 61.8%, 40대 연령층에서는 57.1%가 농업과 관련해 컴퓨터 이용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별로 이용의사를 밝힌 비교적 저연령층이면서 학력도 높은 여성농업인들은 첨단정보기술을 갖춘 농업인적자원으로서의 가능성이 어느 정도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들은 신농업기술이나 경영기법, 농산물 가공 및 유통에도 비교적 관심이 높은 만큼 적절한 교육과 지원책을 통해 인적자원 수준을 높이면 농업이 생산과 가공, 유통을 포괄한 종합산업으로 발전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상황은 여성농업인들이 정보화 사회의 생산자로서의 기초능력이 미흡함을 의미하며, 영농활동을 위한 컴퓨터 활용 능력 배양의 필요성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여성농업인 자신이 농촌의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해 낼 수 있도록 영농기술 정보나 회계관리 소프트웨어 활용, 경영관리 정보화 교육 등을 통해 농업관련 정보의 활용은 물론 전자상거래 전략을 펼칠 수 있는 능력이 제고되어야 한다. 그리고 지역간, 성별간 정보접근 및 이용에 있어서 불평등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 현 상황을 탈피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따라서 농업인 정보화교육 사업은 여성 농업인의 정보소외 현상을 해결하고 정보화 능력을 제고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업의 중요성에 비추어 사업 준비단계에서 평가단계에 이르기까지 성 인지적 관점에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 ④ 농촌관광마을인력육성

본 연구에서 농촌관광마을 인력육성사업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관광마을 육성사업은 농촌을 식량생산의 공간으로 인식했던 데서 생활공간으로서 재조명하고 활성화시키려는 농정정책 전환기의 주요사업이며, 농촌·농업개발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다. 그런데, 농촌관광마을 육성사업과 관련한 농업인들의 현황을 보면, 성별분업에 따라 마을주민대표나 의사결정이 남성에 의해 주도되고 있고 여성은 가사와 유사한 노동 등을 맡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둘째, 이러한 배경은 과중한 농사일과 집안일에 힘든 여성농업인들이 농촌관광이 도입되고 활성화됨에 따라 그 역할과 지위에서 중심적인 위치보다는 주변적인 위치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자본도 없고 전문적 지식도 없다는 이유로 계획과정, 개발과정, 운영과정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셋째, 농업인력육성의 차원에서 앞으로 농촌관광 분야에서 여성인력육성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농촌관광 수요자의 고품질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서비스 기능의 확대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하며, 지역여성은 잠재자원에 대해 잘 알고 있고 활용가능성도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그 경험과 지혜를 농촌관광의 요소로 구성할 실마리를 풀어내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러한 여성들의 잠재력을 발휘하고, 이들이 농촌지역사회에서 활발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과 교육훈련이 필요하다.

넷째, 이러한 이유로 새로운 농정패러다임으로 추진되는 농촌관광마을 사업이 남성과는 다른 여성의 삶의 조건과 요구, 우선순위를 충분히 반영하여 추진되고 있는지를 분석해 보아야 한다. 여성이 교육훈련과정에 평등하게 참여하고 수혜를 받고 있는지 분석하고 여성이 소외되지 않도록 자료가 제시될 필요가 있다.

## 5.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방법을 통하여 농업인력육성정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하고자 한다.

### ① 문헌연구 및 분석

- 국내외 성별영향분석평가의 개념 및 이론적 배경 검토
- 국내외 농업인력육성정책의 성 분석 및 제도화에 관한 선행연구
- 국내외 농업관련 성 분석에 관한 연구동향 검토
- 현행 농업인력육성체계의 개관
- 분석대상 사업시행지침 검토
- 분석대상 사업계획 및 자료 검토 : 법적근거, 추진방향, 사업시행 주체, 선정 기준, 근거법령, 지원계획, 예산분석

### ② 면담조사

- 정책담당자 및 사업수행기관의 실무자
  - 담당자의 여성관련 이슈, 요구 등의 파악 여부 및 성 인지성 평가
- 수혜자로서의 농업인
  - 수혜자의 생활양식, 성 역할 의식, 요구, 고충, 정책 평가 등에 관한 성별 면담조사

### ③ 질문지 조사

- 정책 및 사업 대상자로서 수혜자의 성별, 사회인구학적 변인, 사업 인지 경로, 접근 편의성, 참여실태, 만족도, 전문능력향상, 고충, 성 역할 고정관념의 변화 등

### ④ 전문가 자문회의 및 워크숍 개최

- 연구방향 및 연구범위에 관한 자문
- 조사결과 및 연구내용에 대한 자문
-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학계, 공무원 등과 발표회를 겸한 워크숍 실시

## 6. 연구의 한계

본 연구의 목적은 농림부의 정책 중에서도 농업인력육성정책에 대한 성별 영향분석평가를 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정책수립 및 수행과정에서의 성인지적 관점의 통합여부를 평가하고 앞으로의 성 분석에 활용될 수 있는 지침을 정교화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농업인력육성정책 중에서 후계농업인육성사업, 품목별상설교육, 정보화교육, 농촌관광마을운영교육 등 일부 정책을 대상으로 분석을 하므로 모든 인력육성정책에 일괄적으로 동일하게 평가하거나 지침을 적용하기에 어려운 부분도 있다.

## II. 농업인력육성정책과 젠더

---

## II. 농업인력육성정책과 젠더

### 1. 농업과 젠더 이슈

#### 가. 농업정책과 성 분석

농업정책에서 여성농업인의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거론하게 된 계기는 1995년의 북경여성회의였다. 북경여성회의는 그 동안 농업발전과 농촌개발에서 여성들이 소외되었던 현실을 지적하고, 여성농업인의 발전과 주체적인 참여를 위한 전략들을 모색하였다.

북경여성회의에서는 여성과 빈곤, 여성의 교육과 훈련, 여성과 보건, 여성과 경제, 여성과 환경 등의 분야에서 여성농업인을 비롯한 농촌여성의 문제를 다루었으며 북경행동강령에도 농촌여성발전을 위한 각종 전략이 포함되었다(김영옥·김이선, 1997).

북경여성회의에서 다루어진 여성농업인의 발전에 대한 관심과 전략적 논의들은 농업정책에 성 인지적 관점을 통합시켜, 여성농업인들을 위한 여러 정책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려는 움직임과 농업정책의 성 분석을 위한 기본틀을 마련하는 움직임을 활성화시켰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은 세계농업기구(FAO), 세계은행 등과 같은 국제기구에서 먼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그 중에서도 세계농업기구는 1989년부터 여성농업인을 포함한 농촌여성의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위한 전략적 이행틀을 마련하였다.

세계농업기구는 1985년 나이로비 여성회의에서 논의된 여성발전을 위한 전략의 모색이라는 과제를 적극 수용하여 1989년 제1차 “발전에서의 여성 통합을 위한 행동계획”(Plan of Action for the Integration of Women in Development 1989-1995)을 마련하였다.

이후 1995년 북경여성회의 이후에는 제2차 “여성발전을 위한 FAO의 행동계획”(FAO Women in Development Plan of Action 1996-2001)을 마련하였는데, 이것은 여성농업인의 발전을 위한 구체적이고 제도적인 지원책을 제공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이 행동계획은 생산자원에 대한 접근과 통제에 있어서의 성 형평성을 증진

하고, 모든 수준의 의사결정과 정책과정에서 여성의 참여를 향상시키며 농촌 여성의 노동부담을 줄이고 취업기회와 수입을 높이는 것을 전략적 목표로 하였다(김영옥·김이선, 1999).

제2차 여성발전을 위한 FAO 행동계획은 농업정책에 성 관점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여성농업인 및 농촌여성의 차별적 현실을 개선하고, 이들의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지위 향상을 위한 정책적 기반을 제공·지원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다.

제2차 FAO 행동계획이 지향하고 있는 여성발전을 위한 정책적 주요 관심사는 다음과 같다(김영옥·김이선, 1999).

- 농업 및 농촌 개발의 성 차원에 대한 양적, 질적 자료와 정보의 사용 가능성과 정확성, 이용도를 높인다.
- FAO와 회원국가의 개발전문가가 농업 및 농촌개발 접근에 성 관점을 통합하도록 돕기 위한 방법론과 도구, 훈련활동을 개발하고 이용한다.
- 농촌여성이 자신들의 노동부담을 줄이고 경제적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그 기술과 역량을 강화한다. FAO는 농촌여성의 노동부담을 경감하고 모든 노동 영역에서 생산성을 높이도록 하는 조치의 채택을 증진할 것이다.
- 성 관점을 통합한 농업 및 농촌개발 정책의 수립과 적용을 지원한다.

이후 FAO에서는 2001년 제3차 여성발전을 위한 행동계획을 마련하였다(2002-2007). 제1차 행동계획이 여성발전을 위한 전략적 틀을 최초로 제공하였고, 제2차 행동계획은 여성발전(Women in Development)을 위한 제도적 지원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가장 최근의 제3차 행동계획은 현재 유엔에서 광범위하게 채택되고 있는 ‘젠더와 발전’(GAD: Gender and Development)에 맞게 개념을 재조정하고 제도적인 손질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으며, 성 주류화를 위한 장치들을 모니터링하고 효과적인 지원 체계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FAO, 2001).

제3차 행동계획은 우선적으로 농업 및 농촌 개발에서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혜택을 받고, 농업 및 농촌개발에 있어 동등한 참여가 보장되는 것이 필수적인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4개의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 목표 1 : 영양상으로 적합한 음식물, 안전한 음식물, 충분한 양의 음식물에 대한 접근에 있어 성별 형평성을 증진시킨다.
- 목표 2 : 자연자원, 농업 지원 서비스의 관리 및 통제에 대한 접근에 있어 성별 형평성을 증진시킨다.
- 목표 3 : 농업 및 농촌 부문에 관한 모든 수준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성별 형평성을 증진시킨다.
- 목표 4 : 농촌 지역에서 농업 내 고용 및 농업 외 고용의 기회에 있어 성별 형평성을 증진시킨다.

특히 FAO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성 주류화를 위한 표적으로서 4개의 우선 개입 영역을 설정하였다: 음식물 및 영양섭취, 자연자원, 농업 지원 시스템, 농업·농촌 개발정책 및 계획이 바로 그것이다. 이 계획은 이러한 목적들이 4개의 우선 개입 영역에서 어떻게 성취되어야 하는지, 각각의 영역에서 핵심적인 행동들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다. 특히 농업·농촌 개발정책 및 계획과 관련하여, 농업정책이 성 인지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성별 분리통계의 수집 및 분석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고, 정책입안자 및 업무 담당자들이 성별로 특수한 정보를 간과하거나 여성과 남성의 상이한 역할 및 요구를 정책에 반영하지 않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FAO, 2001).

따라서 정책결정에서의 참여와 여성의 힘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참여형의 농업·농촌 개발 정책과 성 인지적인 정책을 보다 면밀하게 만들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1990년대 중반 이후 농업정책에서의 여성의 참여와 권능을 증진시키기 위한 국제기구의 공식적인 노력이 이루어져왔는데, 농업 및 농촌에서의 여성들의 지위 향상은 궁극적으로 농업정책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의 통합이 전제가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농업정책의 성분석이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책의 성 분석, 성별영향분석평가는 매우 중요하다. 현재의 정책 환경은 “여성을 포함”시키지는 하지만, 정책, 프로그램, 프로젝트 계획 및 이행에 있어 젠더 이슈에 관한 분석을 반드시 증진시키지는 않고 있다. 성 분석은 여성과 남성의 서로 다른 역할과 책임을 파악하고, 여러 자원들에 대한 접근과 통제에 있어 여성과 남성의 차이, 그리고 여성과 남성의 요구, 우선순위, 제한점 등에서의 차이들을 파악하는 것이다(FAO, 1997).



그 동안 농업정책 및 농업 계획에 관한 주류 문헌에서는 젠더 이슈를 거의 다루지 않았다. 그러나 1970년대 이래, 여성에 대한 개발 프로젝트의 부정적 효과를 비판한 선구적인 연구(Palmer, 1979)를 비롯하여, 1980년대에는 하버드 성 분석틀(Overholt, 1985)이 이루어졌고, 이 외에도 점차 농업에서 젠더 이슈에 관한 문헌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젠더와 계획에 관한 문헌의 증가는 특히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에 이루어졌다. 그 결과 많은 정부들이 여성을 참여시키고 고려하도록 정책 환경을 구축하는데 영향을 끼쳤다.

이 중에서 대표적인 문헌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Gender Issues in Farming Systems Research and Extension(Poets, et al, 1988)
- Working Together : Gender Analysis in Agriculture with case studies and teaching notes(Feldstein and Poats, 1990)
- Gender Analysis in Development Planning(Rag, et al, 1991).
- Gender and Development : a Practical Guide(Ostergaard, 1992).
- Gender Planning and Development : Theory, Practice and Training (Moser, 1993).
- Tools for the Field : Methodologies Handbook for Gender Analysis in Agriculture(Feldstein and Jiggins, 1994).
- Gender & Agricultural Development(Helen Kreider Henderson, 1995)

FAO, 세계은행을 비롯한 국제기구에서는 정책과 관련하여 성 분석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회원국에게 성 분석 및 성 인지적 관점의 전략적 수용 등을 권고하고 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성 분석(Gender-based analysis)과 크게 다르지 않다. 사실 성 분석은 성에 따른 역할, 행위, 욕구, 기회 등에서의 차이들을 이해하고 입증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

성 분석의 목적은 (a) 자원에 대한 접근에 있어 성에 기반한 차이들을 확인하고, (b) 계획자들에게 정책 개혁 및 지원 프로그램 전략의 기획을 통하여 효율성, 공정함, 권능의 부여(empowerment)라는 목표를 성취할 수 있게 하며, (c) 개발 업무 담당자들에게 젠더 이슈를 인식할 수 있게 하는 훈련을 개발하

고, 수혜자들을 위한 훈련 전략을 개발하는 것을 돕는다(web.worldbank.org/home/topics/gender/analytical tools/).

농업정책의 성 분석, 즉 성별영향분석평가도 농업정책에 포함되는 다양한 수준의 자원 및 서비스 등에서 성에 따라 어떤 차이가 존재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그 격차를 줄이기 위한 대안적인 정책개발과 성인지적 정책 목표를 수립하는데 기본지침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농업인력육성정책은 농업정책 중에서도 농업인의 능력개발 및 훈련을 위한 제도, 교육, 각종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한다. 즉, 교육훈련의 참여와 인력양성의 목표, 내용 등에 있어 성에 기반한 차이들이 어떠한 형태로 존재하는지, 정책 업무 담당자들이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했는지를 성찰하고, 앞으로 농업인력육성정책이 여성농업인의 전문화와 지위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다.

농업인력육성정책의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위해서는 우선 농업 및 농업인력육성과 관련하여 성별로 서로 상이한 역할 및 현실적 조건 등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농업·농업정책·농업인력육성정책에서의 젠더 이슈를 살펴보고자 한다.

## 나. 농업에서의 젠더 이슈

우선, 농업에서의 젠더 이슈는 아시아, 아프리카 등의 많은 국가의 농촌에서 여성들의 농업 참여가 매우 높고, 실질적으로 이들이 많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와 현실 여건이 남성과 너무나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 주목하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관련 연구 보고서에서 지적되고 있는 농업분야의 젠더 이슈 중 중요한 사항들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FAO, 1995; FAO, 1997; Helen Kreider Henderson, 1995; Fong S. Monica and Bhushan, Anjana, 1996; Mary-Jane Rivers, 1997; Commonwealth Secretariat of Australia, 2001; 김이선, 1997; 김영옥·김이선, 1999; 김경미, 2000).

### ① 농지 소유권, 농지 보유권, 농지개혁 등에서의 차별

- 농지 및 토지 소유권 및 보유권이 남성에게 집중됨
- 여성은 단지 농지 이용권만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음
- 여성가구주의 영농규모(farms)가 남성가구주의 영농규모보다 평균적으로 작음

전통적인 가부장적 문화에서 농지를 포함한 일반적인 토지 소유권은 거의 남성에게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일정기간 농지를 보유하거나 임대를 할 경우에도 그 권리의 소유주가 남성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은 국제적인 현상이다.

관습상, 아시아 및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에서는 남편이 사망하면 부인에게 농지의 소유권 및 보유권이 상속되지 않고, 친척 중 남성에게 상속되는 경우가 많다.

### ② 농업(기술) 교육 및 훈련

- 개발 업무담당자 또는 농업관련 부서의 농업기술자(agricultural technicians), 특히 상위 직급의 업무 담당자나 전문가들은 거의 남성임
- 여성의 정보 접근이 제한되고 남성 업무 담당자 및 전문가와 접촉하는데 제한이 있음
- 농업기술교육 및 훈련의 과정에 참여가 제한되어 있음

농업인으로서 능력의 발휘와 발전을 위해서는 농업기술훈련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재, 농업관련 부서의 업무담당자, 기술훈련 담당자들은 대부분 남성이며, 여성들의 요구를 반영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또한 농업기술훈련 커리큘럼에서도 성 인지적 관점이 도입되어야 하며, 성 분석이 커리큘럼 내용 및 운영 방식 등에 통합될 필요가 있다.

### ③ 농업 관련 대외적인 서비스(agricultural extension)

- 대외적인 서비스들이 남성 가구주를 통하여 제공되기 때문에 여성농업인들은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제한됨
- 남성을 통해 여성들에게도 이러한 대외적 서비스가 전달될 것이라는 가정을 쉽게 하는 경향이 있음

많은 국가들에서,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재설정되고는 있지만, 앞으로 여성들의 더 많은 참여를 요구하도록 해야 한다.

#### ④ 신용 및 재정 서비스

- 여성들은 공식적인 농업 관련 재정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남성보다 제한되어 있음
- 신용 이용가능성에 관한 정보의 결여
- 여성에게는 때로는 유보(보류) 사항 등이 필요하기도 한데, 그러한 보완적인 재정적 서비스가 결여됨

보통 여성농업인들은 남성들에 비하여 신용이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농업관련 대출 시 남편의 서명을 요구하는 곳도 있다. 대부분의 재산이 남편의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이 재산을 담보로 하는 신용 대출을 얻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여성들의 재정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여성에게는 보다 약화된 기준을 적용하든가 아니면 기간의 연장 등 다양한 세부적인 서비스가 필요하지만, 일률적으로 성별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 ⑤ 마케팅

- 농업 마케팅에서 여성들이 능동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주도권은 남성이 독점하고 있음

최근 농업은 생산만이 아니라 유통 및 판매도 매우 중요하다. 농업생산물이 하나의 상품으로서 가치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농산물의 포장, 홍보 등 마케팅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들의 농업 마케팅에 대한 참여도는 점점 높아져왔다. 그러나 여성들이 실질적인 판매 및 유통활동에 많이 관여하고 있지만, 유통에서의 의사결정권, 거래처의 결정, 판매대금 관리 등 유통 및 판매과정에서의 경영과 의사결정권은 남성들이 주도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⑥ 여성농업인의 법적 지위 문제

- 여성농업인의 법적 지위가 농업인으로서의 직업과 전문성을 인정 받지 못함

현재 여성농업인이 영농활동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라 할지라도 많은 경우 법적으로는 농업인으로서 지위를 부여받지 못한다. 여성농업인의 정의는 「여성농어업인육성법」에 따르면,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농업·농촌기본법」에서의 농업인 규정이 첫째,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둘째,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셋째,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 되어 있다.

그러나, 대부분 농지나 기반 시설 등이 남성의 명의로 되어 있고, 농업생산 소득 역시 남성에게 의해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여성이 법적으로 ‘농업인’이기 보다는 농가여성, 농촌주부로 분류되고 있다.

이러한 개념적 정의는 여성농업인을 사실상 남성을 보조하는 농업노동자나 농사를 지으면서도 가사를 책임져야 하는 농촌주부로 규정하는 것이다.

## ⑦ 여성 농업노동력의 주변화

- 핵심적인 지식, 정보, 기술에서의 여성농업인의 소외
- 성별분업화된 농업노동의 문제

현재, 남성과 여성이 동일한 농업노동에 종사하고 있더라도, 농업노동에서의 성별역할분담 체제는 ‘남성의 일’과 ‘여성의 일’로 구분짓고 있다. 여기서 ‘남성의 일’은 농기계를 활용하거나 시설의 설치 등과 농업경영에 관한 일로 규정되고, ‘여성의 일’은 농기계로 할 수 없는 단순하고 세심한 성격의 수작업이 중심을 이룬다.

여성들의 노동참여율과 노동강도는 증가하고 있지만, 농업노동에서 주체적인 참여는 남성들이 중심이 되고 있다. 특히 농업경영과 관련된 사항들, 즉, 농지구입 및 매매, 설비투자 및 구입, 품종 선택, 유통 및 판매 등은 주로 남성들이 결정을 하고 주도한다.

또한 농업활동과 관련된 전문가 및 관련 농업인들과의 접촉, 정보 획득 및 기술연구 부분에서 여성들은 배제되어 있는 형편이다. 개별 농가의 농업경영

의 상황만이 아니라 농업생산자 조직에서도 남성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작목반과 같은 농업생산자 조직이 남성중심적으로 구성되고 운영되고 있는 관계로, 영농활동에서의 의사결정과 전문적인 기술적 활동은 남성들이 주관하고, 여성들은 단순작업 위주의 농작업을 주로 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농업의 전문기술화가 점차 요구되는 시대에, 여성농업인들이 단순노동을 위주로 할 때, 여성농업인들은 농업노동의 시간과 강도는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주변화된 위치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성별에 따른 위계적 성별분업 체제가 농업노동 부분에서 고착화되지 않도록 정책적 관심과 적극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

## 다. 농업인력육성정책에서의 젠더 이슈

### 1) 인력육성정책과 젠더 이슈

농업인력육성정책은 일정 규모의 농업인력을 확보하여 농업생산을 위한 기반을 유지하고, 안정적인 농업생산에 바탕을 둔 농업 및 농촌 사회의 안정을 위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현대의 농업환경이 점점 기술화·정보화·과학화되면서 경험에 바탕을 둔 기존 방식의 농업 생산은 더 이상 경쟁력을 확보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전문적인 영농기술과 지식, 첨단 기술 및 설비 등에 바탕을 둔 농업생산 방식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농산물 개방으로 인한 농산물 가격 하락 및 외국의 기업농과의 경쟁 등으로 국내 농업생산의 여건이 어려워지면서 탈농업인들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문적인 농업인력을 확보하지 않는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 농업의 기반이 무너질 위기에 처해있다.

그런 점에서 농업인력육성정책은 직접적으로는 전문기술적인 능력을 갖춘 전문 농업인을 육성하고 농업인력을 확보하는 것이지만, 더 나아가서 국내 농업·농촌의 기반과 활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립·시행되고 있는 중요한 정책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농업인력육성정책은 크게 보면 전업농 육성을 위한 인력양성 체제와 이를 위한 제도적인 지원 서비스로 이루어져 있다. 전업농 육성은 일정 규모의 경쟁력을 갖춘 전문농업인력을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구체적으로 이들을 양성하기 위한 각종 제도와 교육훈련 지원 등의 서비스제공에 바탕을 두고 있다.

현재 농림부의 전업농 육성을 위한 제도적 양성 체계는 후계농업인 육성, 벤처농업인 육성, 신지식농업인 육성 등이며, 이 중에서도 후계농업인 육성이 대표적이다. 특히 후계농업인 육성정책은 여성에게 20점의 가산점을 주어 후계농업인 선발에 있어 여성들의 비율을 높이려는 규정을 두어 성인지적 정책의 하나라고 평가받아왔다.

그러나 농림부의 후계농업인력 육성을 위한 지침들이 성인지적인 성격을 띤다고 해도, 실제 정책의 수행 과정인 선발과정에서는 이러한 지침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여전히 남성중심적인 선발 관행이 광범위하게 남아 있는 괴리가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관행은 농촌 사회의 가부장적 문화와 인식 때문이기도 하지만, 인력육성정책의 중심이 '농가'에 주어져 있는 현실과도 관계가 있다.

즉, 그 동안 전업농의 육성은 농업인 개인이 아닌 농가라는 관점에서 전업농가의 육성에 초점이 주어졌고, 농가의 대표자인 남성이 실질적인 인력육성의 대상으로 우선권이 주어져 온 것이다.

따라서 농업인력육성정책은 농업인 개개인의 전문적 능력 개발에 초점을 두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여성농업인이 사회문화적 관행이나 현실적 조건 등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거나 제외되어서는 안된다.

그런 점에서, 농업인력육성정책은 여성이 기회의 평등만이 아니라 조건의 평등이라는 측면에서 수립·추진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하며, 성별영향분석 평가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야 할 정책 대상이 된다고 하겠다.

## 2) 교육훈련에서의 젠더 이슈

농업인력육성정책의 한 축을 이루는 중요한 부분은 농업인의 교육훈련이다. 교육훈련은 농업인에게 전문적인 농업인으로서의 지식 및 기술을 습득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알맞은 토양과 햇빛, 물 등의 조건 등이 제대로 공급될 때 농작물이 건강하고 풍성하게 자라듯이, 농업인에 대한 교육훈련 역시 농업인들이 전문적인 농업인력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해주는 양분과도 같은 역할을 한다.

이처럼 교육훈련이 전문적인 농업인력으로 성장하는데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으나 교육훈련에 대해서도 성별에 따른 조건의 차이와 불공평한 점들이 존재하고 있다.

여성농업인은 가사, 농업을 함께 하는 이중적 역할로 시간이 부족하여 영농교육에 참여하는데 제약이 많고, 여성농업인 스스로 단순 생산노동만을 담당하는 보조자라는 역할인식으로 전문영농교육 참여에 소극적이며, 새로운 농업기술 및 농업동향에 대한 정보접근이 미흡하고 상호간 정보교류의 기회가 적다(변화순, 2001).

교육훈련에서의 젠더 이슈는 주로 여성농업인들의 교육참여를 어렵게 하는 여러 조건들과 교육내용 및 운영방식의 남성중심성과 관련된 것들이다.

### ① 교육기회의 차이

- 농업노동 및 가사노동의 이중부담으로 인한 교육참여가 매우 어려움

첫째, 교육기회의 차이이다. 농촌지역에서 여성들은 농업노동 외에도 가사노동을 전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젊은 연령층의 기혼 여성들의 경우 자녀양육까지도 전담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성농업인들의 이러한 현실적 여건은 하루의 시간을 내어 교육에 참여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특히 1일 이상의 교육과정을 필요로 하는 전문 영농기술교육이나 농기계교육 등의 숙박교육은 참여하기가 매우 어렵다.

또한 지역의 농업기술센터나 농업생산자 조직 및 농업인단체 등에서 주관하는 교육 외에 장거리를 이동하여 교육장소에 가야하는 경우에는 여성들의 참여가 더욱 어려울 수 밖에 없다.

### ② 교육내용의 차이

- 성 고정관념 및 전통적인 가치에 기반한 교육
- 전통적인 여성의 역할 및 가치에 부합하는 교과목 및 교육내용 우세

둘째, 교육내용의 차이이다. 명목상 여성농업인들의 주요 대상으로 하는 교육훈련은 기술교육이라 하더라도 한과, 장류와 같은 전통식품 등의 농가공 기술교육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외에 음식 조리, 공예, 꽃꽂이 등 생활개선이나 취미교육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교육내용은 주로 여성에게 적합한 것으로 여겨지는 전통적인 가치와 부합하고 있다.



반면에, 남성들의 경우에는 유통, 판매, 관리 등의 경영교육과 현장기술교육의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물론 영농기술교육과 농업경영교육의 참여에 있어 성별에 따른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여성들의 참여율은 매우 낮다.

### ③ 교육운영의 남성중심성

- 여성의 현실적 조건을 고려하지 않는 운영방식의 문제
- 모집에서 교육운영까지 성 인지적 관점의 결여

이미 교육훈련 과정을 시작하기 무렵부터, 즉 애초에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준비단계에서부터 조건상 여성들은 배제되기가 쉽다. 이것은 교육대상자 주로 작목반이나 기술연구 조직 등과 같이 생산자 조직이 중심이 되는데, 이미 생산자 조직은 철저하게 남성들이 중심을 이루기 때문에 여성들에게는 교육대상을 모집하고 홍보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 자녀양육을 전담하고 있는 여성들의 경우, 교육기관에 보육시설이나 보모가 배치되지 않을 경우 교육참여 의사가 있더라도 참여를 하기 어렵다. 이러한 여성들의 조건들을 고려한다면, 여성친화적인 교육환경으로 개선해야 한다.

### ④ 교육훈련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

- 협소한 정보교류 및 인적망 형성

교육훈련과 관련한 정보 교류에서 여성농업인들은 불리한 조건에 처해있다. 영농활동에 관한 정보는 주로 생산자 조직과 그 안에서 농가를 대표하는 ‘남성’에게 전달되고, 남성들은 농업생산과 관련된 구입 및 거래 활동에 주로 참여하는 관계로 이러한 활동 속에서 다양한 영농 정보를 습득하고 서로 정보를 교류·공유한다.

또한 여성 스스로도 영농정보에 대한 다양한 인적 교류 활동은 남성들의 몫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기술교육 및 정보 제공의 역할을 하는 교육훈련에 참여하는 것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이렇게 상대적으로 남성들에 비하여 정보교류망이 협소한 여성들의 경우 정보 습득의 양과 수준이 대체로 남성들에 비하여 떨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교육훈련에 대한 정보도 여성들에게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 2. 농업인인력육성정책의 현황

### 가. 여성농업인력육성정책 관련 법령 및 계획

1990년대 이후 여성농업인의 역할증대와 지위불일치 현상에 대한 정책적인 관심이 증가하여, 여성농업인들의 지위향상과 전문인력으로 육성하려는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시도로서, 1999년에 제정된 《농업·농촌기본법》에서는 처음으로 제14조에서 여성농업인의 육성에 대한 조항을 규정하였다. 다음으로 2001년에 제정된 《여성농어업인육성법》은 여성농업인육성을 본격적으로 법적으로 보장하고 정책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특히 여기에는 ‘여성농업인육성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 1) 농업·농촌기본법

1999년에 제정된 농업·농촌기본법에서는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과 전문인력화를 위한 시책의 시행을 명시하고 있다.

제14조 (여성농업인의 육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정책의 수립·시행에 있어서 여성농업인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과 전문인력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2)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여성농어업인육성법에서는 여성농어업인육성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할 것을 명시하고 있고, 여성농업인을 전문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사업들을 수행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여성농어업인육성법에서 여성농업인의 육성 및 전문인력화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규정한 조항은 제3조, 제5조, 제9조이다.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여성농어업인의 능력개발과 지위향상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 (여성농어업인육성기본계획의 수립) ①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여성농업인육성정책 또는 여성어업인육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 마다 각각 수립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1. 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의 목표
2. 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의 기본방향
3. 다음 각목의 핵심정책과제
  - 1) 농어업경영능력향상
  - 2) 여성농어업인의 지위향상
  - 3)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 4) 그 밖에 여성농어업인 육성에 필요한 시책

제9조 (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을 높여 농어업관련 전문인력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다음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1. 여성농어업인의 전문인력화를 위한 농어업기술교육·농어업경영교육 및 그 교육체계의 구축
2. 여성농어업 후계인력의 육성
3. 여성농어업인 생산자단체의 육성과 지원
4. 농어업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여성 농어업인에게 적합한 영농·영어작업의 환경정비 또는 자동화 추진
5. 독립적인 농어업경영을 하고자 하는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경영상담과 자금의 지원

### 3) 여성농업인육성 5개년 계획(2001 ~ 2005)

여성농어업인육성법에 근거하여, 여성농업인의 육성에 관한 정책과제 설정 및 추진을 위하여 마련된 것이 여성농업인육성 5개년계획이다.

여성농업인육성 5개년계획에서는 4개의 기본 시책방향과 8개 부분의 핵심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여성농업인의 전문인력화와 이를 위한 정책과제들이 포함되어 있다.

<표 2> 여성농업인육성5개년계획의 시책방향 및 핵심정책과제<sup>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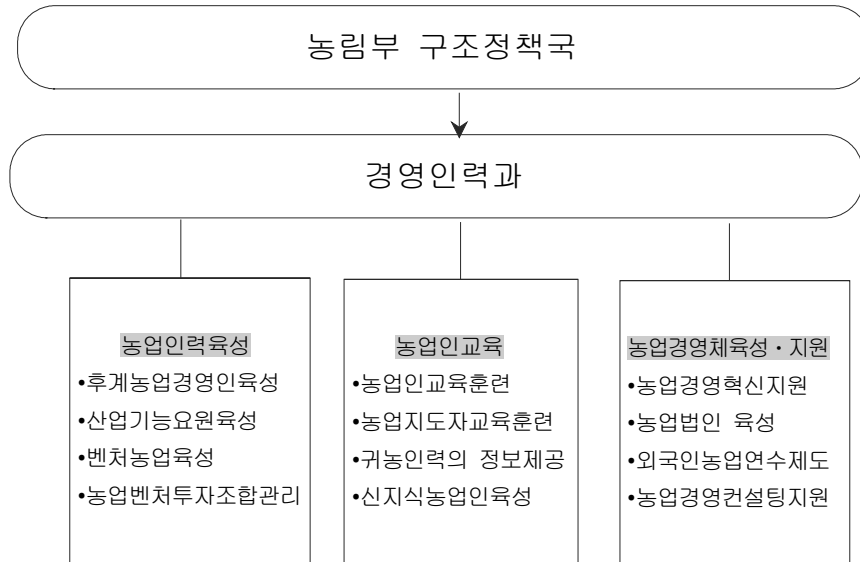
기본 시책방향	핵심 정책과제
여성농업인의 경영 능력 강화	1-1 여성농업인의 전문인력화 - 여성농업인의 전문교육훈련 - 여성농업인 전문교육시스템 구축 - 여성농업인 해외연수 1-2 여성농업인의 영농활동지원 - 후계여성농업인 육성 - 여성농작업의 기계화 추진
여성농업인의 지위 향상	2-1 여성농업인의 사회참여 활성화 -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촉 확대 - 여성농업인의 협동조합 참여확대 - 여성단체 위탁사업 활성화 - 여성농업인단체활동 지원 - 여성농업인의 전문직업의식 고양 2-2 여성농업인센터운영 지원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제고	3-1 모자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3-2 농가도우미제도의 정착
여성농업인 정책시스템 구축	4-1 여성농업인정책과제의 개발연구 4-2 여성농업인정책 추진체계 정비

2) 농림부 홈페이지(www.maf.go.kr)

## 나. 농업인력육성정책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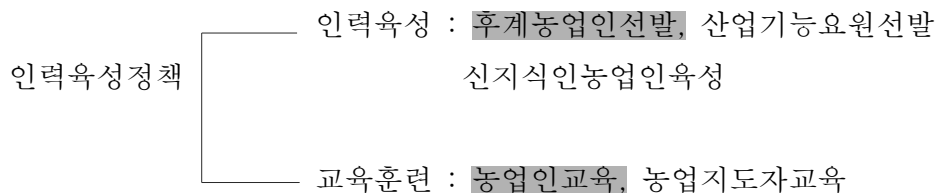
현재 농림부의 농업인력육성정책은 농업구조정책국 경영인력과에서 총괄하고 있다.

<그림 1> 농림부의 농업인력육성정책 업무



농림부의 농업인력육성정책은 크게 인력의 선발 및 관리의 성격을 띠는 인력육성정책과 농업인에 대한 교육훈련으로 구성되어 있다. 후계농업경영인의 선발, 산업기능요원선발, 벤처농업육성이 해당되고, 후자는 농업인교육훈련, 농업지도자교육훈련 등이 포함된다.

여기서 농업법인육성이나 농업경영컨설팅 경우에는 농업인이 아닌 경영체의 육성 및 지원이므로 본 연구의 농업인력육성정책 범위에서는 제외하도록 하겠다.



농업인력육성정책 중에서도 직접적이면서도 핵심적인 인력육성사업은 “후계농업인육성”과 “교육훈련” 사업이다. 후계농업인육성 사업은 직접적인 인력의 선발 및 관리를 내용으로 하는 정책으로 인력육성정책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그 동안 농림부의 정책에서 비교적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하고자 노력한 정책으로 평가받은 정책이다.

그러나 실제 수행되는 과정에서 양성에 대하여 공평하지 않은 관행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지, 사업 수행과 관련한 시행지침이나 수행방식에서 성별 불평등한 사항들은 없는지 등에 관한 내용들을 분석평가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육훈련”도 농업인의 인력육성에서 중요한 한 축을 이루는 부분이다. 농업인에 대한 교육훈련은 다양한 분야, 내용, 수준의 교육을 포함하고 있으며 현재 다양한 운영 체계 속에서 이루고 있다.

그런데, 현재 농업인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는 기관들은 행정적인 관리를 받는 상위기관이 서로 다르고, 농림부의 행정적 관리 및 지침을 기본적으로 받기는 하지만 교육계획 및 수행에 있어 전 과정을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기관들로 이루어져있다.

따라서 교육훈련의 계획과 수행에서 성별 형평성이 얼마나 일관되게 적용되고 있는지, 거시적인 법령 및 육성계획, 정책방향 등과 어떻게 차이가 나고 있는지 등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성별요인을 잘 고려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성별간의 격차가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부분을 대상으로 검토하는 것이 평가의 의미가 보다 크다고 생각된다.

현재 농업인의 교육훈련은 농림부, 농촌진흥청, 국가전문행정연수원, 농협, 농과계 대학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일부 교육은 농림부가 다른 기관에 위탁하고 관리하지만, 기술교육이나 농기계 교육 등의 교육은 주로 농촌진흥청이 관장하고 있다.

#### ①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은 농업인력의 육성에 필요한 실질적인 교육훈련 및 기술지도 사업을 주로 수행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의 기능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농업과학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 연구개발된 농업과학기술의 보급·지도
- 비료·농약 및 농기계의 품질관리
- 지역농업 발전과 생활개선에 관한 지도·교육 및 전문농업인 육성

농촌진흥청은 농업 기술연구, 농업기술 보급 및 지도, 농촌생활개선 등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위에서 보듯이 전문농업인 육성도 중요한 임무에 포함된다.

농촌진흥청의 농업인 교육은 도 농업기술원,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교육 및 농기계교육, 생활개선 교육 등을 실시하며, 1996년에 설립된 한국농업전문학교를 통하여 일반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농기계 및 기술교육 등을 실시하기도 한다.

<표 3> 농림부 및 농업 관련기관의 교육훈련 체계<sup>3)</sup>

구분	교육단위	세부교육단위	수행기관
기술교육	새기술보급시범	소득작목전문기술교육	농림부/한농전
		지역특화시범교육	식량작물시범교육
	소득작목시범교육		농업기술센터
	환경보전농업기술교육		농업기술센터
	농촌생활과학기술교육		농업기술센터
	지역특성화기술개발	지역특성화기술개발교육	농업기술원
		영농기술교육	전문농업인교육
	영농공개강좌		농진청/농업기술원
	소득작목전문기술교육		농진청/한농전
	지역특화작목교육		농업기술원
	품목별상설교육		농업기술센터
	새해영농설계교육		농업기술센터
	특성화농업경영자과정교육		농업기술센터
	농업인수출품목교육		농업기술센터
당면과제현장교육	농업기술센터		
농기계교육	농기계교육	농기계정비기능사양성	농진청/한농전
		농기계산업기사	농진청/한농전
		농기계정비수리실기교육	농진청/한농전
		기계화영농사교육	농업기술원
		신규취농인농기계교육	농업기술원
		지역특화작물기계화교육	농업기술원
		농기계종합관리실기	농진청
		농기계현장이용기술교육	농업기술센터
농기계교통안전운행교육	농업기술센터		
정보화교육	정보화교육	전문농업정보교육	농업기술원
		농업정보활용교육	농업기술센터/농협
		원격교육	농림수산정보센터
		농업용 S/W활용교육	농업계특성화대학
		컴퓨터활용교육	농협
		농업정보119 서비스	농업계특성화대학
		이동버스정보화교육	농림수산정보센터
정보화선도자교육훈련	시·도		
여성교육	농촌여성교육	농촌여성지도자교육	농업기술원
		여성농업인능력개발교육	농업기술원/센터
		농촌여성과제	농업기술센터
		농촌여성대표지도자교육	농촌진흥청
농촌관광교육	녹색농촌체험마을	농촌관광교육훈련	농림부
	농촌전통테마마을	경영관리능력교육	농진청

3) 국가전문행정연수원의 농업연수부에서도 기술교육, 정보화교육, 농산물유통 등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농림부 소관이 아닌 행자부 소관의 기관이므로 분석범위에서는 제외하였다.



## ② 한국농림수산물정보센터 농업정보교육원

재단법인 한국농림수산물정보센터는 농업인들의 정보활용능력을 높여 농업의 과학화·정보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1993년에 설립되어 지금까지 컴퓨터를 통한 농업정보 활용, 농업용 소프트웨어를 통한 농업경영 실현을 추구하고 있다. 1998년부터 최신시설을 갖춘 교육원을 개원하고 교육과정을 확대함으로써, 농업인 정보화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농업정보교육원의 교육목표는 21세기 고도정보화시대에 정보활용능력을 가진 농업 전문 인력육성, 정보활용을 통한 과학적 농업경영으로 농업경영능력 제고, 정보활용능력 향상을 통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등이다. 이를 위하여 교육과정을 품목별·단계별로 분리하여 전문정보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정보기본과정 교관 및 경영교육 교관 요원을 교육하고, 농업정보교육원의 질적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및 교재를 개발하며, 교육수요의 다양화에 따른 특별 정보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 ③ 국가전문행정연수원 농업연수부

국가전문행정연수원 농업연수부는 1999년 농업공무원교육원에서 개칭되었는데, 교육목표는 21세기 선진농업국 건설을 이룩하는 우수농정인력 육성, 농업경쟁력 제고를 구현하는 전문기술인력육성, 농업경영 혁신을 선도하는 전문경영인력육성 등이며, 기본방향은 새 시대에 부응하는 공직자 의식개혁을 위한 정신교육 강화, IMF체제 하에서 선진농업실현을 위한 경제교육 확대, 지역실정에 맞는 현장 중심의 품목별 기술교육 실시, 농업투자효율을 극대화하는 경영혁신교육 실시 등이다.

## ④ 농업생산자단체 및 협회

농협, 축협 등 농업생산자단체와 농업인단체에서도 농업인 대상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농협이나 축협 등에서는 회원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경영교육이나 정보화교육, 기술연수 등을 실시하고 있다.

## ⑤ 학교기관 : 농학계 대학, 특성화대학

농업인력육성기관의 하나인 농업계 대학은 농업전문학교 및 농업계 일반대학, 그리고 농업 특성화 대학으로 포괄할 수 있다.

농학계 대학은 2001년 현재 전체 44개 대학, 375개 학과(부)이고, 식물자원

생산, 식품공학, 축산학, 농생물학, 농공학, 원예학 등 다양한 학과가 설치되어 있다(정황근, 2002).

특성화대학의 지원·육성 사업은 1994년부터 시작되었다. 특성화대학은 지역 농업 발전을 위해 지역의 농과계 대학 중에서 특성화 분야의 연구, 개발, 교육 등에 필요한 시설, 장비 등을 지원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현장 기술 개발, 농업전문인력양성, 지역 농업인에 대학 기술지도 및 경영지도 기능강화, 산·학·연 협동체제 구축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현재, 농학계 특성화 대학은 첨단기초과학기술분야, 농생명과학분야, 산림 자원분야, 축산분야에서 모두 17개 대학이 지정되어 있다.<sup>4)</sup>

## 다. 최종 분석대상 정책의 현황

### 1) 후계농업인육성사업

#### 가) 사업 개요

후계농업인육성사업은 1981년부터 시작되었다. 농촌인구의 급속한 감소로 농업인력이 줄어들어 따라 젊고 유능한 전문 후계농업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비중있게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다. 농업에 종사할 의욕이 있는 청장년층을 적극 발굴·지도하여 농업에 대한 적성과 능력을 높이고, 신규 영농창업 및 경영개선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자립영농정착을 촉진시켜 유능한 미래 농업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확보 유지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대상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어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와 특별, 광역시장, 시장, 군수가 시군 농정심의회를 거쳐 후계농업인 육성대상자로 선발한 자로서 학력과 교육훈련, 영농경력 및 영농기반 등에서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후계농업인에 대한 지원은 영농설계에 따라 20~100 백만원까지 차등지원하고 있다. 지원조건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를 재원으로 국고융자 100%, 연리 4.0%, 5년거치 10년균분상환의 조건이다.

후계농업인육성사업 지원자들에 대해 영농정착의욕, 학력 및 영농교육훈련, 영농사업계획 등 3개 분야에 대한 평가항목과 점수를 배정해 시군의 농업기술

4) 농학계 특성화대학 통합정보시스템(<http://agsearch.snu.ac.kr>) 참조.

센터, 읍·면의 장이 평가한 결과 일정점수 이상인 지원자를 시군에 추천하면, 시군은 시군 농정심의회 심의를 거쳐 위 기준을 적용해 고득점자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되 지역농업여건과 품목간 균형을 고려해 대상자를 선발한다.

여성농업인에 대해서는 평가방법 및 배점에 있어 남성에 비해 우대적용하고 있다. 여성의 경우 총점(500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20점 가산점을 주고 있으며 시장 군수 등은 시군별 선정 예정인원의 20% 범위 내에서 평가점수가 300점이상인 여성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 다만 부부가 모두 후계농업인 지원자금을 신청한 경우 원칙적으로 부부중 한사람에게만 지원 가능하다. 다만 부부의 주사업품목이 각각 다를 경우 부부 모두에게 사업자금 지원은 가능하나 신청자수 등을 고려하여 시군 농정심의회에서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표 4> 후계농업인 평가기준

구 분	평가방법 및 배점	비 고
<p>◦영농정착의욕 (100점)</p>	<p>◦ 영농 정착의욕(100점) - 상 : 100점(신청자의 20%) - 중 : 85점( " 60%) - 하 : 70점( " 20%)</p>	
<p>◦학력 및 영농 교육훈련 (200점)</p>	<p>◦ 학 력(100점) - 농업계대학, 한국농업전문학교, 여주 농업경영전문학교 : 100점 - 일반대학(4년제), 최고농업경영자과 정 수료자, 농업계 전문대학 및 자영농과(자영농고, 농고중 자영 농과) 졸업자 : 90점 - 일반전문대학 및 농업계 고등학교 졸업자 : 80점 - 기타 학교졸업자 : 70점 * 사업시행년도 졸업 예정자는 졸업자 로 인정</p> <p>◦ 교육훈련실적(통산일수) : 100점 - 6개월이상 : 100점 - 3개월이상 : 85점 - 2개월이상 : 70점 - 1개월이상 : 60점 - 15일이상 : 40점 - 7일이상 : 20점 * 단위기간이 2일이상인 경우만 통산 일수에 반영 * 교육과목이 개설되지 않은 특별작목 (예 : 선인장 등) 재배농가에서의 실습실적(재배농가 주소지 관할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인정한 경 우에 한함)도 교육훈련실적으로 인정가능</p>	<p>◦ 교육훈련기관은 다음기관에서 이 수한 실적에 한함 - 농림부가 인정한 교육기관 - 농촌진흥청, 각 시도, 농축 협의 훈련기관 - 농진청장이 인정한 연수기관, 농 업기술센터 및 동 연수기관 - 대학 또는 전문대 등 농업계 학 교 부설 영농훈련기관 - 한국농업전문학교, 여주농업경영 전문학교(재학중의 장기 현장 실습기간 포함)</p>

구 분	평가방법 및 배점	비 고
◦영농사업계획 (200점)	◦ 영농사업계획(200점) - 재배지역 및 재배기술상의 적합성 : 80점 - 투자 및 자금조달계획 : 60점 - 생산 및 판매계획 : 40점 - 사업분야에 대한 타농가 재배 작목과의 작목집단화(조화) 가능성 : 20점 ※ 평가서에 평가한 점수가 영농사업계획 점수임	◦ 별도의 사업계획을 받아 평가 (별지제12호서식에 의한 평가) * 사업계획의 평가시 4개항목에 대한 타당성, 치밀성 및 발전가능성을 평가(각 항목별 점수는 만점시 점수임) * 사업계획서 작성시 해당분야 지도공무원, 농업계 대학 지도교수 등의 조언 또는 민간 컨설팅업체의 컨설팅을 받은후 서명을 받은 경우 인정
◦가점사항	◦영농 사업계획과 관련 분야의 국가 기술자격증 소지자에 대하여는 총점(500점)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20점 가산 ◦정보통신분야의 자격증 소지자에 대하여는 총점(500점)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20점 가산 ◦농산물 관련 유통 및 무역 등에 종사(1년이상)한 사실을 입증한 자는 총점(500점)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각각 20점 가산 ◦사업계획에 대해 전문업체의 컨설팅을 받은 경우 총점(500점)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20점 가산 ◦여성의 경우 총점(500점)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20점 가산	◦사업신청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해야함

\* 자료 : 농림부, <<2004년 농림사업시행지침>>

## 나) 추진 현황

후계인력육성의 연도별 지원실적 및 계획을 보면 다음과 같다.

<표 5> 연도별 후계인력육성 실적 및 지원계획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93~'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예산안)	'06~'08	
사 업 량	120,294	1,910	1,125	1,000	3,000	
사 업 비	계	2,111,630	96,000	80,000	80,000	290,000
	용 자	2,111,630	96,000	80,000	80,000	290,000
	보 조	-	-	-	-	-

2004년 정부는 획기적인 농정혁신을 위해 농업농촌종합대책을 마련하였다. 종합대책에서는 농업인 고령화에 대응하여 신규 정예농업인력을 적극 육성하고 농업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경영능력 향상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본 대책에 따르면 안정적 세대교체를 위해서는 매년 4,500여명의 신규 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를 위해 창업지원, 인턴십 등의 연수과정, 창업농 후계인제도 등을 통해 신규 창업농을 육성하기로 하고 한국농업전문학교의 기능을 창업농 양성기관으로 기능을 강화하는 정책을 펼칠 계획이다. 기존의 후계자제도에서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신규인력을 모집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변화시키고 있지만 이 가운데 여성신규 인력에 대한 목표치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2003년 통계에 따르면 여성후계자선정비율은 25.1%에 이른 반면 신규창업후계농업인 중 여성비율은 6.3%에 불과하다. 즉 신규여성 창업농은 취업중인 여성농업인 가운데 후계자를 선발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는 것을 말해준다. 따라서 적어도 20%의 범위내에서 여성창업농을 할당하고 여성 창업농 육성에 힘써야 한다고 보여진다.

### □ 연도별 후계여성농업인 선정현황

	계	'92~'96	'97	'98	'99	'00	'01	'02	'03
전체 후계농업인(천명)	77.8	44.3	8.5	7.8	4.8	4.7	3.3	2.5	1.9
후계여성농업인(명)	6,962	2,224	823	1,011	980	859	462	339	264
여성비율(%)	8.9	5.0	9.7	12.9	20.3	18.4	14.1	13.4	13.8

※ 위 인원은 '신규후계농업인'과 '취농창업후계농업인'을 합한 인원임

※ '03년도 여성선정현황

- 신규후계농업인 : 766명중 192명(25.1%)

- 취농창업후계농업인 : 1,144명중 72명(6.3%)

참고로 전라북도의 후계농업인 육성 상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표 6> 전라북도 연도별 후계농업인 지원내역  
(단위 : 명, 백만원)

연도별	지원내역		분야별 지원자수					
	인원	금액	수도작	복합영농	과수	특작	원예	축산
계	15,420	274,518	4,846	2,228	436	628	1,701	5,581
1995년까지	10,368	118,447	3,072	1,789	252	407	1,106	3,742
1996	957	21,100	148	47	38	34	145	545
1997	983	26,861	225	32	38	42	143	503
1998	966	31,560	387	84	30	28	125	312
1999	566	19,200	248	73	27	36	69	113
2000	608	18,780	313	78	21	28	47	121
2001	420	13,920	233	44	6	29	36	72
2002	273	10,610	115	36	11	17	14	80
2003	279	14,040	105	48	13	7	13	93

<표 7> 전라북도 시 군별 후계여성농업인 현황

구분	1982-2001년			2002년		
	계(명)	여성(명)	비율(%)	계(명)	여성(명)	비율(%)
전체	12,249	1,244	10	273	35	13
전주	177	7	4	10	0	0
군산	732	66	9	6	1	17
익산	1,420	90	6	29	4	14
정읍	1,282	110	9	28	4	14
남원	1,089	181	17	24	3	13
김제	1,519	89	6	29	0	0
완주	932	129	14	25	5	20
진안	515	48	9	20	4	20
무주	434	65	15	13	1	8
장수	404	42	10	14	1	7
임실	552	94	17	14	4	29
순창	561	47	8	16	4	25
고창	1,320	184	14	19	3	16
부안	1,312	92	7	26	1	4

\* 자료 : 전라북도, 농업정책과

전라북도에서 2003년까지 선정된 후계농업인은 총 15,420명으로 남자가 14,101명이고 여자는 1,379명으로 남성 중심으로 육성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라북도는 농업노동력의 여성화 추세에 맞추어 여성후계농업인의 확대 선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sup>5)</sup>

또한 그동안 사망 175명, 이주 995명, 전업 735명, 무단이탈 508명, 기타 449명 등 전체의 18.5%에 달하는 2,862명의 부실후계농업인이 발생하여 실제로는 12,558명의 후계자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전라북도는, 부실후계 농업인의 발생원인이 대상자 선정시 영농의 지, 영농경력, 영농기반 등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이들에 대한 사후관리가 미흡하거나 사회환경의 급격한 변화의 결과에서 기인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대상자 연령을 낮추어 창업농 후계농업인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전업농 사업과의 연계성을 살려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현재와 같이 소액 1회성 자금으로는 영농정착을 도모하기 어려운 실정인바 지원금액을 상향조정하여 추진할 필요도 있다고 보고 있다.

<표 8> 전라북도 후계(창업농)농업인 육성 투자계획

연도별	사업량	여성목표(%)	투자계획(백만원)							비고
			계	여성	국비	도비	시군비	융자	자담	
계	1,650명	200명(12.1)	155,000	18,800				155,000		
2004	130	20(15.4)	9,600	1,880				9,600		
2005	160	20(12.5)	12,800	1,880				12,800		
2006	170	20(11.8)	13,600	1,880				13,600		
2007	170	20(11.8)	17,000	1,880				17,000		
2008	170	20(11.8)	17,000	1,880				17,000		
2009	170	20(11.8)	17,000	1,880				17,000		
2010	170	20(11.8)	17,000	1,880				17,000		
2011	170	20(11.8)	17,000	1,880				17,000		
2012	170	20(11.8)	17,000	1,880				17,000		
2013	170	20(11.8)	17,000	1,880				17,000		

5) 농림어업 종합발전계획 (전라북도) 2004년 5월



## 2) 영농기술교육 : 품목별 상설교육

### 가) 품목별 상설교육의 개요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은 1978년부터 시작되었다. 농촌진흥청 산하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예전에는 농촌지도소)에서 해당 시군 지역의 주된 영농 종목을 3개 이상 선정하여, 품목 조직 농업인을 중심으로 연중 상시 교육을 실시하여 전문기술 및 경영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을 실시해왔다.

1995년 이전에는 ‘개방화 대응 연중 교육’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으나, 1995년 이후부터는 ‘품목별 상설 농업인 교육’의 명칭을 사용하여왔다.

현재, 품목별 상설교육은 ‘품목별 연구회’ 회원들을 주요 교육대상으로 설정하여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품목별 연구회는 각 품목에 따라 해당 품목의 농사를 짓는 농업인들이 영농과정에서의 기술적 문제나 애로점을 해결하고, 새로운 기술 및 경영 등에 관한 정보를 교류하기 위하여 조직된 단체이다.

특히 품목별 연구회는 연구회별로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전담 농촌지도사나 연구사가 배치되어 이들 간의 상호협력적 체제가 확립되어 있다. 이러한 품목별 연구회는 전문농업인 육성 정책이라는 정책 기조와 맞물려 연구회 조직을 육성하고 지원하려는 추세가 강화되고 있다.

품목별 연구회는 조직회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포함하는 정기·부정기 모임을 가지면서 활동을 한다.<sup>6)</sup> 품목별 상설교육은 품목별 연구회의 자체 모임(교육을 포함) 활동 외에, 품목별 연구회 회원을 주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전문교육이다. 물론 품목별 상설교육은 품목별 연구회 회원이 아닌 일반 농업인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교육이다. 농진청이나 농업기술원의 농촌지도사업지침서에는 품목별 상설교육의 대상을 ‘품목별 희망농업인’으로 명시하고 있다.

품목별 상설교육도 교육훈련 업무를 맡고 있는 농촌지도사가 운영을 맡고 있으나 담당자는 품목별 상설교육 외에 다른 교육훈련 업무도 같이 수행을 하고 있다.

품목별 상설교육은 품목별(작목별)로 1년에 3~4회 정도 운영되며, 품목은

6) 품목별 연구회의 모임 횟수는 연구회마다, 그리고 연구회 조직을 관리하는 시군 농업기술센터마다 조금씩 다르다. 대체로 연시총회, 현장교육, 이론 및 기술교육 등을 내용으로 1년 3~4회 정도 정기모임을 가지고 있으며 보다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곳은 한 달에 1회씩 정기 월례회를 갖는 곳도 있다.

1년에 3~4개 작목으로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한다. 교육담당자는 다음 해에 개설할 품목별 상설교육의 작목과 교육인원을 계획한다. 계획 과정에서 품목별 농업인 조직의 요구가 있으면, 신설 혹은 지속하기도 하고 예년 성과(호응도)가 좋지 않으면 폐지하기도 한다.

담당자가 교육계획, 교육내용 및 일정 결정, 교육진행 등 전반적인 교육운영을 전담하지만, 교육내용이나 일정, 장소 등의 결정에서 해당 교육대상인 품목별 연구회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요구를 수용하여 결정·운영한다. 의견 수렴은 주로 회장, 부회장 등의 임원진과 연락 및 접촉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품목별 상설교육의 현장에서 이 날 참석한 사람들에게 다음 회 교육에 관한 의견을 묻기도 한다.

품목별 상설교육의 주된 교육대상인 품목별 연구회는 작목별 단일조직으로 구성되고 지역별로 주산 작목별 농업인들이 주축이 되어 조직된다. 품목별 연구회는 주로 생산기술 연구, 교육 및 유통, 판매 등 경영활동을 강화하고자 조직되어 활동하며, 품목별 상설교육도 작목별 기술교육, 유통 및 판매 정보교류 및 기술교육 등 연구회의 목적과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으로 이루어진다.

## 나) 추진현황

품목별 상설교육의 연도별 교육실적을 보면 다음과 같다.

<표 9> 품목별 상설교육 실적

연도	95	96	97	98	99	00	01	02	03
인원	60,861	125,368	77,239	83,087	74,047	94,425	72,346	70,392	64,856

2003년도 교육실적을 보면, 전국적으로 모두 64,856명이 교육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시도에 따라 농업인의 비율이나 농업생산의 비중이 있어 차이가 크기 때문에 교육인원도 편차가 큰 편이다.

품목별 상설교육은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1년에 3~4 품목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는데, 교육 담당자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개설할 품목을 계획하고 운영하게 된다. 2004년도 품목별 상설교육의 계획인원은 총 34,200명이고, 전

체 예산은 17,100천원으로 2003년도에 비하여 인원 및 예산 규모가 크게 감소하였다.

<표 10> 2004년도 품목별 상설교육 계획

시 도 명	계 획 인 원
경 기 도	3,540명
강 원 도	3,800명
충 청 북 도	2,540명
충 청 남 도	3,100명
전 라 북 도	2,620명
전 라 남 도	4,340명
경 상 북 도	5,460명
경 상 남 도	4,300명
제 주 도	2,500명
서 울 특 별 시	160명
부 산 광 역 시	300명
대 구 광 역 시	360명
인 천 광 역 시	600명
광 주 광 역 시	180명
대 전 광 역 시	220명
울 산 광 역 시	180명
총 계	34,200명
총 예산액	1,171천원

참고로 충남의 2003년도 품목별 교육실적과 2004년도 계획인원을 사례로 살펴보면 <표 11>과 같다.

<표 11> 충남의 2003년도 품목별 상설교육 추진실적 및 예산

시군	2003년도(실적)			2004년도(계획)	
	계획인원	실적	예산	계획인원	예산
전체	5,290명	5,160명	51,800천원	3,510명	33,710천원
천안시	400	359	3,500천원	200	2,000천원
공주시	480	206	3,500천원	200	4,500천원
논산시	340	340	3,400천원	450	2,000천원
아산시	340	340	3,400천원	350	2,000천원
부여군	340	395	3,400천원	200	2,000천원
금산군	350	332	3,500천원	200	2,000천원
연기군	350	369	3,500천원	200	2,000천원
예산군	300	369	3,500천원	200	2,000천원
서산시	350	130	3,500천원	200	2,000천원
서천군	350	369	3,500천원	210	2,210천원
보령시	350	369	3,500천원	200	2,000천원
청양군	400	427	3,400천원	200	2,000천원
홍성군	300	369	3,500천원	200	2,000천원
태안군	350	369	3,500천원	200	2,000천원
당진군	400	369	3,500천원	200	2,000천원
농업기술원	350	332	3,500천원	100	1,000천원

충청남도의 경우 각 시군별로 교육실적은 130명~427명으로 편차가 있으나 대체로 300여명이 넘는 수준에서 교육을 하였으며, 예산 집행은 340~350만원으로 거의 비슷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4년도 계획 인원과 예산액을 보면 규모가 2003년보다 축소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충남의 경우에도 시군별로 교육인원이 100여명 축소되어 200여명의 인원에 예산액은 거의 모든 시군이 200만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체적인 교육실적과 계획 인원을 파악할 수는 있으나 교육인원의 성별 구성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는 통계가 집계되지 않아 정확히 알 수가 없다. 그러나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몇몇 담당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품목별 상설교육의 교육대상인 품목별 연구회가 거의 남성으로 조직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으로 품목별 상설교육의 참여자도 남성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회 회원들은 거의 남성들이며, 전통적으로 여성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

는 작물인 시설원예나 발작물과 관련된 연구회도 남성들만 가입되어 있거나 소수 몇 명을 제외한 나머지가 모두 남성 회원들이며, 따라서 품목별 상설교육에도 참여자의 거의 대부분은 남성 회원들이며, 소수의 여성회원들이 참석하고 있다. 담당자들의 말에 의하면, 남성회원들의 경우 배우자인 여성이 대신 교육에 참여하거나 부부가 함께 참여하기도 한다고 한다. 최근 품목별 상설교육에서 부부 참석율은 예전보다 증가하는 추세이며, 담당자에 따르면 여성의 참여는 10%~30% 정도가 된다고 한다.

현재, 품목별 상설교육의 참여는 크게 3가지 유형으로 정리해볼 수 있다. 첫째, 남성회원들로만 교육이 이루어지는 경우이고, 둘째, 남성회원과 소수의 여성회원, 셋째, 남성회원과 일부 남성회원의 부인이 함께 참여하는 경우이다. 유형에 상관없이 품목별 상설교육의 참가자는 남성들이 대다수를 이루며, 여기에 여성 회원 일부가 참여하거나 남성 회원의 배우자인 여성이 함께 참여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 3) 농업인 정보화 교육<sup>7)</sup>

#### 가) 사업 개요

##### ■ 사업목적

첫째, 농업인 정보화교육 사업은 농업인의 정보이용능력 향상을 통해 농업·농촌의 정보화를 촉진하는데 있다.

둘째, 도·농간 또는 산업간 상대적으로 정보이용수단이 열악한 농업인에게 정보활용 기회를 제공하여 정보격차 해소 및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있다. 통계청 자료(2002. 3.)에 의하면 컴퓨터 사용율은 전국 63%, 농림어업 14.2%, 인터넷 이용율은 전국 58%, 농림어업 11.9%로 나타나, 지식기반사회의 진전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도·농간 정보격차는 여전히 상존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농업인 정보화 교육을 통한 농업정보·생활정보의 수집·활용 능력 향상으로 농업인의 정보접근 기회를 확대시켜 선진·선도 농업인을 육성하고자 한다.

셋째, 지식정보시대에 지식과 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

7) 본 내용은 농림부 정보화담당관 문서 내용을 참고하였음.

확보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정보화능력을 함양하도록 한다. 즉 농업인의 정보화 활용능력 향상으로 농업생산·경영에 정보화 수단을 이용하여 농업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한다.

### ▣ 필요성 및 추진배경

지식기반사회의 진전이 가속화되고 정보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농업인 등 정보화 취약계층에 대한 정보화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국민정보화교육의 일환으로 농업인 16만명에 대한 1단계(2000~2002.6) 정보화교육을 추진하였으며, 2단계(2002.7~2004년) 국민정보화교육 계획에 따라 농업정보활용 등 중급 이상 실용 중심의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1998년부터 농업인에 대한 정보화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나 영농의 정보화 활용 실적은 극히 미흡한 실정으로, 정보활용능력을 갖춘 농업경영체 육성 차원에서 집중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따라서 2004년부터는 농업경영정보 전문교육을 내실화하여 실시하고, 지역별 특화된 경영교육 등 공모를 통하여 신규과정을 개발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농촌지역은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보화기반이 열악하고 인터넷 이용시설도 주로 읍면지역에 설치되어 있어 실제 농업인이 거주하는 마을 단위에는 부족한 상태이다(<표 12> 참조). 이에 농림부 및 AFFIS 주관 하에 마을단위로 농업·농촌 정보의 중심체(Hub) 역할을 할 수 있도록 2003년 5개 마을에 ‘디지털사랑방’(PC 5대, 프린터 1대, 마을홈페이지 구축 등)을 육성하고 있다.

<표 12> 도·농간 정보 격차 현황

지 표	농 촌	도 시
PC보급율('03상반기)	33.6% (농가)	77.9% (전 가구)
인터넷이용율('03하반기)	9.3% (농업인)	65.5% (전체)
PC활용('02.3)	영농활용(17%)	업무활용 (63%)
ADSL 보급('03)	100호 이상 마을	보급 완료

따라서 도·농간, 산업간 정보격차해소와 농업인 정보이용능력 향상을 위해 1998년부터 정보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1998년부터 2003년까지 시군 농업기술센터와 읍면 지역농협 등 1,100여개 농업 관련기관을 통해 31만명에

이르는 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e-Learning 교육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보조학습 역할에 머물던 온라인교육이 '사이버형'을 거쳐 'Blended Learning'이라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결합한 새로운 모델로 진전함에 따라, 기존의 오프라인 교육에 복습과정 등 온라인 학습을 병행한 새로운 모델의 정립이 필요하다.

## ▣ 시책 및 추진방향

첫째, 2005년까지 농업인 정보화인력 40만명을 육성, 정보활용능력을 갖춘 농업경영체를 지속적으로 육성한다(농업·농촌 종합대책).

둘째, 농업인의 수준에 따라 교육내용을 차별화하여 교육효과를 제고한다. 이에 농업인 수준과 농업 특성에 맞는 정보화 교육과정을 개발한다.

셋째, 농업인의 특성을 감안하여 현장 위주의 농가(마을)방문교육을 확대 추진한다.

## ▣ 추진근거

- 농업·농촌기본법 제28조(농업 및 농촌지역의 정보화)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및 농촌지역에 대한 정보화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업 및 농촌지역 관련정보를 제공하는 자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3. 12. 11)
-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 제10조(정보이용시설의 설치·운영 등)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하는 정보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정보화 교육의 실시
    2.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관련설비의 제공
    3. 정보이용의 촉진을 위한 홍보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 ② 정부는 정보접근 및 정보이용 편의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정보이용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기타공공단체의 시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외의 것으로서 그 설치·운영의 주체로부터 지정신청이 있는 시설
-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시설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 ④ 정보이용시설의 설치기준, 지정·지정신청 및 지정취소 절차, 지정시에 대한 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 제11조(정보화교육의 실시 등)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화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교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
  3. 만 60세 이상의 노령자
  4. 여성 중 전업주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그 밖에 정부의 부담으로 정보화교육이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 ③ 정부는 정보화교육 및 정보이용시설관리를 위하여 병역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등 필요한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교육의 대상 및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나) 추진현황

### ▣ 추진경과

세부 계획수립으로는 제4차 정보화전략회의(2000. 4. 6) 후속조치로 1,000만명 정보화교육을 계획하였으며, 제7차 정보화전략회의(2002. 2.27)에서 1,000만명 정보화교육 후속계획을 수립하였다.

교육과정의 변화를 보면 2000년에 기초과정으로 컴퓨터활용, 전문과정으로



법인경영정보화, 인터넷농업반, 사이버마켓반, 정보화교관반을 개설하였고, 2001년에 중급과정으로 농업정보활용을 신설하였고 전문과정으로 정보분석활용, 양돈정보활용 등 11개 과정을 개편하였다. 2002년에 전문과정으로 정보분석활용, 정보화선도자과정 등 12개 과정을 개편하였다. 그리고 2003년에는 정보분석활용 등 8개 과정으로 전문과정을 개편하였다.

시스템 구축 변화를 보면 2000년에 교육관리시스템(<http://www.eduaffis.net>)을 구축·운영하였다. 교육관리시스템은 교육생, 강사, 시행기관 현황·관리 시스템과 정보화 교육 관리 행정(교육결과보고, 정산 등) 사항 처리 시스템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2001년 12월 농업인 사이버 학당(<http://www.farmedu.net>) 구축·운영하였는데, 이는 반복학습을 위한 농업인 대상의 원격교육시스템으로 5개 분야 26종의 교육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그리고 2003년 9월부터 농업인정보화교육사이트(<http://www.eduaffis.net>)를 통합 구축·운영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교육관리시스템과 사이버학당을 통합한 것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교육의 장·단점을 상호 보완할 수 있는 ‘Blended Learning’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온라인 5개, 오프라인 7개 분야의 교육과정으로 연계되어 있다.

<표 13> 정보화교육 사업내용

교육과정	실시년도	실시방법
컴퓨터·인터넷 활용과정 (기초교육)	98 ~ 04	- 98 ~ 00년은 지자체(시·군·청)에서 실시 - 2000 ~ 2002년까지 읍면 단위 농협 - 2003년부터 읍면 단위 농협 및 시·군 단위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인을 대상으로 PC기초교육 실시 ·컴퓨터 초보자사용자 대상, 수준에 맞는 컴퓨터활용교육(18시간) 실시 ·18시간 중 3시간 온라인 학습(www.eduaffis.net) 배정 ·교육이수조건 : 온라인 교육사이트 에듀아피스 회원가입·설문
농업정보 활용과정 (중급교육)	01 ~ 04	- 2001 ~ 2002년까지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 - 2003년부터 농업기술센터 및 읍면 단위 농협에서 기초교육 이수자 및 컴퓨터 활용능력이 있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PC중급 및 농업정보 활용 교육(18시간) 실시 ·18시간 중 3시간 온라인 학습(www.eduaffis.net) 배정 ·교육이수조건 : 정보화수준(ICT)점검 2회(교육전·후) · 설문
온라인 원격교육	01 ~ 04	- 2001 ~ 2003년 8월까지 사이버학당(www.farmedu.net) 을 통해 교육 콘텐츠 수강 및 이수 - 2003년 9월부터 오프라인, 온라인 모두 농업인정보화교육 사이트(www.eduaffis.net)에서 연계교육 실시 ·농업인 정보화교육 이수자의 반복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교육과정에 맞게 다양한 과정의 콘텐츠 운영

주1. 04년부터 컴퓨터·인터넷, 농업정보, 농업경영정보전문은 온라인연계교육(3시간)

**▣ 농업인 정보화교육의 교육과정 내용**

○ 기초교육

컴퓨터를 이해하고 컴퓨터 활용에 필요한 기술능력과 인터넷을 통한 실생활 정보와 정보교류가 가능토록 하는 기본교육으로 컴퓨터 활용교육과 인터넷 활용교육으로 나누어져 있다.

컴퓨터 활용과정은 컴퓨터에 처음 입문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컴퓨터 기초 학습, 윈도우 탐색기, 문서작성 실습 등을 통하여 컴퓨터 이해와 활용기술 습득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는 교육으로 지방자치단체 내 농업기술센터 및 지역 농협을 활용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인터넷 활용과정은 컴퓨터 이용이 가능하고 농업정보 수집 및 활용을 희망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인터넷 활용, 농업정보 검색, 커뮤니티 활용 등을 통

한 실생활 정보교류가 가능토록 능력을 배양하는 인터넷 교육으로 지방자치단체 내 농업기술센터 및 지역농협을 활용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중급교육

인터넷 및 정보지식 기반을이용한 농업정보 습득과 활용능력을 배양토록 실시하는 교육으로 유통정보 활용, 품목정보활용, 경영분석 교육으로 나누어져 있다.

품목정보 이용과정은 인터넷이 가능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품목별 농업기술 정보, 정책정보, 농업용 S/W 이해 중심의 정보이용 교육이다.

유통정보 활용과정은 인터넷 활용이 가능한 농업인 중에서 농산물 유통정보 수집, 활용, 분석에 관심이 많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유통정보 현황, 가격정보, 출하지원정보 활용 및 가격분석 등을 위주로 실시하는 정보활용 교육이다.

경영분석 과정은 농업용 S/W를 활용하여 영농일지 기장, 영농회계 기장을 활용하여 경영분석을 실시하거나 실시하고자 하는 농업인 및 영농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이다.

<표 14> 농업인 정보화 교육실적

교육과정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계
컴퓨터·인터넷 활용과정 (기초교육)	7,759명	7,331명	8,157명	38,437명 1,595회	35,912명 1,781회	22,683명 1,140회	97,596명
농업정보활용과정 (중급교육)	-	-	-	14,351 640회	14,161명 727회	10,286명 525회	28,512명
자체교육	1,171명	2,041명	3,298명	4,678	9,750명 501회	10,838 561회	20,938명
계	8,930명	9,372명	11,455명	57,466	59,823	43,807	147,046명

※ 출처 : 농림부, 자체 성과분석 보고서(농업인 정보화교육), 2004. 3.

※ **자체교육**이란 농업인의 요구에 따라 시행기관에서 예산지원 없이(예산지원 계획목표를 초과하여 실시한 교육 등) 자체예산으로 실시한 정보화교육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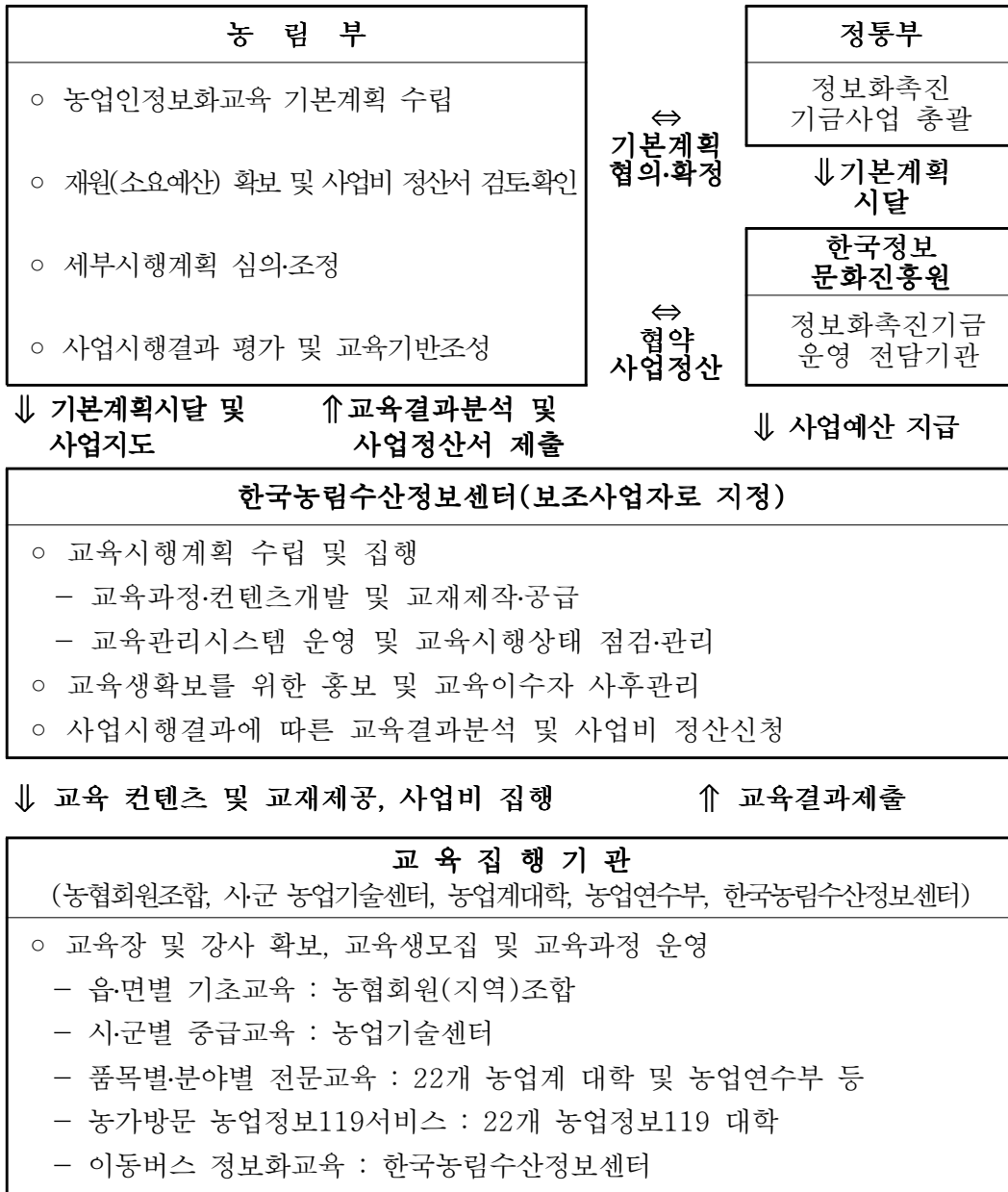
<표 15>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98-'00년	2001년	2002년	2003	2004 (예산안)	2005년 이후
사업량		85천명	76	80	62	59	-
사 업 비	계	5,458	3,174	4,663	3,246	3,455	-
	보 조	5,458	2,849	3,700	2,700	2,909	-
	용 자	-	-	-	-	-	-
	지방비	-	-	-	-	-	-
	자부담 (시행기관)	-	325	962	546	546	-

\* '01~'04년도 보조사업비는 정보화촉진기금임.

<그림 2 > 농업인 정보화교육 사업 추진체계



▣ 사업수행부서 직제 및 인원

농림부 정보화담당관실은 정보화담당관 1명, 전산사무관 1명, 전산주사 1명으로 총 3명이며.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정보교육팀은 교육팀장 1명, 운영·관리 2명, 농업용 S/W관리 1명, 관리시스템(www.eduaffis.net)관리 1명으로 총 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 4) 농촌관광마을인력육성

##### 가) 사업 개요

농촌관광은 농촌주민들이 가족단위로 농촌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농촌의 자연경관, 유·무형의 문화유산, 향토 음식, 특산물의 판매, 농촌 행사들을 체험하게 함으로써 휴식과 교육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농외소득을 얻는 사업이다.

농림부에서는 2001년 초반 대통령 보고자료를 통해 녹색관광을 농림부의 주요 정책사업으로 도입할 것을 발표하였다. 2002년부터는 ‘그린투어리즘 육성사업(녹색농촌체험시범마을)’을 정책사업화하고 주민 스스로 마을 가꾸기와 녹색관광 추진에 관한 사업내용을 계획, 추진하도록 하는 사업시행지침을 발표하였다.

농림부외에도 2002년부터 다양한 정부 부처에서 다양한 명칭과 방법으로 농촌관광을 추진하고 있다. 농진청에서는 전통테마마을조성사업을 하고 있고, 행정자치부(아름마을사업), 문화관광부(문화역사마을), 해양수산부(어촌체험마을), 환경부(자연생태우수마을), 산림청(산촌종합개발사업)도 마을단위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각 부처에서 추진되는 사업의 공통점은 공모방식에 의하여 일정한 심사과정을 거쳐 시범마을을 선정하고 마을을 단위로 하여 사업비를 보조하는 형태로 지원되고 있다는 것이다. 액수는 작게는 1억원에서 많게는 12억원까지 규모이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을 계획 입안단계에서부터 사업추진 전 과정에 참여시키고, 행정은 주민들을 측면에서 지원해 주는 보조자로서의 역할을 상정하고 있다. 그리고 전문가들의 컨설팅을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 예산은 주로 마을공동의 기반시설 정비 등 하드웨어를 구축하는 데 주로 쓰여지고 있다. 따라서 농촌관광마을사업 예산의 대부분은 마을의 물리적인 환경을 조성하는데 쓰여지고 이 중 작은 비중이 마을주민의 교육훈련사업에 쓰여지고 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농촌관광마을사업의 인력육성은 좁은 범위의 교육훈련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전부는 아니다. 오히려 농촌관광마을사업의 인력육성은 마을에서 모임을 만들어 농촌관광사업을 계획하고 공모신청을 하고 자금을 지원받아 시설을 구축하는 일련의 과정에 실제로 참여함으로써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농촌관광마을 관련 인력육성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업추진을 위한 위원회의 구성과 협의 및 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리더 그룹에 들어가서 사업내용을 충분히 알고 이해하고 마을의 분위기를 파악하는 가운데 저절로 인력이 양성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마을리더나 추진위원회의 현황자료와 성별통계는 파악하기 어렵고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제외하고 교육 훈련사업으로 제한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표 16〉 각 부처 마을단위 농촌관광마을사업 추진현황 (2004년 현재)

부처	사업명	목적	사업내용	지원규모
농림부	녹색농촌체험 시범마을	농촌관광활성화를 통한 농외소득 증대	-생활편의 -농촌체험기반시설 -마을경관조성 -컨설팅, 설계비 등	2억(1억)76개마을
행정자치부	아름마을 가꾸기	자연환경, 전통문화 등을 테마로 한 마을개발로 주거환경개선과 농외 소득원 창출	-마을테마에 맞는 다양한 시설	-시도별 1~2개 마을10억이상(10억), 3년단위사업 23개마을
해양수산부	어촌체험마을	어업외 소득증대 및 어촌경제 활성화	-체험프로그램 개발 -체험장, 종합안내센터, 안내소, 진입로 등	-10억(5억)25개마을 -연간 전국8개마을
환경부	자연생태우수 마을	지역주민의 자연환경 보전의식 함양, 자연자산의 자율 보전·관리 장려	-자연환경 보전 우수마을과 복원 우수사례 선정 및 인증서 수여	- 14개소 -별도 지원예산 없음
농촌진흥청	농촌전통테마 마을	농촌전통문화를 테마로 한 마을단위 관광기반 조성	-농업농촌교육시설 -숙박, 편의시설, 종합안내센터 등 -전문가 컨설팅, 마케팅, 홍보지원 -리더 및 주민 교육	1억(5천만)45개마을 -2년단위 사업
산림청	산촌종합개발 사업	산촌지역의 산림 및 휴양자원의 친환경적 개발로 도시인에게 휴식공간 제공 및 산촌진흥	-생활기반시설(도로, 공동관정 등) -생산기반조성(저온저장고, 농산물 가공공장, 교육장 조성 등) -소득원개발(과실수, 약초 등 식재) -주택개량(노후주택 개보수)	-연간 총10개마을 -1개 마을당 국고보존 12억원(국고80%, 지자체보조 20%)

또 농촌관광마을 사업과 유사한 사업들이 정부부처별로 다양한 사업명으로 수행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 중 농림부의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을 본연구의 대상사업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농림부의 농림사업시행지침서에 농업인의 농외소득 증대라는 목적이 명시되어 있고 정책의 결정과 집행, 집행 후 과정에 대한 관련문서가 명시되어 있으며 인력육성사업대상의 범



위가 명확하므로 정책의 단계에 맞추어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일관성 있게 분석하고자 하는 본연구의 취지와 부합하므로 분석대상사업으로 선정하고자 한다.

<표 17> 2002년 이후 녹색농촌체험 시범마을 지원실적 및 예산(농림부)  
(단위 :백만원)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이후
사업량		18개마을	26개마을	32개마을	624개마을
사업비	계	4,576	6,022	7,226	154,724
	보 조	2,576	3,422	4,026	92,324
	용 자	-	-	-	-
	지방비	2,000	2,600	3,200	62,400
	자부담	-	-	-	-

농림부 농촌관광마을 총 사업비 예산 중 농촌관광교육훈련비는 총 1억원으로 전체의 1.4%이다. 총예산의 88.6%가 체험마을조성으로 쓰여지고 있다. 체험마을 1개당 지방비를 포함하여 평균 2억2천5백만원 정도 지원이 되는데 주로 마을 공동시설을 만드는데 사용이 된다.

<표 18> 2004년도 사업비(예산안)내용

(단위 : 백만원)

내용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 산 액			지 방 비	자 부 담
			계	보 조	용 자		
계		7,226	4,026	4,026	-	3,200	-
◦ 체험마을조성	32개 마을	6,400	3,200	3,200	-	3,200	-
◦ 농촌관광홍보		120	120	120	-	-	-
◦ 농촌마을가꾸기 경진대회		450	450	450	-	-	-
◦ 포털사이트 보완·유지		156	156	156	-	-	-
◦ 농촌관광교육훈련		100	100	100	-	-	-

다음의 내용은 농림부의 농림사업시행지침서와 2004년 4월에 개소한 농업 기반공사의 도·농교류센터의 농촌관광 및 지역개발 교육 평가 보고서(미간)의 내용에 기초한 것이다.

## 나) 추진현황

### ① 사업개요

- 농촌관광 활성화를 통한 농외소득증대를 위해 녹색농촌체험마을을 조성한다.
- 농업인과 농촌마을의 사업추진을 돕기 위한 다양한 지원체계 구축한다.
- 농외소득 증대와 농촌사회의 활성화를 위해 농촌관광마을을 조성하고 농업인과 농촌마을의 사업추진을 돕기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 농촌의 마을을 기본단위로 인근지역의 자연문화자원, 농업 및 농촌체험 활동자원을 다양하게 연계하여 사업 추진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한다.
- 주민합의에 따른 마을협정과 사업계획, 행정지원계획, 전문가의 자문을 효과적으로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한다.
- 농촌체험활동 서비스제공과 농특산물의 가공판매사업, 농가숙박, 음식물 판매 등 마을여건에 맞게 농업과 2·3차 산업을 연계한다.
- 마을주민의 경영관리능력, 서비스, 마을안내능력배양을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 ② 교육목표

- 농촌관광 및 지역개발사업을 자발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의 마인드를 강화한다.
- 지역에 기반을 두고 현장에서 활동하며 농촌관광 및 지역개발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지도자를 육성한다.
- 농촌관광 및 지역개발사업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며, 마을조성계획, 마케팅, 유통, 홍보 등 전문적인 내용을 자문해 줄 수 있는 전문가를 육성한다.

### ③ 기본방향

- 전문성이 요구되는 교육과정은 외부전문기관에 위탁시행하여 교육의 질

적 향상과 교육기관의 양적 성장에 기여한다.

- 대상별, 단계별 차별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다양한 교육수요에 부응한다.
- 마을자원찾기, 현장체험, 토론, 실습 등 피교육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교육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 강의자료 중심의 이론교육을 탈피하고 사진, 사례 등 시청각 중심으로 진행한다.
- 무상교육을 탈피하되, 최소한의 교육비 책정으로 참여율 및 참여의식을 제고한다.

#### ④ 추진현황

- 농촌주민 및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지역의 주체역량 강화를 위한 단계별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농촌관광, 농촌마을 종합개발 등 사업별 기획·추진능력 배양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전문교육과 워크숍을 실시한다. 마을지도자, 시장·군수 및 지방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권역별 특별교육, 합동워크숍 등을 통해 지역개발관련 정보를 교환하고, 행정기획력을 제고한다.
- 종합적인 농촌생활문화공간으로 조성하여 농촌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함

#### ⑤ 법적 근거

- 농업·농촌기본법 제38조 제2항, 제3항
  - 제2항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민의 건전한 정서 함양과 도·농간의 교류확대 및 농촌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지역의 특색을 살린 녹색관광 및 휴양자원의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3항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역 문화시설 등의 설치·운영과 지역의 문화행사개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⑥ 2004년 농촌관광 및 지역개발관련 교육

<표 19> 농촌관광관련 교육현황

과 정	대 상	교육인원			교육 기간	교육비
		계획	실적	실적율 (%)		
◦일반과정		560	960	171		
- 초급(입문)	공무원, 지역주민 등	400	804	201	9.13 ~ 9.17 (4권역 각1일)	무료
- 중급(지도자)	공무원, 지역주민 등	120	125	104	9.30 ~ 9.3 10.4 ~ 10.8 (각5일합숙)	9만원
- 고급(전문가)	지도자 등 지역주민	40	31	78	11.15 ~ 11.27 (12일 합숙)	24만원
◦특별과정		440	125	28		
- 지역가꾸기	지도자 등 지역주민	40	29	73	10.25 ~ 10.27 (3일 합숙)	4만원
- 프로그램실제 및 서비스	지도자 등 지역주민	200	96	48	12.17(1일)	무료
- 농촌투자유치	도시민 등 투자자	200		-	-	
◦ 계		1,000	1,085	109		

※ 출처 : 농업기반공사 도·농교류센터  
주요 교육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20> 농촌관광관련 교육내용

과정	주요 교육내용
◦ 일반과정(GC) (General Course)	
- 초급(입문)	- 농촌관광 및 지역개발 단순참여자 - 농촌관광 및 지역개발사업 현황 및 추진방향 - 지역사회에서 프로그램 진행으로 찾아가는 교육 서비스 제공
- 중급(지도자)	-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권역 지도자 - 초급과정 이수자 - 농촌관광 및 지역개발 지도자의 역량강화
- 고급(전문가)	- 지도자과정 이수자 - 지도자의 역량 심화 - 교육자 및 컨설턴트 양성
◦ 특별과정(SC) (Special Course)	
- 지역가꾸기	- 일반과정에서 다루기 어려웠던 실습위주의 지역(마을)가꾸기 심화과정 - 지도자, 전문가 등 희망자 대상
- 프로그램실제 및 서비스	- 농촌관광을 운영하고 있는 운영자 및 지도자들이 갖추어야 할 리더쉽 - 농촌관광사업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 - 방문객 만족을 위한 서비스 마인드 교육

출처 : 농업기반공사 도·농교류센터

- 교육대상
  - 도·시·군 관계 공무원, 농촌관광 체험마을 주민, 농촌관광·지역개발사업에 관심이 있는 자, 농업기반공사 직원 등

- 주요 교육내용
  - 농촌관광의 개념 및 발전 방안, 어메니티자원 발굴 및 활용, 마을가꾸기 이론과 실제, 우수사례 발표 등에 대하여 단계별 교육

〈초급(입문)과정 순회 교육〉

- 기간 : 2004.9.13~17(4일간)
- 지역·인원 : 4개 권역(경기·강원, 충북·충남, 전북·전남, 경북·경남)804명  
(남성 712명, 여성 92명)

〈중급 지도자과정 교육〉

- 기간·장소 : 2004.8.30~9.3(4박5일) 농업기술자협회(농업기술진흥관)
- 교육인원 : 125명(남성 118명, 여성 7명)(농촌관광마을 리더 및 농촌관광마을조성에 관심있는 자 등)

〈지역가꾸기 특강 교육〉

- 기간·장소 : 2004.10.25~10.27(2박3일) 환경교육센터(양평군 명달리)
- 교육인원 : 29명(남성 23명, 여성 6명)

이상의 교육을 합쳐 2004년도 12월 말까지 에 총 1085명을 교육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그러나 12월 말까지의 교육수혜자는 성별로 통계가 나오지 않은 상태이다. 위의 교육과정 중 중급, 고급(지도자)과정은 (사)전국농업기술자협회에 특별과정 중 지역가꾸기는 (주)이장에 용역을 주는 형태로 추진되었다. 11월말까지의 교육결과는 총 956명인데 이중 남성은 851명(89.0%), 여성은 105명(11.0%)으로 나타난다.

**⑦ 향후추진계획**

- 농촌관광, 농촌마을종합개발 등 지역개발의 주체역량 강화를 위한 단계

- 별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중장기 인력육성계획 수립 추진
- 각 과정별 교육이수 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개선방안 도출
  - 2013년까지 전문인력 5,000명 육성을 목표로 지역리더,인적자원 육성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 마을리더에 대한 포상, 해외연수, 사무장제도 도입방안 등 강구

### Ⅲ. 농업인력육성정책의 성별영향분석평가 분석틀

---

### Ⅲ. 농업인력육성정책의 성별영향분석평가 분석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정책과정(정책결정, 집행, 평가) 내에서 남성과 여성의 사회경제적 차이를 고려함으로써, 특정 정책이나 프로그램 또는 법령 등이 잠재적으로 남성과 여성에게 끼칠 수 있는 차별적인 영향을 파악하여 성인지적 관점에서 현존하는 정책들의 효율성 및 정책의 적절성을 확인하는 도구이다. 이 도구의 장점은 정책의 전 과정에서 성별로 분리된 정보(gender-disaggregated information)를 수집함으로써 정책과 법령이 끼칠 수 있는 성별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여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이다.

#### 1. 지표의 근거 및 내용

선행연구들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의 핵심요소와 주요 분석 준거를 반영하는 분석지표들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의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정책 결정 단계, 정책 집행 단계, 집행 후 단계로 분석단계를 설정하였다. 그 다음 분석 단계별로 성 인지적으로 고려해야 할 핵심 지표들을 설정하였고, 이 분석지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세부 분석지표를 핵심 지표에 따라 설정하였다.

그 결과 농업인력육성정책의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위한 분석틀은 다음 <표 21>과 같다.



<표 21> 농업인력육성정책의 성별영향분석평가 분석틀

1. 정책 결정 단계
1) 정부의 양성평등 정책방향과 관심사 반영 여부 ▷정부의 성 주류화 정책 인지 여부 ▷‘여성농업인육성 5개년 계획’ 인지 여부 ▷성별영향분석평가 인지 여부
2) 여성 관련 이슈 파악 여부 ▷해당 사업과 관련한 여성 이슈 확인 여부 ▷전문농업인육성과 관련한 여성농업인들의 교육훈련의 중요성 인식 여부
3) 여성의 요구 파악 여부 ▷성별 요구조사 실시 여부
4) 성 인지적 통계자료 수집 및 활용 여부 ▷사업 추진과정에서 성 인지적 통계자료 수집 및 활용 여부 ▷성 인지적 통계생산 여부 및 생산계획 여부
5) 성 인지적 예산편성 여부 ▷양성에게 균등하게 전달되었는지 여부 ▷성별 격차 존재 시 해결대안 마련 여부 ▷해당 사업 여성관련 예산 항목 유무
6) 여성 관련 목표 포함 여부 ▷해당 사업의 가치나 이념의 성역할 고정관념 극복 기여 여부
7) 여성의 자문 참여 여부 ▷젠더 전문가, 여성단체의 자문 및 의견수렴 여부 ▷해당 사업 관련 위원회 성별 비율
8) 여성 관련 목표 달성을 위한 근거법령 정비 여부 ▷여성 관련 근거법령 및 지침 유무 ▷근거법령이 없는 경우 대책마련 계획 여부
9) 담당자의 성 인지성 파악 ▷담당공무원의 성별비율 ▷담당공무원의 양성평등의식 수준 ▷양성평등의식교육 참여 경험 유무

2. 정책 집행 단계
1) 서비스(혹은 재원) 전달 여부 ▷ 해당 사업실시를 위한 홍보 또는 정보전달 여부 ▷ 성별에 따른 홍보, 전달방안 수립 및 활용 여부
2) 성별 수혜도 파악 여부 ▷ 해당 사업의 성별 수혜도 파악 여부 ▷ 수혜도 격차의 원인 파악 노력 여부
3) 성 인지적 예산집행 여부 ▷ 성별 예산집행 여부 ▷ 여성의 독특한 필요에 의한 추가예산 배정 여부

3. 집행 후 단계
1) 사후평가 여부 및 성별분리 평가 여부 ▷ 사업수행자 및 수혜자의 성별 만족도 평가 ▷ 해당 사업의 지속의향 조사 여부 ▷ 개선점에 대한 양적, 질적 요구조사
2) 양성평등의식변화의 긍정적인 영향 여부 ▷ 해당 사업이 여성의 전문능력향상, 사회참여 확대 등 양성평등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3) 집행성과의 성별 영향력 확인 및 대안 마련 여부 ▷ 양성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왔는가 여부 ▷ 수혜도의 성별 격차 존재 시 해결대안 마련 여부 ▷ 여성 관련 예산 마련 계획 유무
4) 집행결과 전달 여부 ▷ 집행성과 자료 공개 여부 ▷ 사업결과 보고 시 성별 내용 포함 여부 ▷ 사업결과 자료를 관련 공무원들에게 전달하였는지 여부

정책 결정 단계에는 여성과 관련된 정책 이슈를 파악하고, 정부의 양성평등 정책의 방향과 관심사 반응을 파악하며, 여성의 요구와 자문 내용을 반영한 정책목표를 설정하는 것, 해당 사업의 서비스 전달 여부 및 담당자의 성 인지성 파악, 그리고 여성을 위한 목표달성 수단 마련을 위한 근거법령 정비 여부에 대한 분석항목이 포함되었다. 여기에서는 정책의 계획 및 결정과정에서 얼마나 구체적이고 명시적으로 여성의 이슈와 요구가 반영되어 나가고 있는가를 점검하는데 주안점이 두어졌다. 본 연구의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는 정책 결정 단계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높은 비중을 두었다.

정책 집행 단계에서는 정책 집행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위한 단계로서, 정책 결정 과정에서 다소 추상적으로 결정된 정책내용을 구체화하고 세련화시킴으로써 정책을 집행가능한 가장 바람직한 수준으로까지 설계해 나가는 과정을 포함하게 된다. 따라서 정책 집행 단계에서는 정책대상 집단 선정에 있어 성별 형평성이 고려되었는지, 정책이 성 인지적으로 집행되는데 필요한 예산의 확보와 배분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정책 활동을 통해서 정책 관련 정보나 서비스가 여성 정책수혜 대상자들에게도 충분히 전달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추진과정에서의 서비스 전달 여부, 성별 수혜도 파악, 그리고 성 인지적 예산집행 여부가 포함되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모형에서의 정책 집행 후 단계에서는 정책집행이 일차적으로 완료된 후, 정책의 영향을 성 인지적 관점에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의 양성평등성 강화를 위해 적절히 활용하고 있는가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성 인지적인 정책 목표들이 달성되었는가, 여성의 지위 및 남녀간의 성별 관계에 이 정책이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이러한 평가결과가 어떻게 성 인지적으로 활용되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해당 사업의 사후평가 여부, 결과의 긍정적 영향 여부, 집행성과의 성별 영향력 판단 및 대안 마련 그리고 집행결과 전달 여부를 확인한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마련한 본 연구의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위한 지침은 다음과 같다.

## 2. 분석지침

### □ 정책 결정 단계

#### 정부의 양성평등 정책의 방향과 관심사 반영 파악

- 정부의 성 주류화 정책 인지 여부
- ‘여성농업인육성 5개년 계획’ 인지 여부
- 성별영향분석평가 인지 여부

- 정부의 성 주류화 정책에 대한 인지도
  - 정책과 프로그램을 추진할 때 여성과 남성의 독특한 요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들의 경험과 관점을 고르게 반영하여 특정 성에 대한 편파 없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게 하는 성 주류화 정책이 궁극적으로 정책과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임을 인지하는가?
  - ‘여성정책주류화’를 추진하기 위해 농림부를 포함한 6개 부처에 여성정책담당제를 신설하게 된 내용을 인지하는가?
- ‘여성농업인육성 5개년 계획’에 대한 인지도
  - 1999년에 제정된 「농업농촌기본법」 제 14조와 시행령 제7조에 ‘여성농업인육성5개년 계획’의 수립·시행을 규정한 사항을 인지하고 있는가?
  - 여성농업인 5개년 계획의 목표와 15개 분야의 정책과제를 인지하고 있는가?
-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인지도
  - ‘여성발전기본법’ 제10조(정책의 분석·평가)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정책이 여성의 권익과 사회참여 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평가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인지하고 있는가?
  - 2005년부터 행정기관과 광역자치단체에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가?

**여성 관련 이슈 파악 여부**

-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여성의 이슈 확인 여부
- 전문농업인력육성과 관련하여 여성농업인들의 교육훈련의 중요성 인식 여부

- 여성과 남성간의 형평성 문제와의 관련성을 파악하였는가?
  - 파악했다면, 관련된 내용은 무엇인가?
  - 파악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 전문농업인력육성과 관련하여 여성농업인들의 교육훈련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가?
- 인식하고 있다면, 관련된 내용은 무엇인가?
- 인식하지 않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여성의 요구 파악 여부**

**- 성별 요구조사 실시 여부**

- 성별 요구조사를 하였다면, 그 방법은 무엇이었는가?
- 조사결과에서 차이가 있었는가?

**성 인지적 통계자료 수집 및 활용 여부**

**- 해당 사업 추진과정에서 성 인지적 통계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였는지 여부**

**- 성 인지적 통계자료가 없는 경우, 생산 여부 및 생산계획 여부**

- 성 인지적 통계자료 수집 및 활용 여부
- 해당 사업을 추진하면서 양성평등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한 성별 통계자료를 수집하였는가?
- 수집하였다면, 사업계획안에 성 인지적 통계를 활용하였는가?
- 성 인지적 통계를 활용했다면, 어떤 성별 통계인가?
- 성 인지적 통계자료가 없는 경우, 생산 여부 및 생산 계획 여부
- 해당 사업과 관련된 성별 분리통계가 없다면, 생산하였는가? 그리고 생산할 계획이 있는가?
- 해당 사업과 관련된 성별 분리통계가 없다면, 통계를 생산할 수 있는 곳에 요청한 계획은 있는가?

### **성 인지적 예산편성 여부**

- 양성에게 균등하게 전달되었는지의 여부
- 성별 격차 존재시 해결대안 마련 여부
- 해당 사업 여성관련 예산 항목 유무

- 해당 사업의 서비스 혹은 재원이 남녀 모두에게 균등하게 주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만약, 차이가 있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예산편성 포함)을 마련했는가?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는가?
- 성별 격차 존재 시 해결대안 마련 여부  
-만약 해당 사업의 이전 결과에서 성별 격차가 확연히 나타났을 때, 이를 시정하기 위한 해결 대안을 마련하였는가?  
-성별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이 예산 편성에 포함되었는가?
- 여성 관련 예산 항목이 있는가?

### **여성 관련 목표 포함 여부**

- 해당 사업의 가치나 이념의 성역할 고정관념 극복 기여 여부

- 해당 사업의 필요성과 목적에 성 인지적 시각(명시적인 여성 관련 목표)이 포함되어 있는가?  
-포함되었다면 명시된 여성 관련 목표는 무엇인가?
- 해당 사업의 목표와 성과가 양성간의 불평등의 개선에 기여하는 점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기여하는 점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여성의 자문 참여 여부**

- 젠더 전문가, 여성단체의 자문 또는 의견수렴 여부

**-해당 사업 관련 위원회 성별 비율**

- 자문 또는 의견수렴을 하였다면, 그 내용은 무엇이었는가?  
-그 내용은 반영되었는가?
- 반영되었다면, 반영된 사항은 무엇인가?  
-반영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 해당 사업 관련 위원회가 설치·운영되고 있는가? 있다면, 위원들의 성별 비율은 어떻게 되는가?

**여성 관련 목표달성 수단 마련을 위한 근거법령 정비 여부**

- 여성 관련 근거법령 및 지침 유무
- 근거법령이 없는 경우 대책마련 계획 여부

- 여성 관련 법, 시행령, 시행규칙, 규정 등이 있는가?  
-관련 법률이 있다면, 법률을 준수하고 있으며, 의무사항, 권고사항 등이 준수되고 있는가?  
-관련 법률이 없다면, 대책은 마련되어 있는가? 법제화 방안, 조직구성 방안, 프로그램 개발 여건 조성 등의 지원체제를 준비하고 있는가?

**담당자의 성 인지성 파악 여부**

- 담당공무원의 성별비율
- 담당공무원의 양성평등의식 수준
- 양성평등의식교육 참여 경험 유무

- 해당 사업과 관련된 담당공무원(농림부, 농촌진흥청, 한국수산정보센터, 도 진흥원,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의 성별 비율

- 해당 사업과 관련된 담당공무원(농림부, 농촌진흥청, 한국수산정보센터, 도  
진흥원,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의 양성평등의식 수준
- 해당 사업 담당자의 성 주류화 및 양성평등의식 교육 참여 경험 유무

## □ 정책의 집행단계

### 서비스(혹은 자원) 전달 여부

- 해당 사업 실시를 위한 홍보 또는 정보전달 여부
- 성별에 따른 홍보, 전달 방안 수립 및 활용 여부

- 해당 사업 실시를 위한 홍보 또는 정보전달
  - 홍보 방법 또는 정보전달 방식은 무엇인가?
  - 홍보 또는 정보전달 횟수는 어느 정도인가?
- 성별에 따른 홍보, 전달 방안 수립 및 활용
  - 해당 사업을 잘 인지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여성 수혜자 특성을 고려한 홍보나  
정보전달을 하였는가?
  - 홍보나 정보전달이 미비한 경우, 원인을 파악하였는가? 성별로 파악하였는가?
  - 홍보나 정보전달이 미비한 경우, 대처방안을 수립하였는가? 성별로 다른 방안  
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 성별 수혜도 파악 여부

- 해당 사업의 성별 수혜도 파악
- 수혜도 격차의 원인 파악 노력 여부

- 해당 사업의 성별 수혜도는 어느 정도인가?
  - 성별 수혜도를 파악하였는가? 파악했다면, 어떤 방법으로 파악했는가?



- 수혜도 격차의 원인파악 노력 여부
  - 성별 수혜도의 격차가 있다면, 여성의 참여가 저조한 원인을 파악하였는가?
  - 여성의 참여가 낮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성 인지적 예산집행 여부**

- 성별 예산집행 여부
- 여성의 독특한 필요에 의한 추가예산 배정 여부

- 여성 관련 목표달성을 위해 성별 예산편성이 있는가?
  - 있다면, 어느 정도이며, 총액 대비 비율은 어느 정도인가?
  - 여성 관련 예산비율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가?
  - 적절하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가?
  - 부적절하다면,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 여성 관련 예산은 계획대로 적기에 지원되었는가?
  
- 여성의 독특한 필요에서 비롯된 추가적인 예산이 편성되었는가? (☞ 여성화장실, 탁아비, 여성숙소 등)

**□ 정책집행 후 단계**

**사후평가 여부 및 성별분리 평가 여부**

- 사업수행자 및 수혜자의 성별 만족도 평가
- 해당 사업의 지속의향 조사 여부
- 개선점에 대한 양적, 질적 요구조사

- 사업수행자 및 수혜자의 성별 만족도를 평가하였는가?
  - 평가했다면, 차이가 있었는가?

- 성별 간에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는가?
- 해당 사업의 지속 의향을 조사하였는가?
  - 조사했다면, 성별 간에 차이가 있었는가?
- 해당 사업의 개선할 점에 대한 양적, 질적 요구조사를 하였는가?
  - 조사했다면, 성별 간에 차이가 있었는가?

**양성평등의식변화의 긍정적인 영향 여부**

**-해당 사업이 여성의 전문능력향상, 사회참여 확대 등 양성평등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 해당 사업이 여성의 전문능력향상, 사회참여확대 등 양성평등에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하였는가?

**집행성과의 성별 영향력 확인 및 대안 마련 여부**

**-양성 모두에게 긍정적 영향을 가져왔는가의 여부**  
**-수혜도의 성별 격차 존재시 해결대안 마련 여부**  
**-여성 관련 예산 마련 계획 유무**

- 해당 사업이 양성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왔는가?
- 해당 사업 후 성별 참여도에 성별 격차가 나타나는가?
  - 참여도에 성별 격차가 나타났다면, 이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였는가?
- 참여도에 성별 격차가 나타났다면, 여성 관련 예산을 별도로 마련하였는가?

**해당 사업의 집행결과 전달 여부**

-집행성과 자료 공개 여부

-사업결과 보고 시 성별내용 포함 여부

-사업결과 자료를 관련 공무원들에게 전달 여부

- 성별 요소를 포함함 사업의 집행성과를 사업대상 또는 일반인들에게 전달하였는가?
  - 해당 사업결과 자료를 공개하였는가?
  - 해당 사업결과 보고 시 성별 내용이 포함되었는가?
  - 해당 사업결과 자료를 관련 공무원들에게 전달하였는가?
  
- 해당 사업결과를 어떤 방법으로 전달하였는가? (☞보고서 배포, 공무원 워크숍 또는 세미나 등)

## IV. 농업인력육성정책의 사업별 성별영향분석평가

---

## IV. 농업인력육성정책의 사업별 성별영향분석평가

### 1. 후계농업인 육성

#### 가. 전화조사 개요

후계인력육성사업의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위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농림부 「농림사업시행지침서」 2003년, 2004년, 2005년 자료  
농림부 여성정책과 여성농업인육성 2003년 실적 점검 및 2004 시행계획  
전북 농림어업 종합발전계획(2004-13)  
부안군 여성농업인 육성 5개년 계획(2004-8)
2. 후계인력육성을 담당하는 공무원과의 인터뷰 자료
  - 농림부 경영인력과 후계인력육성 담당자
  - 전라북도 농업정책과 후계인력육성 담당자
  - 전라북도 부안군청 농업정책과 후계인력육성 담당자

3. 1981년부터 2003년까지 전라북도에서 선정된 후계농업인 총 15,420명(남 14,101명, 여 1,379명) 중에서 무작위 추출한 200명(남성 100명, 여성 100명)에 대한 전화 설문조사

전화설문은 2004년 12월 13일부터 16일까지 훈련된 조사원에 의해 실시하였다. 전화 인터뷰에 응해 준 응답자는 총 108명이었고 이중 남성은 58명(53.7%), 여성은 50명(46.3%)이었다.

조사대상자중 40대가 59.3%이었고, 30대가 33.3%로 응답자의 92.6%가 3,40대였으며 연령 평균이 41.57세였다. 여성과 남성의 연령 평균은 거의 비슷하였는데 여성이 약간 높았다. 교육수준은 남성의 경우 고졸 이상이 84.2%, 여성은 고졸 이상이 56.0%로 나타나 여성의 학력이 더 낮았다. 가족소득은 남성의 경우 2,000만 원 이상이 49.9%이었고 여성의 경우 2,000만 원 이상이 32.2%로 나타나 여성이 남성보다 낮았다. 주 영농형태는 전체의 72.2%가 논벼였고 다음이 축산 12.0%, 특작이 6.5%, 과수가 4.6%이었다. 여성의 경우 논벼가 76.0%였고 축산은 6.0% 밖에 되지 않았다.

〈표 22〉 조사대상자의 특성

(명, %)

구 분	여성	남성	계	
연령	30대 이하	11 ( 22.0)	25 ( 43.1)	36 ( 33.3)
	40대	37 ( 74.0)	27 ( 46.6)	64 ( 59.3)
	50대	2 ( 4.0)	5 ( 8.6)	7 ( 6.5)
	60대 이상	0 ( 0.0)	1 ( 1.7)	1 ( 0.9)
	평균 연령	41.68 세	41.48 세	41.57 세
교육수준	초졸 이하	9 ( 18.0)	1 ( 1.8)	10 ( 9.3)
	중졸	13 ( 26.0)	8 ( 14.0)	21 ( 19.6)
	고졸	19 ( 38.0)	30 ( 52.6)	49 ( 45.8)
	대졸 이상	9 ( 18.0)	17 ( 29.8)	26 ( 24.3)
	대학원 이상	0 ( 0.0)	1 ( 1.8)	1 ( 0.9)
연 가족소득	1000만원 미만	15 ( 30.0)	10 ( 17.2)	25 ( 23.1)
	2000만원 미만	13 ( 26.0)	19 ( 32.8)	32 ( 29.6)
	3000만원 미만	11 ( 22.0)	14 ( 24.1)	25 ( 23.1)
	5000만원미만	7 ( 14.0)	10 ( 17.2)	17 ( 15.7)
	5000만원 이상	4 ( 8.0)	5 ( 8.6)	9 ( 8.3)
막내자녀 연령	취학 전	8 ( 16.0)	16 ( 27.6)	24 ( 22.2)
	초등학생	16 ( 32.0)	16 ( 27.6)	32 ( 29.6)
	중고등학생	17 ( 34.0)	8 ( 13.8)	25 ( 23.1)
	20세 이상	9 ( 18.0)	9 ( 15.5)	18 ( 16.7)
	자녀 없음	0 ( 0.0)	9 ( 15.5)	9 ( 8.3)
거주지역 규모	읍	3 ( 6.0)	3 ( 5.2)	6 ( 5.6)
	면	47 ( 94.0)	55 ( 94.8)	102 ( 94.4)
	동	0 ( 0.0)	0 ( 0.0)	0 ( 0.0)
영농형태	논벼	38 ( 76.0)	40 ( 69.0)	78 ( 72.2)
	과수	4 ( 8.0)	1 ( 1.7)	5 ( 4.6)
	채소	0 ( 0.0)	1 ( 1.7)	1 ( 0.9)
	화훼	0 ( 0.0)	1 ( 1.7)	1 ( 0.9)
	전작	0 ( 0.0)	1 ( 1.7)	1 ( 0.9)
	특작	4 ( 8.0)	3 ( 5.2)	1 ( 0.9)
	축산	3 ( 6.0)	10 ( 17.2)	13 ( 12.0)
	기타	1 ( 2.0)	1 ( 1.7)	2 ( 1.9)
농사 경력	5년 미만	0 ( 0.0)	5 ( 8.6)	5 ( 4.6)
	5~10년	8 ( 16.0)	11 ( 19.0)	19 ( 17.6)
	10년 이상	42 ( 84.0)	42 ( 72.4)	84 ( 77.8)
계	50 ( 46.3)	58 ( 53.7)	108 (100.0)	

나. 분석결과

□ 정책 결정 단계

평가지표	세부 평가지표	평가결과	지표 활용 기관조사 분석 근거
1) 정부의 양성평등 정책방향과 관심사 반영 여부	① 정부의 성 주류화 정책 인지 여부	-성 주류화정책 인지 못하고 있음	농림부 경영인력과 인터뷰
	② 여성농업인육성5개년계획 인지 여부	-육성계획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음	
	③ 성별영향분석평가 인지 여부	-인지하고 있지 않음	
2) 여성 관련 이슈 파악 여부	④ 후계농업인육성사업과 관련한 여성 이슈 확인 여부	-여성 이슈 확인하지 않음	농림부 경영인력과 인터뷰
	⑤ 전문농업인육성과 관련한 여성 농업인들의 영농기술교육의 중요성 인식 여부	-대체로 인식하고는 있으나 교육수행과정에서 연관지어 수행하고 있지 않음	
3) 여성의 요구 파악 여부	⑥ 성별 요구조사 실시 여부	-성별 요구조사 실시하지 않음	
4) 성 인지적 통계자료 수집 및 활용 여부	⑦ 사업추진과정에서 성 인지적 통계자료 수집 및 활용 여부	-성 인지적 통계자료 수집 및 활용 안함	
	⑧ 성 인지적 통계생산 여부 및 생산계획 여부	-생산하지 않고 생산계획 특별히 없음	
5) 성 인지적 예산편성 여부	⑨ 양성에게 균등하게 전달되는지 여부	-특별히 여성 우대조항을 마련함	
	⑩ 성별 격차 존재 시 해결대안 마련 여부	-해결대안 마련	
	⑪ 후계농업인육성사업의 여성 관련 예산 항목 유무	-여성 관련 예산 항목 없으나 여성 목표치에 따른 예산은 있음	
6) 여성 관련 목표 포함 여부	⑫ 후계농업인육성사업의 성역할 고정관념 극복 기여 여부	-성역할 고정관념 극복에 기여	
7) 여성의 자문 참여 여부	⑬ 젠더 전문가, 여성단체의 자문 및 의견 수렴 여부	-자문 및 의견수렴 하고 있음	
	⑭ 후계농업인육성사업 관련 위원회 성별 비율	-4개 위원회 82명 중 29명(35.4%)	
8) 여성 관련 목표달성을 위한 근거법령 정비 여부	⑮ 여성 관련 근거법령 및 지침 유무	-여성농어업인 육성법과 시행령, 사업지침 등에 잘 나타나 있음	
	⑯ 근거법령이 없는 경우 대책마련 계획 여부		
9) 담당자의 성 인지성	⑰ 담당공무원의 성별 비율	-남성의 비율이 90% 이상	
	⑱ 담당공무원의 양성평등의식 수준	-양성평등의식 수준 높음	
	⑲ 양성평등의식교육 참여 경험 유무	-참여경험 있음	

## 1) 정부의 양성평등 정책방향과 관심사 반영 여부

### ① 정부의 성주류화 정책인지 여부

심층면접을 한 바에 따르면, 후계인력육성 담당자들은 정부의 성 주류화 정책에 대하여 대체로 잘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었다. 전체 농업인력육성정책에서 여성농업인육성정책이 갖는 의미나 필요성을 인지하는 정도로 보인다.

다만, 현재 여성들이 농촌에서 주된 농업 인력으로, 농촌사회 및 농업생산에 여성들의 역할과 기여도가 매우 크다는 것은 인식하고 있었으며, 그에 따라 여성 농업인의 인력 육성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도 인식하고 있었다.

### ② ‘여성농업인육성5개년계획’ 인지 여부

후계인력 담당자들은 《여성농업인육성법》 및 《여성농업인 육성 5개년 계획》과 같은 여성농업인육성 근거 법령 및 계획을 잘 알고 있었다. 후계인력 육성에서 여성관련 우대조항도 그에 근거한 것임을 잘 아고 있었다.

담당자들은 여성 농업인의 후계인력 육성이 전문 농업인 육성에 있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농업생산에 있어 여성들의 역할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었으며, 그런 점에서 여성들의 전문인력화가 중요하다는 것을 대체로 인식하고 있었다.

### ③ 성별영향평가분석 인지 여부

후계인력 담당자들은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하여 전혀 인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담당자들은 인터뷰를 하기 위한 사전 접촉이나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이 용어를 처음 접하였다고 하였다.

## 2) 여성 관련 이슈 파악 여부

### ④ 후계농업인육성사업과 관련한 여성 이슈 확인 여부

심층면접내용에 따르면, 담당자들은 여성농업인 육성의 필요성, 중요성 등에 대한 이슈를 알고는 있지만 사업 결정 및 추진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는 않았다. 담당자들은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사업이 남성과 여성이라는



성별 요소와 특별히 관계가 없는 내용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따라서 사업과정에서 여성 농업인과 관련한 현실 및 쟁점에 관한 파악이나 이를 확인하는 과정은 거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된다.

#### ⑤ 전문농업인 육성과 관련한 여성농업인들의 영농기술교육의 중요성 인식여부

후계자 담당자들은 여성 농업인의 영농기술교육이 전문 농업인 육성에 있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농업생산에 있어 여성의 역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며 더욱 중요해 지고 있음을 잘 알고 있었으며, 그런 점에서 여성들의 영농기술교육도 중요하다는 것을 대체로 인식하고 있었다.

### 3) 여성의 요구 파악 여부

#### ⑥ 성별요구조사 실시여부

후계인력육성사업을 하는데 있어 특별히 성별 요구조사를 실시하지는 않았다.

### 4) 성인지적 통계자료 수집 및 활용 여부

#### ⑦ 사업추진과정에서 성 인지적 통계자료 수집 및 활용

후계인력육성 추진 과정에서 여성농업인육성5개년 계획에 의거하여 여성선정 목표 점검을 위해 여성 선정인원과 비율을 확인하고는 있으나 성 인지적 통계자료는 수집하고 있지는 않다. 남녀별 지원금, 분야별 남녀 지원자수 등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

#### ⑧ 성 인지적 통계 생산 여부 및 생산계획 여부

여성 선정 목표치에 대한 점검만 있을 뿐 성인지적 통계를 생산하거나 생산할 계획이 없다.

### 5) 성 인지적 예산편성 여부

#### ⑨ 양성에게 균등하게 전달되었는지 여부

<표 23> 후계자제도를 알게 된 경로

구 분	여성	남성	계
공무원, 관련기관 담당자	15 ( 30.0)	19 ( 32.8)	34 ( 31.5)
특별한 계기없음	14 ( 28.0)	16 ( 27.6)	30 ( 27.8)
이웃, 친구	11 ( 22.0)	16 ( 27.6)	27 ( 25.0)
가족	3 ( 6.0)	3 ( 5.2)	6 ( 5.6)
지역신문, 방송	5 ( 10.0)	1 ( 1.7)	6 ( 5.6)
팸플렛, 안내문	1 ( 2.0)	3 ( 5.2)	4 ( 3.7)
홈페이지	0 ( 0.0)	0 ( 0.0)	0 ( 0.0)
기타	1 ( 2.0)	0 ( 0.0)	1 ( 0.9)
계	50 (100.0)	58 (100.0)	108 (100.0)

후계자 제도를 알게 된 경로를 묻은 설문에 남녀별 차이가 거의 없었다. 이것으로 미루어 후계자제도에 대해서 양성에게 균등하게 전달되었음을 알 수 있다.

#### ⑩ 성별 격차 존재시 해결대안 마련 여부

81년부터 96년까지 여성후계자가 5% 밖에 되지 않는 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97년부터 여성가산점을 부여하였다. 이로 인해 여성 선정비율이 10%를 넘어서게 되었다. 2001년에는 또한 여성에 대한 우호적 평가조항을 신설하고 시군별 20% 이내에서의 여성 우선 선정 등의 조항을 마련하였다. 이와 같이 성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해 왔다.

#### ⑪ 후계농업인육성사업 여성관련 예산 항목 유무

후계인력육성사업에서 예산이 성별로 편성되어 있지는 않다. 다만 여성선정 목표치가 있어서 그에 준하는 예산이 여성에게 배정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여전히 여성후계자는 선정비율이 20%를 밑돌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여성비율은 8.9%에 불과하다.

## 6) 여성관련 목표 포함 여부

### ⑫ 해당사업의 가치나 이념의 성역할 고정관념 극복기여 여부

후계농업인육성사업은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목표를 갖고 추진되고 있어서 지난 92년 이후 전체 후계농업인 선정인원 77,800명 가운데 평균 9%에 해당하는 6,962명을 여성 후계농업인으로 육성하였다. 전통적으로 농업경영주가 남성이었던 농촌현실에 비추어볼 때 이와 같은 여성농업인 육성은 농업경영상의 성역할 변화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으로서 농촌에서의 여성의 지위 및 권한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 7) 여성의 자문참여 여부

### ⑬ 젠더 전문가, 여성단체의 자문, 의견수렴

계획 수립시 여성농업인단체들과의 간담회나 토론회 등을 통해 후계농업인 육성사업에 대한 의견수렴과정을 거쳤다.

### ⑭ 후계농업인육성사업 관련 위원회 성별 비율

농림부내에 총 17개 위원회가 있으며 30~35%의 여성위원이 위촉되어 참여하고 있다. 후계인력육성과 관련한 위원회는 다음 <표 24>에 나와 있는 4개의 위원회가 있으며 이 역시 여성위원 비율이 높다. 이런 사실로 미루어 후계인력육성 사업에 성인지적 관점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다고 본다.

<표 24>농림부 후계인력 관련 위원회 여성, 여성농민위원 참여 현황  
(04년 11월 현재)

단위 : 명, %

위원회명	주요내용	운영 현황 (연 회)	합계					당연직			위촉직			
			전체	여성	비율	여성 농민	비율	당연	여성	비율	위촉	여성	비율	
합계(17개 위원회)			351	86	24.5	18	5.1	114	1	0.9	237	85	35.9	
8	농림업무 심사평가 위원회	심사평가지침및심 사평가결과심의주 요정책과제평가자 문	5-7회	24	8	33.3	2	8.3	0	0	0	24	8	33.3
13	중앙농정 심의회	농업농촌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심의	1-2회	15	4	26.7	1	6.7	1	0	0	14	4	28.6
14	농어업농 어촌대책 특별위원 회	농업농어촌발전방 향과실천계획협의 자문	1회	29	6	20.7	1	3.4	6	0	0	23	6	26.1
15	여성농업 인육성정 책자문회 의	여성농업인육성정 책기본계획수립자 문및필요정책건의	1-2회	14	11	78.6	5	35.7	0	0	0	14	11	78.6

## 8) 여성 관련 목표달성을 위한 근거법령 정비여부

### ㉟ 여성관련 근거법령 및 지침 유무

여성농어업인육성법과 시행령을 바탕으로 여성농업인육성 5개년 계획 등과 농림사업지침에 여성관련 목표달성을 위한 지침이 잘 정비되어 있다.

## 9) 담당자의 성 인지성

농업연수부에 양성평등의식교육 과정의 설치로 후계인력육성 담당자들 중 교육에 참여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후계인력 담당자들은 대부분 남성들이며 양성평등의식 수준은 낮다.

□□ 정책집행 단계

평가지표	세부 평가지표	평가결과	해당부서 및 평가 근거
1) 서비스 (혹은 자원) 전달 여부	① 후계농업인육성사업 실시를 위한 홍보 또는 정보전달여부	전반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정책	도청 농업 정책과 시군청 농업 정책과
	② 성별에 따른 홍보, 전달 방안 수립 및 활용 여부	담당자들의 적극적인 권유도 많음	
2) 성별 수혜도 파악 여부	③ 후계농업인육성사업의 성별 수혜도 파악 여부	신청대비 선정비율이 여성이 더 높음	농림부 2003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자체 평가결과
	④ 수혜자 격차의 원인 파악 노력 여부	여전히 여성의 신청비율이 낮음	
3) 성인지적 예산집행 여부	⑤ 성별 예산집행 여부	성인지적 예산집행 없음	여성농업인육성 2003년 실적점검 및 2004년 시행계획
	⑥ 여성의 독특한 필요에 의한 추가 예산 배정 여부	추가 예산 없음	

1) 서비스(혹은 자원) 전달 여부

① 후계농업인력육성사업 실시를 위한 홍보 및 전달 여부

위낙 잘 알려져 있는 사업이라 특별한 계기 없이도 사업을 아는 경우가 27.8%였으며 공무원, 관련기관 담당자를 통해 알게 된 경우가 남 32.8%, 여 30.0%로 가장 높고 남녀차이도 없었다. 이처럼 해당 사업 실시를 위한 홍보 및 전달에 있어 남녀 모두에게 잘 전달되고 있었다. 그러나 후계자 선정 이후 교육 훈련 등에 대해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고 선정으로만 끝난다는 불평 불만이 많았다.

② 성별에 따른 홍보, 전달방안 수립 및 활용

교육 담당자들은 모두 성별에 따른 홍보나 전달 방안 등을 별도로 수립하거나 활용하지는 않고 있었다.

2) 후계농업인육성사업의 성별 수혜도 파악

### ③ 후계농업인육성사업의 성별 수혜도 파악

담당자들은 후계인력육성사업의 성별 수혜도 파악은 공식적으로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정인원의 남녀 숫자만 파악하고 있을 뿐이었다.

### ④ 수혜도 격차의 원인 파악 노력

후계인력 담당자들은 수혜도 격차의 원인 파악을 특별히 하지는 않았다. 다만 설문조사를 통해 나타난 사실은 다음과 같다.

<표 25> 남편이 후계자 신청 이유

구 분	빈도	비율
공동경영주이나 남편 점수 유리	15	25.9
남성이 농업경영주이므로	14	24.1
부인 신청 미처 생각 못함	9	15.5
기타	8	13.8
미혼	5	8.6
부인이 농사 짓지 않아	4	6.9
결혼 전 선정	3	5.2
계	58	100.0

<표 26> 여성이 후계자 신청 이유

구 분	빈도	비율
남편이 연령제한에 걸려서	28	70.0
부인의 점수가 높아서	7	17.5
여성인 농업경영주라서	3	7.5
남편이 농사 짓지 않아	1	2.5
기타	1	2.5
계	40	100.0

남성이 후계자를 신청한 경우는 ‘남편이 점수가 더 높거나’(25.9%), ‘남성이

농업경영주여서'(24.1%)가 주된 이유였다. 반면 여성이 후계자를 신청한 경우는 70%가 남편이 연령제한에 걸려 도저히 신청할 수 없는 경우였고 여성이 우대조항으로 점수가 높은 경우가 17.5%였다. 이것으로 부부간에 한명만 후계자가 될 수 있는 상황에서 당연히 남편이 신청을 하고 있으며 불가피하게 남편이 안 되는 경우에만 여성이 신청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사실로 볼 때 여성후계자를 20% 이상 늘리려면 원칙적으로 부부간에 한사람만 지원하는 현행 지침을 바꾸지 않는 한 여성후계자가 늘어나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3) 후계농업인육성사업의 성인지적 예산 집행

#### ⑤ 성별 예산편성 여부

성별 목표치에 따른 여성목표예산은 있으나 여성만을 고려한 특별예산은 편성되지 않고 있다.

#### ⑥ 여성의 독특한 필요에 의한 추가예산 배정 여부

여성의 독특한 필요에 의한 추가예산 배정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정책집행 후 단계

평가지표	세부 평가지표	평가결과	해당부서 및 평가 근거
1) 사후평가 여부 및 성별분리 평가 여부	① 사업수행자 및 수혜자의 성별 만족도 평가	성별 만족도 평가 없음	농림부 경영인력과 농림부 여성정책과
	② 후계농업인육성사업의 지속의향 조사 여부	지속의향 조사하고 있음	
	③ 개선점에 대한 양적 질적 요구조사	개선점에 대한 요구조사	
2) 양성평등의식 변화의 긍정적인 영향 여부	④ 여성의 전문능력향상, 사회참여확대 등 양성평등에 영향을 주었는지 여부	양성평등의식변화	도청 농업정책과 시군청 농업정책과
3) 집행성과의 성별영향력 확인 및 대안 마련 여부	⑤ 양성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왔는가 여부	수혜자가 남성에게 편중됨	수혜자 전화설문 조사  농림부 2003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⑥ 수혜도의 성별격차 존재 시 대안 마련 여부	대안 마련에 미흡	
	⑦ 여성 관련 예산 마련 계획 여부	별도 여성 관련 예산 마련하지 않음	
4) 집행결과 전달 여부	⑧ 집행성과 자료공개 여부	일부 공개함	여성농업인 육성 2003년 실적점검 및 2004년 시행계획
	⑨ 사업결과 보고 시 성별 내용 포함 여부	결과보고 시 성별 내용 포함 안함	
	⑩ 사업결과 자료를 관련 공무원들에게 전달하였는지 여부	공개된 자료는 공유함	

1) 해당사업의 사후평가 여부

① 사업수행자 및 수혜자의 성별 만족도 평가

심층면접을 했던 담당자들은 수혜자들에 대한 만족도 평가를 특별히 공식적으로 실시하고 있지 않았으며, 따라서 성별 만족도 평가도 전혀 실시하고 있지는 않았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표 27> 후계농업인육성사업 만족도

구분	여성	남성	계
매우 불만족	6 ( 12.0)	10 ( 17.5)	16 ( 15.0)
불만족	15 ( 30.0)	22 ( 38.6)	37 ( 34.6)
보통	22 ( 44.0)	23 ( 40.4)	45 ( 42.1)
만족	7 ( 14.0)	2 ( 3.5)	9 ( 8.4)
매우 만족	0 ( 0.0)	0 ( 0.0)	0 ( 0.0)
계	50 (100.0)	57 (100.0)	107 (100.0)

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남녀 차이가 별로 없었으나 여성은 만족 비율이 14%였고 남성은 3.5% 밖에 되지 않아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훨씬 불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② 후계농업인육성사업의 지속의향의 조사 여부

후계자 선정 이후 지속적인 지원, 교육,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으며 이것이 가장 큰 불만으로 나타났다.

<표 28> 후계농업인육성사업 불만족 이유

구분	여성	남성	계
후속지원과 관리 없다	12(66.7)	16(53.3)	28(58.3)
사업비 액수 적다	1(5.6)	5(16.7)	6(12.5)
전문성 없이 자금 지원 통로로만 역할	1(5.6)	3(10.0)	4(8.3)
신청 가능한 영농형태 제한됨	1(5.6)	1(3.3)	2(4.2)
기타	3(16.7)	5(16.7)	8(16.7)
계	18 (100.0)	30 (100.0)	48(100.0)

불만족한 기타 의견으로는 적합하지 못한 대상자가 선정되는 경우에 대한 것과 농업 자체가 어려워지면서 겪는 어려움 등이 있었다.

### ③ 개선점에 대한 양적, 질적 요구 조사 실시

담당자들이 수행한 후계인력 육성 사업에 대한 개선점 요구 조사는 없었다. 수혜자들에 대한 설문조사로 나타난 바는 다음과 같다.

<표 29> 개선해야 할 사항

구분	여성	남성	계
지속적 관리와 지원 필요	15 ( 45.5)	17 ( 44.7)	32 ( 45.1)
지원금의 확대 및 연속 지원	4 ( 12.1)	6 ( 15.8)	10 ( 14.1)
전문성·경영능력 중심 선정기준 강화	6 ( 18.2)	3 ( 7.9)	9 ( 12.7)
연령제한 농업기반 등 선정기준 개선	1 ( 3.0)	4 ( 10.5)	5 ( 7.0)
전문교육 필요	1 ( 3.0)	1 ( 2.6)	2 ( 2.8)
자금 금리인하	1 ( 3.0)	1 ( 2.6)	2 ( 2.8)
기타	5 ( 15.2)	6 ( 15.8)	11 ( 15.5)
계	33 (100.0)	38 (100.0)	71 (100.0)

후계농업인들은 선정 이후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을 남녀 모두 가장 많이 바라고 있었다. 선정과정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 관리와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었다. 그 외에도 개선사항에 대한 요구가 무척 많았다.

기타 의견으로 나온 것을 정리하면 여성들이 농업전문인력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했지만 거기에만 그치고 말았다는 아쉬움이 있었다. 여성들을 더 많이 육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과 부부 후계자 제도 부부창업농 제도가 필요하다는 제안도 있었다.

## 2) 양성평등 인식변화의 긍정적인 영향 여부

### ④ 여성의 전문능력 향상, 사회참여확대 등 양성평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여성 후계인력육성의 확대로 여성이 농업의 전문인력으로 인정받는데 많은 기여를 했다고 본다. 그러나 현 후계자제도는 일회적인 자금지원으로 끝나고

마는 아쉬움이 있음이 다음 설문조사에 나타나고 있다.

<표 30> 선정 이후 좋은 점

구분	여성	남성	계
영농 기반 확대	26 ( 66.7)	23 ( 50.0)	49 ( 57.6)
농업전문인력으로 인정	4 ( 10.3)	5 ( 10.9)	9 (10.6)
교육 훈련기회 확대	1 ( 2.6)	3 ( 6.5)	4 ( 4.7)
기타	0 ( 0.0)	1 ( 2.2)	1 ( 1.2)
없다	8 ( 20.5)	14( 30.4)	22( 25.9)
계	39 (100.0)	46 (100.0)	85 (100.0)

남녀 모두 농지구입, 시설확대 등 영농기반 확대를 선정 이후 가장 좋은 점으로 이야기 하고 있으며 좋은 점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여성 20.5%, 남성 30.4%나 되었다. 반면 농업전문인력으로 인정받는다고 한 경우는 여성 10.3%, 남성 5.9%밖에 되지 않았다. 이 결과로 보아 후계자제도가 1회성 자금 지원 이후 사후 교육과 관리를 못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 3) 집행성과의 성별영향력 확인 및 대안마련 여부

#### ⑤ 양성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왔는가 여부

후계자 설문조사과정에서 여성도 전문농업인력으로 인정받는 기회가 확대되어 여성의 전문능력 향상, 사회참여 확대 등 양성평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 ⑥ 수혜도의 성별 격차 존재 시 대안마련 여부

시군별 선정예정인원의 20%이내에서 300점이 넘는 여성 우성 선정조향이 있어 여성 선정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그러나 더많은 여성후계인력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보다 더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다.

**⑦ 여성관련 예산 마련 계획 여부**

해마다 여성선정 목표인원과 그에 대한 예산이 책정되지만 목표치보다 낮게 선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4) 해당사업의 집행결과 전달여부**

**⑧ 집행성과 자료 공개 여부**

농림부 여성정책과에서는 매년 실적점검 보고 및 시행계획 자료를 작성, 발표하고 있다. 그 속에서 집행성과와 자료를 모두 다 공개하고 있으며 성과와 과제를 밝히고 있다. 기관 홈페이지에 이를 공개하고 있다.

**⑨ 사업결과 보고 시 성별내용 포함 여부**

후계인력육성 관련 사업결과 보고 시 성별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성별 선정자수 이외에 보다 자세한 통계는 내고 있지 않다.

**⑩ 사업결과 자료를 관련 공무원들에게 전달 여부**

여성후계인력육성 성과에 대한 사업결과 자료는 관련 공무원들에게 전달되고 있다.

## 2. 영농기술교육 : 품목별 상설교육

### 가. 농업인 심층면접 조사 개요

애초에는 본 연구에서의 분석을 위하여 품목별 상설교육 담당 공무원들과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품목별 상설교육 참여 농업인들에 대한 전화 조사를 실시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담당 공무원들과의 인터뷰 및 사전 전화 인터뷰를 통해서, 품목별 상설교육의 참여자들이 시군에 따라 조금씩 상황은 다르지만, 품목별 연구회의 회원으로서 교육에 참여하는 여성들이 거의 없었으며, 남성들이 참여자의 80~100%에 이르고 있었다.

따라서 여성들에 대한 조사 모집단이 거의 없는 실정이었다. 또한 교육 담당자들이 교육 참여자들의 연락처에 대한 자료 유출을 극도로 꺼려한 이유로 남녀 교육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화 조사를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품목별 상설교육에 참여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실시하는 것이 수혜자로서의 특성과 교육에 대한 만족도 및 고충 등을 이해하고 파악하는데 오히려 많은 정보를 얻을 것으로 판단되어 품목별 상설교육의 경우 정책 사업 수혜자인 농업인에 대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심층면접 대상자는 품목별 상설교육에 참여한 농업인으로서 품목별 연구회 활동도 활발하게 병행하고 있는 농업인들이다.

<표 31> 품목별 상설교육 참여 농업인 심층 면접대상자

구분	성별	참여 품목별	지역	연령	면접 일시
1	여	양봉	공주시	50대	12. 6
2	여	전작(콩)	서산시	60대	12. 7
3	여	화훼	서천군	50대	12. 8
4	남	화훼	서천군	50대	12. 9

## 나. 단계별 분석결과

### 1) 정책 결정 단계

평가 지표	세부 평가 지표	조사 결과	지표활용 권고기관 조사분석 근거
1. 정부의 양성평등 정책방향과 관심사 반영 여부	①정부의 성주류화 정책 인지 여부 ②'여성농업인육성5개년계획' 인지 여부 ③성별영향분석평가 인지 여부	-성 주류화 정책을 인지하고 있지 않음 -육성계획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지 않음 -분석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지 않음	•농진청,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담당자 인터뷰
2. 여성 관련 이슈 파악 여부	④품목별상설교육과 관련한 여성 이슈 확인 여부 ⑤전문농업인육성과 관련한 여성농업인들의 영농기술교육의 중요성 인식 여부	-여성 이슈 확인하지 않음 -대체로 인식하고는 있으나 교육수행과정에서 연관지어 수행하고 있지 않음	•농진청,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담당자 인터뷰
3. 여성의 요구 파악 여부	⑥성별 요구조사 실시 여부	-성별 요구조사 실시하지 않음	•농업기술센터 -담당자 인터뷰
4. 성 인지적 통계자료 수집 및 활용 여부	⑦사업 추진과정에서 성 인지적 통계자료 수집, 활용 ⑧성 인지적 통계 생산 여부 및 생산계획 여부	-성인지적 통계자료 수집 및 활용 안함 -생산하지 않고 생산계획 특별히 없음	•농진청,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담당자 인터뷰 -농촌지도사업지침서 -기술센터업무계획자료
5. 성 인지적 예산 편성 여부	⑨양성에게 균등하게 전달되었는지 여부 ⑩성별 격차 존재시 해결대안 마련 여부 <input type="checkbox"/> 품목별 상설교육 여성관련 예산 항목 유무	-특별히 여성을 배제하지는 않으나 교육 서비스가 남성 중심적인 -해결대안 마련하지 않음 -여성관련 예산 항목 없음	•농진청,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담당자 인터뷰 -농업기술원 계획자료 -기술센터업무계획자료
6. 여성관련 목표 포함 여부	<input type="checkbox"/> 품목별 상설교육의 가치나 이념의 성역할 고정관념 극복 기여 여부	-중점방향에 여성참여증진방안을 목표로 포함하고 있으며, 사업방향은 성역할 고정관념 극복에 기여함	•농림부, 농진청 -농림부사업시행지침 -농진청농촌지도사업지침
7. 여성의 자문참여 여부	<input type="checkbox"/> 젠더전문가, 여성단체의 자문, 의견수렴 여부 <input type="checkbox"/> 품목별 상설교육 관련 위원회 성별 비율	-자문 및 의견수렴 하지 않음 -위원회 구성 및 운영활동 없음	•농림부, 농진청, 농업기술원 -담당자 인터뷰
8. 여성관련 목표달성을 위한 근거 법령 정비 여부	<input type="checkbox"/> 여성 관련 근거법령 및 지침 유무 <input type="checkbox"/> 품목별 상설교육의 기반인 품목별 연구회의 여성가입 권고 및 목표제시 <input type="checkbox"/> 근거법령이 없는 경우 대책마련 계획 여부	-근거법령 및 지침 있음 -가입권고 및 목표제시 없음 -대책마련 계획 없음	•농림부, 농진청, 농업기술원 -농림부사업시행지침 -농진청농촌지도사업지침
9. 담당자의 성 인지성	<input type="checkbox"/> 담당공무원의 성별 비율 <input type="checkbox"/> 담당공무원의 양성평등의식수준 <input type="checkbox"/> 양성평등의식교육 참여 경험 유무	-남성의 비율이 90% 이상 -양성평등의식수준 높지 않음 -참여경험 없음	•농림부, 농진청,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담당자 인터뷰

## 가) 정부의 양성평등 정책방향과 관심사 반영 여부

### ① 정부의 성 주류화 정책 인지 여부

품목별 상설교육의 담당자들은 정부의 성 주류화 정책에 대하여 대체로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전체 농업 인력육성 정책에서 여성 농업인 육성 정책이 갖는 의미나 필요성을 크게 인지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 여성들이 농촌에서 주된 농업 인력으로, 농촌사회 및 농업생산에 여성들의 역할과 기여도가 매우 크다는 것은 인식하고 있었으며, 그에 따라 여성 농업인의 인력육성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도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정부의 성 주류화 정책에 대한 인지도는 중앙 기관보다 농업기술센터의 담당자들이 보다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성 주류화 정책에 대한 인지는 단순히 정부의 정책 방향과 목표, 주요 사업 내용에 대한 인지뿐만이 아니라, 현재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정부의 성 주류화 정책의 실현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을 인식하는 것으로 포함한다.

그러나 인터뷰를 했던 담당자들은 이 양자간의 관계를 분명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이로 미루어볼 때 정부의 성 주류화 정책, 특히 성 인지적인 농업인력육성 정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인력육성 담당자들의 정부 정책 방향을 업무와 연계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이들에게 홍보, 교육, 지침 등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농업인력육성 업무 담당자들이 업무 수행시 준거가 되는 농림부의 《사업시행지침서》와 농진청의 《농촌지도사업지도서》에 농업정책의 성 주류화의 기본 취지와 목표 등을 제시하고, 담당자들이 업무 계획 추진 전에 반드시 숙지하도록 지침을 내려야 한다.

### ② ‘여성농업인육성5개년계획’ 인지 여부

교육 담당자들은 《여성농업인육성법》 및 《여성농업인육성5개년계획》과 같은 여성농업인육성 근거 법령 및 계획을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담당공무원과 담당 지도자들은 대체로 여성농업인 육성과 관련한 법령의 존재 여부에 대하여 생소해 하였다. 담당공무원, 특히 농촌의 일선에서 농업인을 대상으로 직접 교육을 수행하는 지도사들의 경우 여성농업인 육성과 관련한 법령 및 정책계획을 인지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방침을 마련하여 제공해야

하고, 이 방침에 따른 교육계획 수립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특히 농진청에서는 농촌지도사업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국의 농촌지도사들로 구성된 전문지도연구회가 조직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이 전문지도연구회의 활동 지원도 하나의 자체 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다.<sup>8)</sup>

이러한 전문지도연구회의 과제활동이나 특별활동에 여성농업인 육성법 및 여성농업인 육성 5개년 계획 등과 같은 법령과 정책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켜, 전문 농촌지도사들이 여성농업인 육성 정책에 관하여 보다 확실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③ 성별영향분석평가 인지

교육 담당자들은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하여 전혀 인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담당자들은 인터뷰를 하기 위한 사전 접촉이나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이 용어를 처음 접하였다고 하였다.

아직 ‘성별영향분석평가’라는 개념은 공무원들에게 매우 생소한 용어이다. 따라서 농림부 및 산하 기관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연수 및 교육 등에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이를 통하여, 공무원들이 모든 업무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가 가능하고, 이 평가가 앞으로 확대되어 이루어질 것을 인지하며, 더 나아가 이를 토대로 자신의 업무에서 성 인지적 실천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나) 여성 관련 이슈 파악 여부

### ④ 품목별 상설교육과 관련한 여성 이슈 확인 여부

심층면접내용에 따르면, 품목별 상설교육과 관련한 여성농업인 육성의 필요성, 중요성 등에 대한 이슈를 사업 결정 및 추진과정에서 확인하고 있지는 않았다. 담당자들은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교육이 남성과 여성이라는 성별 요소와 특별히 관계가 없는 내용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였다. 따라서 교육의 계획과정에서 여성 농업인과 관련한 현실 및 쟁점에 관한 파악이나 이를 확인

8) 2004년도 전문지도연구회 활동지원 사업은 지원대상이 166개 시·군·도 및 전문지도연구회 소속 지도공무원 2,273명이며, 지원예산은 779백만원이다. 2003년 현재 49개의 전문지도연구회와 한국농업전문지도연구협의회가 조직되어 있다(농진청, 《2004년도 농촌지도사업기본지침서》).



하는 과정은 거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된다.

#### ⑤ 전문농업인 육성과 관련한 여성 농업인의 영농기술교육의 중요성 인식 여부

교육 담당자들은 여성 농업인의 영농기술교육이 전문 농업인 육성에 있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농업생산에 있어 기존의 남성 노동력만으로는 유지되기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며, 그런 점에서 여성들의 영농기술교육도 중요하다는 것을 대체로 인식하고 있었다.

여성들도 영농기술, 경영교육 등의 전문 교육훈련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필요성에 대한 절박함과 필수성에 대해서는 그리 높게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즉, 남성들의 경우 농업인으로서 전문기술을 갖추고 그에 따른 교육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여성의 경우 ‘가능하면’ 혹은 ‘할 수 있다면’ 좋다고 하는 그러한 관점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여성농업인의 전문기술 및 경영교육의 필요성과 이들에 대한 전문 교육훈련이 필수적인 것임을 담당자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 담당자들에 대한 양성평등의식교육을 확대해야 한다.

#### 다) 여성의 요구 파악 여부

#### ⑥ 성별 요구조사 실시 여부

품목별 상설교육을 계획, 운영하는데 있어 특별히 성별 요구조사를 실시하지는 않았다. 성별 요구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이유는 교육 담당자들이 교육 참여자들에게 직접적인 조사 실시는 거의 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의견수렴을 거칠 때에도 성별을 고려하지 않고, 교육 참여자의 대표인 품목별 연구회의 회장이나 임원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묻거나 교육 현장에서 참여자들에게 의견을 묻는 수준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 라) 성 인지적 통계자료 수집 및 활용 여부

#### ⑦ 사업추진과정에서 성 인지적 통계 자료 수집 및 활용 여부

품목별 상설교육의 계획수립 및 추진 과정에서 성별로 분리된 통계는 전혀

수집하지 않고 있으며, 성 인지적 통계를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진청의 《2003년도 농촌지도사업보고서》에는 품목별 상설교육사업의 총 참여 인원이 명기되어 있으나 성별로 구분되어 있지는 않았다.

품목별 상설교육의 중점방향 중의 하나가 ‘여성농업인에 대한 품목별 전문 교육 및 영농기술분야 교육에 참여 증진을 위한 방안 수립 시행’으로 여성농업인에 대한 교육참여를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현재 여성농업인들의 품목별 상설교육 참여도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 파악은 하고 있지 않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농업기술원의 교육실적 통계자료에도 전체 교육참여 인원이 표기되어 있으나 성별로 구분되어 있지 않다. 여성들의 실질적인 교육참여 증진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여성들의 교육참여 실태를 명확하게 파악해야 하며, 관련 담당자들은 성별 분리된 교육참여 인원 집계를 하도록 지침을 내리고, 각 지역의 시군 교육 담당자들은 교육참여 결과자료를 생산할 때 항상 성별로 분리된 집계자료를 만들고, 이를 활용해야 한다.

따라서 품목별 상설교육 계획 인원 및 참여 인원 에 대한 보고 자료를 만들 때, 반드시 성별로 구분하여 인원을 표기하도록 농림부의 《사업시행지침서》와 농진청의 《농촌지도사업지도서》에 보고 표 양식을 제시해야 한다.

다음으로, 농업기술원은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담당자들에게 반드시 성별 구분된 인원집계를 하도록 지침을 내려야 하며, 이를 토대로 자료를 수합하고 농진청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 1> 농업기술센터 작성용 품목별 상설교육 계획 인원

개설 품목	전체 계획인원	성 별	
		남자	여자
A			
B			
C			
D			
□□□			
합 계	명	명	명

<예 2> 농업기술원 작성용 품목별 상설교육 계획인원 및 결과 보고

시군	계획인원	성별		사업결과	성별	
		남성	여성		남성	여성
A						
B						
C						
D						
□						
합 계	명			명		

<예 3> 농촌진흥청 작성용 품목별 상설교육 결과보고

시도	교육인원	성별	
		남성	여성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			
합 계	명	명	명

### ⑧ 성 인지적 통계 생산 여부 및 생산계획

담당자들은 성별로 분리된 통계 작성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했으며, 품목별 상설교육에 대한 교육실적 자료를 축적해오는 과정에서 실적자료에 대하여 성별로 구분된 통계자료를 생산하지 않았다. 또한 앞으로 성별로 분리된 통계자료를 생산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실제 현장에서 교육을 운영하는 농업기술센터의 결과보고자료를 보면, 참석자의 이름을 명단으로 작성하고, 참석한 총 인원을 집계하여 보고자료를 만들었지만, 교육참여 인원 에 대한 통계자료나 명단을 성별로 분리하지는 않았다.

또한 농업기술원이나 농진청에서는 전체 품목별 상설교육의 실적이나 추진 현황에 대한 자료를 분기별로 수집·정리하였지만, 숫자로 된 전체 인원 에 대한 자료를 축적해놓았을 뿐 성별로 분리된 통계를 생산하지 않았다. 성별분리 통계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농진청은 농업기술원에, 그리고 농업기술원은 농업기술센터에 업무계획지시 및 결과보고를 요청할 때, 성별로 구분하여 집계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비록 품목별 상설교육을 포함한 농업인 교육훈련이 시군별로 자율적으로 계획, 운영되는 교육이고, 상부기관에는 교육결과만을 간단하게 알리면 되고, 전반적으로 보고 절차가 간소화되는 경향이 있지만, 적어도 참여인원에 대하여 남녀별로 구분된 통계자료를 생산할 수 있어야 한다.

#### 마) 성 인지적 예산편성 여부

##### ㉑ 양성에게 균등하게 전달되었는지 여부

담당자들은 품목별 상설교육이 남녀 차별 없이 균등하게 전달되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교육 기회의 원천적인 불평등은 없지만, 실제 교육에 참여하게 되는 동기, 현실적 여건, 태도 등에 있어 남성과 여성이 처해 있는 현실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계획 단계에서 고려해야 하나 대부분 이러한 요인들을 고려하지 않고 있었다.

수혜자에 대한 심층면접 결과, 품목별 연구회 회원으로서 품목별 상설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은 교육 참여 열의에 있어 남성과 여성의 성별 간의 차이는 없었으나 여성들의 참여 유형은 회원과 비회원으로 나뉘어져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비회원인 여성들의 경우 대체로 참여 열의가 떨어짐을 알 수 있었다.

품목별 상설교육이 해당 품목의 농사를 짓는 농업인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교육이라는 점에서, 현재 여성이 품목별 연구회의 회원이 아닌 경우가 훨씬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담당자들은 양성에게 이 교육의 혜택을 균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여성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계획 단계에서 모색해야 할 것이다.

##### ㉒ 성별 격차 존재 시 해결대안 마련 여부

품목별 상설교육의 여성참여율은 담당자의 말에 따르면 10%~30%로 매우 낮았다. 담당자들은 이 교육의 참여에 있어 성별 격차가 크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이것을 해소하려는 특별한 대안을 마련하지는 않고 있었다.

다만 교육을 홍보할 때, 부분적으로 부부 참여를 권유하는 소극적인 방법을 활용하였고, 품목별 연구회에 여성참여를 적극 권유하거나 교육에 여성들의 참여를 특별히 독려하지는 않았다.

일부 담당자들은 여성농업인에 대한 교육은 생활개선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많이 수행하고, 그 곳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여성들이 참여할 기회가 많기 때문에, 특별히 품목별 상설교육에 여성들의 참여율을 높여서 성별격차를 줄이는 것이 별 필요가 없다고 인식하는 담당자도 있었다.

앞으로 품목별 상설교육과 같은 영농기술교육에서 성별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특히 여성들이 영농활동에 많이 참여하고 있는 작목과 관련한 교육을 중심으로 여성들의 참여율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 □ 품목별 상설교육사업의 여성관련 예산 항목 유무

품목별 상설교육과 관련하여 여성을 특별히 고려한 예산 항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래 이 사업의 예산이 2003년도에는 시군별로 약 350만원 정도였고, 올해는 축소되어 200만원 정도로 책정되어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200만원의 예산으로 1년에 3~4회 정도의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강사비와 교육 참가자의 식사 제공, 안내장 발송 등의 아주 기본적인 소요경비 지출 외에는 다른 항목으로 쓸 예산의 여력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당자의 성 인지적 의식과 의지에 따라서는 아주 소액의 예산이라도 남성과의 격차가 많이 나타나는 여성 참여를 높일 수 있거나 여성 참가자를 위한 예산을 배정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인터뷰를 한 담당자들은 특별히 이러한 예산을 배정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있지는 않았다.

#### 바) 여성 관련 목표 포함 여부

##### □ 해당사업의 가치나 이념의 성역할 고정관념 극복 기여 여부

농진청의 농촌지도사업지침서와 농업기술원의 농촌지도사업지침서(충남)를 보면, 품목별 상설교육의 중점방향에 여성에 관한 목표가 하나의 사항으로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다. 농촌지도서의 지침서에 따르면, 품목별 상설교육의 목적은 시군별 주력품목에 대한 교육과정을 농업인 품목조직 육성사업과 연계하여 설정하고, 주요 영농시기별로 실천과제교육을 연중 실시함으로써 지역 농축산물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농업인 능력배양으로 명시하고 있다. 특히 교육 중점방향을 6가지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 중에 '여성농업인에 대한 품

목별 전문교육 및 영농기술분야 교육에 참여 증진을 위한 방안 수립 시행'과 같이 여성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 수립을 품목별 상설교육의 중점 방향으로 명백하게 제시하고 있다.

#### 사) 여성의 자문 참여 여부

##### □ 젠더전문가, 여성단체 등의 자문 및 의견수렴 여부

품목별 상설교육 담당 공무원들은 이 사업을 위해 특별히 젠더전문가나 여성단체 등의 자문이나 의견수렴을 거치고 있지 않았다. 해당 교육의 참가자들에게 의견 수렴을 하고는 있었으나 여성들의 교육 참여 제고나 교육 개선을 위해 여성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 절차는 거치지 않고 있었다.

##### □ 품목별 상설교육사업 관련 위원회 성별 비율

품목별 상설교육사업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위원회는 운영되지 않고 있으며,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다.

#### 아) 여성을 위한 목표달성 수단마련을 위한 근거법령 정비

##### □ 여성 관련 근거법령 및 지침 유무

먼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과 《여성농업인육성5개년계획》과 같은 법령 및 계획은 전문농업인 육성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그 체계를 세울 것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교육훈련에는 전문 농업인으로서의 역할에 필요한 농업기술교육을 제공·실시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실제 품목별 상설교육의 시행과 관련한 농림부의 사업시행지침이나 농진청의 농촌지도사업지침을 보면, 품목별 상설교육의 중점 방향에 여성 농업인의 기술 및 전문능력 향상이라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이것은 농림부의 정책방향이 분명히 여성농업인육성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농림부의 기본 방침과 인식이 정책 담당자들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일정 기간이 지나 업무 담당자들이 바뀌어도, 이러한 정책 방침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담당자들의 업무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요인을 항상 고려하도록 시행지침을 마련해

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업시행지침을 성 인지적 관점에서 재정비해야 할 것이다. 모든 인원의 표기는 반드시 성별로 구분하고, 농업기술관련 교육이나 시범 사업 등에서 여성농업인이 배제되지 않도록 명시해야 한다.

#### □ 품목별 상설교육의 기반인 품목별 연구회에 여성 가입권고 및 목표제시 여부

품목별 상설교육은 품목별 연구회 회원들이 주축을 이루며 참여하는 교육이다. 따라서 품목별 연구회 회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이 교육에 참여할 기회와 교육 참여자 및 담당 공무원과의 교류의 폭을 넓히게 된다.

그러나 품목별 상설교육에서는 품목별 연구회 회원이 교육 대상으로 설정되어 있을 뿐, 여성들의 연구회 가입을 적극 유도하거나 연구회 조직을 남녀회원의 공동활동체로 육성하고자 하는 목표 제시가 전혀 없다.

앞으로 전문조직 육성으로서의 품목별 연구회 조직을 여성을 포함하여 육성해야 하며, 이러한 연구회 조직이 품목별 상설교육의 주요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심층면접 결과 교육에 참여하는 여성들의 경우, 교육 참가자의 대다수가 남성이다 보니, 부부가 같이 참여하지 않는 이상 혼자서 참여하는 것을 꾀꼬리워 하고 본인이 아닌 남편이 가는 것을 바라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러한 경향은,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여성들보다는 소극적인 여성들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따라서, 품목별 상설교육의 성별 수혜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일정 비율을 여성 참여자로 목표를 설정하고, 교육 담당자가 적극적으로 여성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 근거법령이 없는 경우 대책마련 계획 여부

교육 담당자들은 근거법령이나 지침의 수정 등에 관한 의견이 별로 없었다. 대부분 면접 조사를 한 담당자들은 근거법령이나 지침을 직접 수정·보완하는데 전혀 관여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자) 담당자의 성 인지성

#### □ 담당공무원의 성별 비율

품목별 상설교육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압도적으로 남성이 많았다. 충남의 경우를 하나의 표본으로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의 업무 담당자들의 성별을 조사한 결과 농업기술센터의 담당자 15명 중 2명을 제외한 13명이 남자였으며, 농림부, 농진청, 농업기술원의 담당자도 모두 남성이었다.

조금 더 확대하여, 품목별 상설교육 업무가 포함된 전반적인 교육훈련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인 해당 과의 담당 공무원들의 성별을 조사한 결과 남성의 비율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sup>9)</sup>

<표 32> 품목별 상설교육 담당공무원 성별 비율

성 별	담당자 성별비율	담당과 직원 성별비율	농촌지도관 성별비율
남 성	13 (86.7)	195 (75.0)	52 (98.1)
여 성	2 (13.3)	65 (25.0)	1 (1.9)
전 체	15 (100.0)	260 (100.0)	53 (100.0)

<표 32>는 충남도내 농업기술센터의 품목별 상설교육 담당자 및 교육훈련 업무 담당자가 소속된 소속과 공무원들의 성별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위 표를 보면, 담당자 성별 비율은 남성이 86.7%, 여성이 13.3%로 남성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담당과 직원의 성별 비율은 남성 75.0%, 여성 25.0%로 나타나고 있다. 담당과 직원 중 여성의 비율이 25.0%를 차지하는 것은 교육훈련 업무 담당계와 생활개선 업무 담당계가 같은 과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생활개선 업무는 대부분 여성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다.

농촌지도관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과장과 소장(센터장)의 직위를 말한다. 사례로 조사한 충남의 경우 과장급과 소장급 농촌지도관 53명 중 1명의 여성을 제외한 52명이 모두 남성으로, 남성 편중도가 매우 심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담당공무원의 성별 비율은 성 인지적 업무 추진에 많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농업기술센터의 경우, 조직 구성원은 지방농촌지도관, 지방농촌지도사, 지방생활지도관, 지방생활지도사, 지방행정직, 별정직, 기능직 등으

9) 직원의 구성 및 성별에 대한 조사는 인터뷰를 실시한 기관에서 담당공무원에게 직접 물어보았으며, 나머지 기관들은 그 기관 홈페이지에 게시된 조직구성 및 담당자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실시하였다. 대부분의 기관들이 담당자들의 업무, 직위, 전자우편 주소, 사진 등을 게시하여 성별 파악이 그리 어렵지는 않았다.



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중에서 농업인에 대한 교육훈련이나 경영 컨설팅, 기술지도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은 농촌지도사이다. 즉, 농업인의 인력육성에서 많은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농촌지도사이며, 농촌지도사업은 이러한 농촌지도사들의 업무인 기술지도 및 교육훈련 업무와 생활지도사들의 업무인 생활개선 업무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sup>10)</sup>

그러나 농촌지도사의 성별 비율 역시 남성이 압도적으로 높고, 반면에 생활지도사의 성별 비율은 여성들이 압도적으로 높아서 성별로 편중된 현상을 보이고 있다.

---

10) 농촌진흥법에서는 농촌지도사업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 농업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 생활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농업인 조직의 육성 ② 농촌청소년 및 후계농업경영인 등 농업후계인력의 육성 ③ 농·축산물의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생산을 위한 우량종자 및 종축의 보급 ④ 시험연구사업에서 개발된 기술의 보급 ⑤ 지역농업의 개발과 농업인의 현장애로기술의 개발 및 보급 ⑥ 농작물병해충의 과학적인 예찰, 방제 정보의 확산 및 기상재해에 대비한 기술지도 ⑦ 농작물의 품질 및 품위향상을 위한 지도 ⑧ 가축질병예방을 위한 방역기술지도

<표 33> 품목별 상설교육 관련 공무원들의 성별 비율

사례 시·군	담당과 직원 성별 비율			농촌지도사 성별 비율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A시	22	15	7	31	25	6
B시	16	9	7(4)	25	17	8
C군	13	9	4	24	23	1
D군	17	12	5(3)	25	21	4
E군	16	12	4(3)	23	20	3
F군	18	15	3	26	24	2
G군	24	21	3(3)	28	26	2

담당과는 품목별 상설교육을 포함한 교육훈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계가 소속된 과를 뜻한다. 시·군 센터에 따라 조직이 조금씩 다르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생활개선 업무를 관장하는 담당계가 포함되기도 하고, 아니면 생활개선 업무가 다른 과에 포함되기도 한다. <표 33>에서 담당과 직원 중 여성의 경우 괄호는 생활개선 담당 직원수를 의미한다. 즉, 예를 들어 B시의 경우 교육훈련 업무를 관장하는 담당과 직원 16명 중 9명이 남성, 7명이 여성인데, 이 7명의 여성 중 4명은 생활개선업무를 담당하는 것을 뜻한다. 결국, 주로 여성농업인이나 농촌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개선업무 외에 농업인의 교육훈련을 관장하는 부서 공무원들의 경우 여성의 비율이 매우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농촌지도사의 비율도 중요한데, 농촌지도사의 업무가 기술지도 및 보급, 교육훈련 등과 같이 농업 인력 육성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농촌지도사의 비율 역시 남성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생활지도 업무의 경우, 생활지도사만이 아니라 여성 농촌지도사가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즉, 전체적으로 농촌지도사의 성별 비율에서 여성 비율이 매우 낮지만, 그나마 낮은 비율을 차지하는 여성 농촌지도사들 중 상당수는 생활지도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충청남도만이 아니라 전국 시도의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유사할 것으로 추정된다. 물론, 생활개선 업무가 주로 생활개선회를 중심으로 하는 여성농업인 및 농촌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많고, 여성들과 접촉해야 하는 업무의 특성상 여성 담당자가 업무 추진이 용이하고, 여성농업인들도 보다

편하게 접촉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그러나 생활개선 업무의 여성 편중 현상은 으레히 여성들이 이 업무를 담당해야 한다는 인식과 관행과도 관련이 있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현상은 역으로, 농업경영이나 기술지도 등의 분야에서 남성 농촌지도사들의 편중 현상을 강화하여 기술교육이나 농업인 경영 상담, 품목별 연구회 등 조직 활동 등에 있어서 여성 농업인들이 적극적으로 농촌지도사와 교류하거나 접촉하는 것을 더 어렵게 할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농업인 대상의 기술지도나 기술교육과 같은 교육훈련의 업무 추진에서 여성농업인의 요구가 도외시될 가능성이 높다.

#### □ 담당공무원의 양성평등의식 수준

담당공무원들의 양성평등의식 수준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물론 기본적으로 농업에서 여성들의 기여도와 역할 증대를 인식하고는 있었지만, 역할 증대 및 기여도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농가의 보조인력으로 여겨지고 현실적인 지위가 낮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대안이나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품목별 상설교육과 같은 영농기술교육에 여성들의 참여가 원천적으로 배제되지 않고 있다는 '기회'의 평등으로, 양성이 차별받지 않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였다.

이로 미루어 보아, 전반적으로 담당 공무원들의 성 인지적 의식은 대체로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기회의 평등을 넘어서, 현실적으로 교육이 남성중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대안들을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담당자들의 낮은 양성평등의식 수준을 개선할 때 농업인력 육성 정책의 성 주류화가 실질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담당자들의 양성평등의식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양성평등의식 교육을 확대하고, 일반적인 업무 지침이나 권고사항에 고정적인 성 역할 관념이나 편견을 극복하고, 여성이나 남성 모두 전문 농업인으로서 육성되어야 함을 강조해야 한다.

#### □ 양성평등의식 교육 참여경험 유무

담당자의 양성평등의식 교육 참여경험은 모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공무원 연수 및 교육에서 양성평등의식 향상, 성 인지정책 등에 관한 내용이 확대 실시되어야 한다.

## 2) 정책 집행 단계

평가 지표	세부 평가 지표	조사 결과	지표활용 권고기관 조사분석 근거
1. 서비스(혹은 자원) 전달 여부	① 해당사업실시를 위한 홍보 또는 정보전달 ② 성별에 따른 홍보, 전달방안 수립 및 활용	-간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미흡함	•농업기술센터 -담당자 인터뷰
2. 성별수해도 파악 여부	③ 해당사업의 성별 수해도 파악 ④ 수해도 격차의 원인파악 노력 여부	-파악하지 않음 -없음	•농업기술센터 -담당자 인터뷰 -교육결과보고자료
3. 성인지적 예산집행 여부	⑤ 성별 예산 집행 여부 ⑥ 여성의 독특한 필요에 의한 추가예산 배정 여부	-성인지적 예산집행 없음 -추가예산 없음	•농업기술센터 -담당자 인터뷰

### 가) 서비스(혹은 자원) 전달 여부

#### ① 품목별 상설교육사업 실시를 위한 홍보 및 전달 여부

홍보 및 서비스의 전달은 품목별 상설교육을 직접 실시하는 농업기술센터의 담당자들이 수행하고 있는 역할이다.

교육 담당자들은 교육을 실시하기에 앞서 기본적인 홍보와 교육 안내를 수행하고 있었다. 홍보 및 정보 전달 방법은 안내장 발송과 전화 연락이 주를 이루었다. 안내장 발송은 편지나 엽서 형태로 보내며, 여기에는 교육일시 및 장소, 교육내용에 관한 안내문이 실려 있는데, 홍보는 교육장소에 따라 조금 다르게 이루어진다. 교육이 센터에서 이루어질 경우, 교육대상자들인 품목별 연구회 회원들에게 메일, 편지 혹은 엽서, 전화 등의 홍보를 하고, 마을회관과 같은 다른 곳에서 이루어질 경우, 마을 사람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마을 이장의 홍보 협조(안내 방송)를 부탁하는 방법을 동원하기도 한다.

교육 담당자에 따라서 품목별 회원의 부인인 여성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차원에서 안내장 발송 시 ‘부부동반’을 권유하는 문구를 넣는 사람들도 있었다.

또한 전화 홍보를 병행하는 담당자들의 경우, 집으로 전화하였을 때 대부분 부인인 여성이 받기 때문에, 그럴 경우 여성들에게 교육참여를 권하기도 한다.

이처럼, 교육 담당자들에 따라서 여성들의 참여를 보다 의식하여 여성 참

여를 좀 더 유도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방법을 활용하는 담당자들은 그렇지 않은 교육 담당자들에 비하여 성 인지적인 의식이 높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 ② 성별에 따른 홍보, 전달방안 수립 및 활용 여부

교육 담당자들은 모두 성별에 따른 홍보나 전달 방안 등을 별도로 수립하거나 활용하지는 않고 있었다. 교육 담당자와 수혜자들에 대한 인터뷰를 한 결과, 품목별 연구회 회원이 아닌 부부동반으로 참석하는 여성들의 경우 교육 참여 열의가 남성들에 비하여 낮은 것으로 보인다. 회원인 여성들의 경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향이 있으나, 회원이 아닌 여성들의 경우 본인이 직접 교육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따라서 이러한 특성을 감안할 때, 품목별 연구회 회원들의 여성참여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교육 담당자들은 회원 및 회원이 아닌 여성들에게 보다 홍보를 강화하고 교육 참여를 독려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 나) 성별 수혜도 파악 여부

### ③ 품목별 상설교육사업의 성별 수혜도 파악 여부

교육 담당자들은 품목별 상설교육의 성별 수혜도 파악은 공식적으로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기술센터의 교육 결과보고 자료를 보면, 전체 참여 인원을 집계하는 정도의 파악은 기본적으로 하고 있었으나 참여 인원을 성별로 분리하고, 특히 성별로 교육 수혜도의 차이나 현황 등에 관한 파악은 전혀 하고 있지 않았다.

다만, 교육 담당자들이 교육을 수행하면서 눈짐작으로 참여자의 성별 인원을 파악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었다.

가장 일선에서 직접 교육을 담당하는 농업기술센터의 성별 수혜도 파악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들의 성별 수혜도 파악이 실제 교육훈련 현장에서의 성별간의 격차나 현실을 직접 보여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하는 품목별 상설교육에 대하여 성별 수혜도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철저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④ 수혜도 격차의 원인 파악 노력 여부

교육 담당자들은 수혜도 격차의 원인 파악을 특별히 하지는 않았다. 다만, 담당자들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들이 성별 수혜도 격차의 원인이 남성 회원들이 주로 참여하고, 농사일에 부부가 모두 빠지기 어려운 여건 상, 여성들이 참여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 다) 성 인지적 예산 집행 여부

##### ⑤ 성별 예산집행 여부

성별 예산집행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품목별 상설교육은 품목별로 교육이 이루어지는데,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참여율을 보이는 여성들을 고려한 예산 집행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 ⑥ 여성의 독특한 필요에 의한 추가예산 배정 여부

여성의 독특한 필요에 의한 추가예산 배정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주로 강사비, 자료인쇄비, 식비 등으로 이루어지며, 성별에 따라, 특히 여성의 독특한 필요에 의한 추가예산 배정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3) 정책집행 후 단계

평가 지표	세부 평가 지표	조사 결과	지표활용 기관 조사분석 근거
1. 사후평가 여부 및 성별분리 평가 여부	①사업수행자 및 수혜자의 성별 만족도 평가 ②품목별 상설교육사업의 지속의향의 조사 여부 ③개선점에 대한 양적, 질적 요구조사	-성별 만족도 평가 없음 -지속의향 조사하고 있음 -개선점에 대한 요구조사	•농업기술센터 -담당자 인터뷰 -기술센터 교육결과보고
2. 양성평등의식변화의 긍정적인 영향 여부	④품목별 상설교육사업이 여성의 전문능력 향상, 사회참여확대 등 양성평등에 영향을 미쳤는가?	-교육참여 여성들의 전문능력향상 등 양성평등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침	•농업기술센터 -담당자 인터뷰
3. 집행성과의 성별영향력 확인 및 대안 마련 여부	⑤양성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왔는가 여부 ⑥수혜도의 성별 격차 존재시 대안마련 여부 ⑦여성 관련 예산 마련 계획 유무	-수혜자가 남성에게 편중됨 -대안마련에 미흡 -별도 여성관련 예산 마련하지 않음	•농진청 •농업기술센터 -담당자 인터뷰 -농업기술원 결과자료 -기술센터 교육결과보고
4. 집행결과 전달여부	⑧집행성과 자료 공개 여부 ⑨사업결과 보고 시 성별 내용 포함 여부 ⑩사업결과 자료를 관련 공무원들에게 전달 여부	-일부 공개함 -결과보고 시 성별 내용 포함 안함 -공개된 자료는 공유함	•농진청,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담당자 인터뷰 -기관 홈페이지

#### 가) 사후평가 여부 및 성별분리 평가 여부

##### ① 사업수행자 및 수혜자의 성별 만족도 평가

심층면접을 했던 교육담당자들은 수혜자들에 대한 만족도 평가를 특별히 공식적으로 실시하고 있지 않았으며, 따라서 성별 만족도 평가도 전혀 실시하고 있지는 않았다. 그러나 영농기술교육의 경우, 농업기술원은 자체 교육을 실시 한 후, 교육 참가자를 대상으로 설문화된 평가지를 배부하고 교육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었다.

##### ② 품목별 상설교육사업의 지속의향의 조사여부

교육 담당자들은 품목별 상설교육의 다음 해 지속 여부와 관련한 의향을 교육 대상자들에게 묻는 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 상설교육의 경우, 품목에 따라 2~3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1년으로 종료하고 다른 품목 교육을 개설하기도 하는데, 이 결정은 교육 담당자가 교육 대

상자인 품목별 회원들에게 의견을 물어서, 교육에 대한 호응도와 교육의 지속 여부에 관한 호응도를 알아본 결과를 토대로 이루어진다.

### ③ 개선점에 대한 양적, 질적 요구 조사 실시

심층면접을 했던 담당 공무원의 경우, 자체적으로 교육 결과 후 결과보고 자료 및 자체 평가자료를 만드는 곳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체 평가자료를 연구자에게 공개하지는 않았는데, 평가내용에 교육에 관한 개선점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개선점에 대한 의견을 묻는 자체 조사를 수혜자에게 실시하지는 않았다. 이로 미루어 보아, 교육이 끝난 후 자체 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개선점에 대한 의견 조사를 자체적으로 약식의 형태로 실시하고 있는 곳도 있음을 알 수 있다.

## 나) 양성평등의식 변화의 긍정적인 영향 여부

### ④ 여성의 전문능력 향상, 사회참여 확대 등 양성평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교육 담당자들은 영농기술교육이 여성들을 전문 농업인력으로 육성하는데 있어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그런 점에서 품목별 상설교육이 여성의 전문능력 향상, 사회참여 확대 등 양성평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대체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심층면접을 했던 여성 농업인 수혜자들의 경우, 품목별 상설교육의 참여 동기는 동종 품목을 경작하는 농업인들과의 기술 및 영농정보 교류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자신이 참여하고 있는 영농 활동을 보다 전문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의지에서 비롯되는 것이며, 그런 점에서 품목별 상설교육이 여성 농업인의 영농 전문능력 향상 및 사회참여 확대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적극적인 소수의 여성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남성들이 주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이 교육에 여성들의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교육 담당자들이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다) 집행성과의 성별영향력 확인 및 대안마련 여부

### ⑤ 양성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왔는가 여부

품목별 상설교육의 참가자 70~80% 이상이 남성이라는 현실은, 이 교육이 현재 양성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왔다고 평가하기는 어렵게 한다. 현실적으로 부부가 같이 영농활동에 종사하는 농가의 경우, 농사일정 상 수확기나 농사일이 매우 바쁜 시기에는 남성, 여성 모두 교육에 참여하기 어렵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농작물 관리를 누군가가 해야 하는 실정에서 대부분 남성이 교육에 참여하게 된다.

따라서 그 과정에서 여성들은 교육 참여기회를 놓치거나 배제되고, 상대적으로 교육에 대한 관심도가 남성보다 떨어질 가능성도 높다. 그러므로 교육 담당자들은 성별에 따라 처해있는 현실이 다르다는 것을 인지하고,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면서 품목별 상설교육에 있어 성별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여성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 홍보, 참여 권유, 배우자인 남성 농업인에 대한 여성 참여의 권유 및 홍보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그리고 이 교육을 계획·수행하는 가장 상부기관인 농림부와 농진청에서는 <사업시행지침서>나 <농촌지도사업지침서>에서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교육 담당자들이 여성 참여를 높이는 노력을 하도록, 여성 참여 비율 목표를 제시하거나 홍보 강화 등의 시행 지침을 반드시 포함해야 할 것이다.

### ⑥ 수혜도의 성별 격차 존재 시 대안 마련 여부

담당자의 인터뷰와 2004년도 업무 계획 자료를 보면, 2003년도 교육결과에 따른 수혜도의 성별 격차를 언급한 내용은 없었다.

교육 담당자들은 교육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혜도의 성별 격차를 알고는 있으나 이것이 갖는 문제점을 별로 인식하지는 않고 있었고, 홍보 과정에서 여성의 참여를 권유하는 담당자들이 일부 있었으나, 대체로 대안 마련은 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된다.

### ⑦ 여성 관련 예산 마련 계획 여부

2004년도 예산 관련 자료를 보면, 자세한 예산 내역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이것으로는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고, 담당자의 인터뷰에 따르면 2004년도에 여성 관련 예산이 별도로 마련되지는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담당자들은 여성 관련 예산을 품목별 상설교육 업무에 마련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라) 집행결과 전달여부

### ㉘ 집행성과 자료 공개 여부

교육 담당자들은 집행성과 자료를 모두 다 공개하지는 않았으며, 담당기관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었다. 기관 홈페이지에 부분적으로 교육결과를 공개하는 곳도 있었지만, 내부적으로 문서화하여 보관만 하는 곳이 더 많았다.

### ㉙ 사업결과 보고 시 성별내용 포함 여부

사업결과 보고 시 성별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았다. 《농촌지도사업보고서》와 품목별 상설교육 결과 보고 자료를 검토한 결과, 전체 실적은 인원수로 파악하고, 참여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첨부하는 경우에도 성별을 구분하지 않았다.

앞으로 모든 사업결과 보고 자료에는 참여자의 성별을 구분하여 표기해야 한다. 또한 성별간에 크게 격차가 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원인 파악과 대안 방침 등을 아울러 포함시켜야 한다.

사업결과 보고에 성별간의 격차를 현격하게 줄였거나 해소한 사례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포함시켜 소개하는 것도 필요하다.

### ㉚ 사업결과 자료를 관련 공무원들에게 전달 여부

농림부의 《농림사업시행지침서》와 농진청의 《농촌지도사업보고서》는 농림부 및 농진청 공무원들이 공람을 하고 업무에 참고를 하고 있으나, 농업기술원이나 농업기술센터에서 생산한 결과 자료는 결재 라인과 관련된 담당 공무원들에게 공람·전달되고, 외부의 관련 공무원들에게는 전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 3. 농업인 정보화 교육

#### 가. 전화조사 개요

본 연구에서는 농업인 정보화교육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연구의 일환으로 농업인 정보화교육을 이수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를 실시하였다. 지역적인 편차를 줄이고자 조사대상자는 “충남”에 거주하면서 2004년도 농업인 정보화교육을 이수한 남녀 농업인으로 한정하였다. 본 전화조사는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와 충남 농업기술센터로부터 2004년에 해당 기관에서 농업인 정보화교육을 이수한 교육생 명단을 제공받아 실시되었다. 조사기간은 2004년 12월 2일부터 16일까지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실시하였으며 훈련된 조사원에 의해 진행되었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총 142명으로 성별로 보면 여성 농업인 75명, 남성 농업인 67명이다. 다음 <표 34>는 성별에 따른 조사대상자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대부분의 조사대상자들은 40, 50대의 고연령층으로 구성되어 30대 이하의 연령층은 7.1%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막내자녀 연령에 따른 가족생활주기를 보면 70%는 막내자녀가 20세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사대상자의 교육수준은 초등학교 졸업 30.4%, 중학교 졸업 29.7%, 고등학교 졸업 34.1%, 대학교 졸업 이상 5.8%로 낮은 편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일 년 평균소득은 절반 정도인 45.1%가 1,000만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나 농가의 소득이 매우 저조한 것을 볼 수 있다.

조사대상자의 농사 경력은 평균 24.8년으로 나타났으며, 여성 21.8년, 남성 27.6년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5.8년 더 길었다. 그리고 영농형태는 논벼 42.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채소 19.4%, 과수 16.5%, 기타 21.6%였다<sup>11)</sup>.

---

11) 자료에 의하면 영농형태는 1990년 논벼 69.7%, 원예 16.1%에서 2003년 논벼 52.2%, 원예 31.7%로서 벼농사를 위주로 하는 농가가 전체 농가의 52.2%로 여전히 가장 많지만 과수·채소·화훼 등 원예농업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영농형태가 남성 위주에서 여성 노동력 의존도가 높은 작목 중심으로 변화하고, 농업 주종사자 비중도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농업 주종사자 중 여성의 비중이 1980년 33.8%에서 1990년 48.3%, 2002년 52.5%로 크게 증가하여 여성농업인의 역할이 점차 증대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34> 성별에 따른 조사대상자들의 개인적 특성  
단위 : 명 (%)

구 분	여 성	남 성	계	
연령	30대 이하	6 ( 8.1)	4 ( 6.0)	10 ( 7.1)
	40대	26 ( 35.1)	12 ( 18.2)	38 ( 27.1)
	50대	38 ( 51.4)	23 ( 34.8)	61 ( 43.6)
	60대 이상	4 ( 5.4)	27 ( 40.9)	31 ( 22.1)
교육수준	초졸 이하	23 ( 31.9)	19 ( 28.8)	42 ( 30.4)
	중졸	21 ( 29.2)	20 ( 30.3)	41 ( 29.7)
	고졸	24 ( 33.3)	23 ( 34.8)	47 ( 34.1)
	대졸 이상	4 ( 5.6)	4 ( 6.0)	8 ( 5.8)
연 가족소득	1000만원 미만	28 ( 40.6)	18 ( 28.1)	46 ( 34.6)
	1000만원대	8 ( 11.6)	6 ( 9.4)	14 ( 10.5)
	2000만원대	5 ( 7.2)	17 ( 26.6)	22 ( 16.5)
	3000만원대	14 ( 20.3)	9 ( 14.1)	23 ( 17.3)
	4000만원대	5 ( 7.2)	4 ( 6.3)	9 ( 6.8)
	5000만원 이상	9 ( 13.0)	10 ( 15.6)	19 ( 14.3)
막내자녀 연령	취학 전	6 ( 8.1)	4 ( 6.1)	10 ( 7.1)
	초등학생	9 ( 12.2)	5 ( 7.6)	14 ( 10.0)
	중고등학생	12 ( 16.2)	4 ( 6.1)	16 ( 11.4)
	20세 이상	46 ( 62.2)	523 ( 78.8)	98 ( 70.0)
	자녀 없음	1 ( 1.4)	1 ( 1.5)	2 ( 1.4)
거주지역 규모	읍	18 ( 24.0)	11 ( 16.4)	29 ( 20.4)
	면	48 ( 64.0)	49 ( 73.1)	97 ( 68.3)
	동	9 ( 12.0)	7 ( 10.4)	16 ( 11.3)
영농형태	논벼	32 ( 43.2)	27 ( 41.5)	59 ( 42.4)
	과수	8 ( 10.8)	15 ( 23.1)	23 ( 16.5)
	채소	13 ( 17.6)	14 ( 21.5)	27 ( 19.4)
	기타	21 ( 28.5)	9 ( 13.9)	30 ( 21.6)
농사 경력	10년 미만	11 ( 18.3)	7 ( 11.1)	18 ( 14.6)
	10~19년	15 ( 25.0)	12 ( 19.0)	27 ( 22.0)
	20~29년	9 ( 15.0)	10 ( 15.9)	19 ( 15.4)
	30~39년	16 ( 26.7)	17 ( 27.0)	33 ( 26.8)
	40년 이상	9 ( 15.0)	17 ( 27.0)	26 ( 21.1)
	평균 경력	21.80 년	27.63 년	24.79 년
계	75 ( 52.8)	67 ( 47.2)	142 (100.0)	

## 나. 단계별 분석결과

### □□ 정책 결정 단계

평가지표	세부 평가지표	조사결과	지표활용 권고기관 조사분석근거
1) 정부의 양성평등 정책방향과 관심사 반영 여부	① 정부의 성 주류화 정책 인지 여부	들어보았지만 인지하고 있지 않음	■ 농림부, 정보센터, 시군센터 ◦ 담당자 인터뷰
	② 여성농업인육성5개년계획 인지 여부	들어보았지만 인지하고 있지 않음	
	③ 성별영향분석평가 인지여부	인지하고 있지 않음	
2) 여성 관련 이슈 파악 여부	④ 정보화교육과 관련한 여성 이슈 확인 여부	여성 관련 이슈 확인하지만, 크게 반영하지는 않음	■ 농림부, 정보센터, 시군센터 ◦ 담당자 인터뷰
	⑤ 전문농업인육성과 관련한 여성농업인들의 정보화교육의 중요성 인식 여부	대체로 인식하고 있지만, 교육 및 수행과정에 크게 반영하지는 않음	
3) 여성의 요구 파악 여부	⑥ 성별 요구조사 실시 여부	기관별 사전 교육수요조사는 하지만, 성별 요구조사 실시하지 않음	■ 농림부, 정보센터 ◦ 관련 문서 및 담당자 인터뷰
4) 성 인지적 통계자료 수집 및 활용 여부	⑦ 추진과정에서 성 인지적 통계자료 수집 및 활용 여부	성 인지적 통계자료 수집 및 활용하지 않음	■ 농림부, 정보센터, 시군센터 ◦ 담당자 인터뷰
	⑧ 성 인지적 통계생산 여부 및 생산계획 여부	성별 통계자료를 생산하고는 있지만 활용하지는 않음	
5) 성 인지적 예산편성 여부	⑨ 양성에게 균등하게 전달되는지 여부	성 인지적 예산편성이 되어 있지 않음	■ 농림부, 정보센터, 시군센터 ◦ 2003년도 사업결과 보고서, 자체 성과분석 보고서 및 담당자 인터뷰
	⑩ 성별 격차 존재시 해결대안 마련 여부	해결대안 마련하지 않음	
	⑪ 정보화교육사업의 여성 관련 예산 항목 유무	여성 관련 예산 항목 없음	
6) 여성 관련 목표 포함 여부	⑫ 정보화교육의 가치이념의 성역할고정관념 극복 기여 여부	여성 관련 목표가 명시되어 있음	■ 농림부, 정보센터, 시군센터 ◦ 2003년도 주요업무 자체평가결과 및 담당자 인터뷰
	⑬ 젠더 전문가, 여성단체의 자문 및 의견 수렴 여부	자문 및 의견수렴 하지 않음	
7) 여성의 자문 참여 여부	⑭ 정보화교육사업 관련 위원회 성별 비율	대부분이 남성	■ 농림부, 정보센터 ◦ 담당자 인터뷰
	⑮ 여성 관련 근거법령 및 지침 유무	없음	
8) 여성 관련 목표달성을 위한 근거법령 정비 여부	⑯ 근거법령이 없는 경우 대책마련 계획 여부	없음	■ 농림부, 정보센터 ◦ 담당자 인터뷰
	⑰ 담당공무원의 성별 비율	남성의 비율 60~70%	
9) 담당자의 성 인지성	⑱ 담당공무원의 양성평등의식 수준	양성평등의식 수준이 높지는 않음	■ 농림부, 정보센터, 시군센터 ◦ 담당자 인터뷰
	⑲ 양성평등의식교육 참여 경험 유무	참여경험 없음	

## 1) 정부의 양성평등 정책방향과 관심사 반영 여부

### ① 정부의 성 주류화 정책 인지 여부

정책과 프로그램을 추진할 때 여성과 남성의 독특한 요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들의 경험과 관점을 고르게 반영하여 특정 성에 대한 편파 없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게 하는 성 주류화 정책을 들어보기는 했으나 인지하지는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농업·농촌에서의 여성인력의 중요성은 인식하고 있었다.

### ② 여성농업인육성5개년계획 인지 여부

1999년에 제정된 「농업농촌기본법」 제14조<sup>12)</sup>와 시행령 7조에 ‘여성농업인육성5개년계획’<sup>13)</sup>의 수립·시행을 규정한 사항 그리고 여성농업인육성5개년계획의 목표와 15개 분야의 정책과제를 들어보기는 했으나 인지하지는 못하고 있었다.

### ③ 성별영향분석평가 인지 여부

‘여성발전기본법’ 제10조(정책의 분석·평가)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정책이 여성의 권익과 사회참여 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평가하여야 한다’는 규정 그리고 2005년부터 행정기관과 광역자치단체에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한다는 점은 심층인터뷰를 하면서 처음 들었으며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

---

12) 1999년에 제정된 『농업·농촌기본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농업정책의 수립·시행시 여성농업인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과 전문인력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여성농업인 육성 규정을 두고 있다.

13) 『여성농업인육성5개년계획』(2001~2005)의 핵심과제는 ◆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문교육훈련기회의 제공, 해외 농업연수, 후계여성농업인 육성 ◆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을 제고시키기 위한 농가도우미 제도의 도입, 모자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 ◆ 여성농업인의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농림 관련 위원회의 여성참여 확대, 협동조합 참여 확대, 여성농업정책 전문가 DB 구축, 여성농업인센터 설립 등이다.

## 2) 여성 관련 이슈 파악 여부

### ④ 정보화교육과 관련한 여성 이슈 확인 여부

농업인 정보화교육 사업과 관련하여 사회적 관심이나 고려의 대상이 되고 있는 여성의 이슈가 무엇인지를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정책에 반영하려는 노력 여부는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출발점이라 볼 수 있다.

농림부 『2003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에 의하면 3.0%만이 현재 농업과 관련해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66%는 집에 컴퓨터도 가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며, 24.3%는 집에 컴퓨터가 있지만 자신은 사용할 줄 모르고 있어 여성농업인 중 90% 가량이 컴퓨터이용 기술을 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6.8%는 컴퓨터는 사용할 줄 알지만, 농업과 관련해 이용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여성농업인의 정보화교육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담당자들과의 심층인터뷰에 의하면 정보화의 여건이 여성농업인에게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남성들은 대외적 활동으로 인해 정보화를 접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지만, 여성들은 가정 내에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정보화교육의 경우 오히려 여성농업인의 교육 효율성이 증대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담당자에 의하면 농업인 정보화교육의 목표는 농업인들의 정보격차 해소라고 하였다. 즉 성별 격차도 중요하지만 더욱 심각한 것은 “도·농간의 격차”라는 점을 지적하였다<sup>14)</sup>. 그리고 정보화교육이 남녀 모두에게 정보공유기회를 균등하게 한다는 점에서 기여하는 바가 있다고 하였다.

한편 본 연구조사를 통하여 조사대상자들의 정보화 관련 특성을 알아보았는데, 다음의 <표 35>는 성별에 따라 구분한 것이다. 조사대상자 대부분은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컴퓨터 보유 여부를 보면 88.7%가 컴퓨터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는 대상자들에 한정하여 컴퓨터의 용도를 살펴보면, 16.7%만이 농업과 관련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농업과 관련하여 컴퓨

---

14) 전반적으로 교육수준이나 소득수준이 떨어지는 농촌지역은 도시와 정보화격차가 심화될 전망이다. 이러한 정보격차는 곧 소득기회의 격차로 이어질 우려가 큰 정보화 사회에서는 정보인프라의 균형된 구축 등을 통한 정보격차의 해소 노력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기 때문이다.

터를 사용하고 있는 비율이 여성 12.1%, 남성 21.7%로 남성농업인들이 높게 나타났다.

<표 35> 성별에 따른 조사대상자들의 정보화 관련 특성

구 분		여 성	남 성	계	
컴퓨터 보유 여부	있다	66 ( 88.0)	60 ( 89.6)	126 ( 88.7)	
	없다	9 ( 12.0)	7 ( 10.4)	16 ( 11.3)	
컴퓨터 있는 경우	컴퓨터 용도	PC통신 인터넷	21 ( 31.8)	22 ( 36.7)	43 ( 34.1)
		정보자료관리	8 ( 12.1)	6 ( 10.0)	14 ( 11.1)
		농업 관련	8 ( 12.1)	13 ( 21.7)	21 ( 16.7)
		기타	29 ( 43.9)	19 ( 31.7)	48 ( 38.1)
	주된 사용자	본인	14 ( 21.2)	36 ( 60.0)	50 ( 39.7)
		배우자	4 ( 6.1)	1 ( 1.7)	5 ( 4.0)
		자녀	35 ( 53.0)	19 ( 31.7)	54 ( 42.9)
		기타	13 ( 19.7)	4 ( 6.7)	17 ( 13.5)
	인터넷 활용도	이용하지 않는 편	30 ( 42.3)	20 ( 30.3)	50 ( 36.5)
		가끔	23 ( 32.4)	13 ( 19.7)	36 ( 26.3)
이용하는 편		18 ( 25.4)	33 ( 50.0)	51 ( 37.2)	

컴퓨터의 주된 사용자는 여성농업인의 경우 본인 21.2%, 남편 6.1%, 자녀 53.0%, 기타 19.7%, 남성농업인의 경우 본인 60.0%, 부인 1.7%, 자녀 31.7%, 기타 6.7%로 나타나 여성과 남성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chi^2=20.75$ ,  $p<0.001$  수준).

또한 인터넷의 활용도를 보면 ‘이용하지 않는 편’이라고 응답한 여성은 42.3%, 남성은 30.3%인데 반해, ‘이용하는 편’이라고 응답한 여성은 25.4%, 남성은 50.0%로 나타나 남녀간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chi^2=9.02$ ,  $p<0.05$  수준).

따라서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사용용도, 주된 사용자 그리고 인터넷 활용도 측면에서 볼 때 남녀간의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므로 이러한 특성을 고려한 정보화교육의 여성 이슈를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⑤ 전문농업인육성과 관련한 여성농업인들의 정보화교육의 중요성 인식 여부

담당자와의 심층인터뷰에 의하면, 농업정책 관련 사업 중에서 정보화교육은 핵심보다는 주변적인 사업으로 여겨진다고 하였다. 다음 <표 36>에서 보여지듯이 농업인 정보화교육은 기초적인 차원에서의 정보화교육 과정에서는 남녀 비율이 큰 차이가 나지 않지만, 전문과정의 경우에는 남녀간에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전문농업인육성과 관련한 여성농업인들의 정보화교육의 중요성까지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표 36> 2003년 농업인 정보화교육 성별 교육실적

과 정		횟수	인원	여성	남성
컴퓨터·인터넷 활용 (기초 교육)	컴퓨터활용	853	17,032	7,897 ( 46.4%)	9,135 ( 53.6%)
	인터넷활용	156	3,094	1,538 ( 49.7%)	1,556 ( 50.3%)
	소계	1,009	20,126	9,435 ( 46.9%)	10,691 ( 53.1%)
농업정보 활용 (중급 교육)	유통정보활용교육	573	11,260	5,376 ( 47.8%)	5,884 ( 52.3%)
	품목정보이용교육	52	999	436 ( 43.7%)	563 ( 56.4%)
	경영분석교육	31	584	248 ( 42.5%)	336 ( 57.5%)
	소계	656	12,843	6,060 ( 47.2%)	6,783 ( 52.8%)
농업정보 전문 과정 (전문 교육)	양돈정보화과정	8	145	29 ( 20.0%)	116 ( 80.0%)
	가축자가사료배합정보화	1	19	0 ( 0.0%)	19 (100.0%)
	낙농정보화과정	6	108	24 ( 22.2%)	84 ( 77.8%)
	화훼정보화과정	3	56	24 ( 42.9%)	32 ( 57.2%)
	정보화선도자교관교육	7	119	38 ( 31.9%)	81 ( 68.1%)
	농산물전자상거래활용	38	729	283 ( 38.8%)	446 ( 61.2%)
	정보분석활용	63	1,118	431 ( 38.6%)	687 ( 61.5%)
	과일정보화과정	4	85	27 ( 31.8%)	58 ( 68.2%)
	소계	130	2,379	856 ( 36.0%)	1,523 ( 64.0%)

※ 출처 : 농림부, 농업인 정보화교육 사이트 AFFIS 자료<sup>15)</sup> 재구성

15) 농업인 정보화교육 사이트 AFFIS 에서는 교육관리시스템을 통해 전국 지역농협, 시군 기술센터, 지자체로부터 입력받아 교육현황을 과정별·시행기관별·교육내용별로 세분화하여 교육관리 DB를 구축하고 있다.

### 3) 여성의 요구 파악 여부

#### ⑥ 성별 요구조사 실시 여부

여성의 요구를 파악하는 것은 여성의 이슈를 확인하는데 기초적인 작업이 될 수 있다. 여성의 이슈가 간과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여성들이 사업과 관련하여 가지고 있는 요구에 대한 어떠한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일 수 있다. 사업의 계획 결정단계에서 농업인 정보화교육 수혜자 집단에 대한 요구 조사는 매우 기초적인 과제라고 생각되기 쉽지만 이는 매우 흔하게 간과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정보화교육에 대한 여성의 요구 파악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이 교육을 통해 여성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여성들로 하여금 이 교육에 대한 참여를 약화시키거나 중지시키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남성과 차별된 여성의 요구와 사회경제적 계층이나 연령, 학력 등에 따른 여성 집단내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담당자가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그 결과 파악된 여성의 요구는 무엇인지를 분석하는 게 필요하다. 즉 여성농업인들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나 만남을 가졌는지, 정보화교육과 관련한 데이터나 지표들을 분석하였는지, 사업수요를 조사할 때 성별을 고려한 조사를 하였는지 등을 알아보았다.

매년 농업인 정보화교육 기본계획 수립시 기초자료로 사용하고자 교육 해당 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에 대해 사업량을 기준으로 기관별 교육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예산에 맞춰 사업량을 결정하기 때문에 교육과정별 횟수 결정을 도(道) 차원에서, 시·군 차원에서 그리고 시행기관별로 자료가 산출된다. 그러나 성별에 따른 요구조사는 실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조사연구에서는 농업인 정보화 수혜자 대상으로 정보화교육을 수강한 동기를 질문하여 성별 요구에 있어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다음 <표 3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성과 남성간의 수강 동기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p < 0.01$  수준). 여성 농업인의 경우 66.7%, 남성 농업인의 경우 50.7%가 컴퓨터 및 인터넷에 대한 기초지식을 얻기 위해 수강하였다고 응답하여 남성보다는 여성농업인들이 더 많았다. 하지만 영농활동에 활용하거나 농업정보이용에 도움을 받으려고 했다는 응답은 여성의 경우 6.7%인데 반해 남성은 34.3%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여성은 컴퓨터와 인터넷에 대한 기초지식을 위하여, 남성의 경우는 영농활동이나 농업에 도움을 얻고자 정보화교

육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표 37> 농업인 정보화교육의 성별 수강 동기

구 분	여성	남성	계	$\chi^2$
컴퓨터·인터넷에 대한 기초지식 획득	50 ( 66.7)	34 ( 50.7)	84 ( 59.2)	18.18**
영능활용 및 농업정보이용	5 ( 6.7)	23 ( 34.3)	28 ( 19.7)	
농가소득 향상	7 ( 9.3)	5 ( 7.5)	12 ( 8.5)	
일상생활 활용 및 자녀교육·지도	5 ( 6.7)	2 ( 3.0)	7 ( 4.9)	
새로운 것에 대한 학습	3 ( 4.0)	1 ( 1.5)	4 ( 2.8)	
주변인의 권유	2 ( 2.7)	1 ( 1.5)	3 ( 2.1)	
기타	3 ( 4.0)	1 ( 1.5)	4 ( 2.8)	

\*\* :  $p < 0.01$  수준

다음 <표 38>은 정보화교육을 이수한 농업인들에게 희망 교육시간대를 질문하여 성별로 구분한 것이다. 여성은 오전 26.7%, 오후 22.7%, 저녁 24.0%이며 남성은 오전 22.4%, 오후 13.4%, 저녁 38.8%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여성들의 경우 고른 시간대 분포를 보인 반면, 남성의 경우는 여성보다 저녁 시간대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8> 성별 희망 교육시간대

구 분	여성	남성	계	$\chi^2$
오전	20 ( 26.7)	15 ( 22.4)	35 ( 24.6)	6.49
오후	17 ( 22.7)	9 ( 13.4)	26 ( 18.3)	
저녁	18 ( 24.0)	26 ( 38.8)	44 ( 31.0)	
상관 없다	3 ( 4.0)	6 ( 9.0)	9 ( 6.3)	
기타	17 ( 22.7)	11 ( 16.4)	28 ( 19.7)	

성별에 따른 정보화교육의 수강 동기 그리고 희망시간대 결과에서 보여지듯이 남녀간의 요구가 서로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농업인 정보화교육 담당자들은 사업을 계획할 때 다양한 요구를 가지고 있는 개인으로서 수혜자의 요구를 정확하게 조사하고, 특히 성별로 다른 경험과 상황, 요구를 민감하게 파악하여 계획·운영해야 한다.

#### 4) 성 인지적 통계자료 수집 및 활용 여부

##### ⑦ 추진과정에서 성 인지적 통계자료 수집 및 활용 여부

농업인 정보화교육의 세부 계획 수립 및 업무추진과정에서 성 인지적 통계는 수집되지 않으며, 또한 활용되지도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⑧ 성 인지적 통계생산 여부 및 생산계획 여부

성 인지적 통계는 여성이 경험하고 있는 현실적 장애를 파악할 수 있는 기초자료이다. 통계생산을 위한 기초조사에서는 성별과 관련된 자료가 수집되지만 통계생산자에게 성 인지적 관점이 없는 경우 성별 분리된 통계가 생산되지 않고 정책수립에서 활용될 수도 없다.

농업인 정보화교육 사이트 아피스(AFFIS)에 들어가면 교육생 이수상황 통계가 있어 성별, 과정별, 지역별, 연령별로 구분되어 농업인 정보화교육 이수율이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성별로 분리된 집계자료를 만들고는 있으나, 구체적으로 이러한 자료를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는데 활용하고 있지는 않았다.

#### 5) 성 인지적 예산 편성 여부

##### ⑨ 양성에게 균등하게 전달되는지 여부

예산을 통해 사업의 실질적인 우선순위가 결정되며 예산은 사업집행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자원이기 때문에 성 인지적 예산편성은 매우 중요하다 볼 수 있다. 성 인지적인 사업이 계획 수립되었다고 해도 이를 뒷받침

해 줄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여성과 관련된 예산이 실제로 뒷받침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살펴본 농업인 정보화교육 예산<sup>16)</sup>은 성별에 따른 예산편성은 없으며 담당자는 정해진 예산을 배분하여 지원하는 기능을 담당하는데 그치고 있었다.

#### ⑩ 성별 격차 존재시 해결대안 마련 여부

농업인 정보화교육은 참여율에 있어서 다른 교육과 달리 남녀 격차가 그리 크지는 않았다(여성 42.6%, 남성 57.4%). 따라서 담당자들은 교육 참여율에 대한 성별 격차에 별 관심이 없었으며 여성참여를 높이기 위한 별도 예산편성을 하는 등의 해결 대안을 마련하고 있지 않았다.

#### ⑪ 정보화교육사업의 여성 관련 예산 항목 유무

농업인 정보화교육사업의 여성 관련 예산 항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6) 여성 관련 목표 포함 여부

16) 2003년 농림부 예산은 8,818,646백만원인데 비해 농업인 정보화교육 전체 예산은 다음 <표 39>에서 보는 바와 같이 2,700백만원이다. 따라서 비율로 보면 0.03% 수준으로 농림부 사업의 마이너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표 39> 연도별 예산집행 실적 (2003. 12. 31.기준) (단위:백만원,%)

세부 사업명	연도	예산	집행액	집행율
농업인 정보화교육지원	2001년	3,000	2,858	95.3
	2002년	3,700	3,345	90.4
	2003년	2,700	2,700	100

※ 연도별 예산집행실적은 매년 12월말 실적집행액 기준으로 작성  
 ※ 출처 : 농림부, 자체 성과분석 보고서(농업인 정보화교육), 2004. 3.

## ⑫ 정보화교육의 가치이념의 성역할고정관념 극복 기여 여부

2003년도 주요 업무에 대한 자체평가결과에 의하면 “여성농업인 정보화교육은 농협 및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에서 실시하는 교육대상 인원의 35%를 여성으로 선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 40% 이상의 수료율을 기록하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sup>17)</sup>.

이렇듯 농업인 정보화 업무계획에는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으나 정보화교육 수혜자 선정에 있어 여성과 남성의 차이는 고려되지 않았다. 사업목표가 수량화되어 있어 양적인 목표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또한 담당자들과의 심층인터뷰에 따르면, 담당자들은 농업인 정보화교육은 성별에 관계없이 참여할 수 있다는 점, 특히 성별보다는 도시와 농촌간의 커다란 갭, 그리고 농번기의 교육생 확보의 어려움으로 굳이 여성 참여율을 목표로 설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 또한 여성 관련 목표수립도 좋다고는 하나,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인지하지 못한 단계로 보이고, 부득이 성별에 따라 사업의 혜택이 돌아가게 하려면 오히려 남성을 고려한 사업 개발이 더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 7) 여성의 자문 참여 여부

### ⑬ 젠더 전문가 또는 여성단체의 자문 및 의견 수렴 여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여성들의 요구를 확인하기 위하여 젠더 전문가 또는 여성단체의 자문 및 의견 수렴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여성과 남성은 각기 다른 삶의 경험에서 비롯된 독특한 이해와 요구를 가지고 있으며 정책과정에서 이를 대표할 수 있는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자문이 보장되는 것이 사업의 양성평등을 제고하는데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농업인 정보화교육에서는 젠더 전문가 또는 여성단체의 자문 및 의견 수렴을 하고 있지 않았다.

---

17) ○ 99 농업인 정보화교육 계획을 보면 추진방향 중 “여성농업인 정보화교육 기회 확대”를 명시적으로 포함. 또한 추진내용 중 교육대상 부분에서 “전업농 등 지역농업인(여성농업인후계자·마을 부녀회원 등 우선 포함)”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음.

○ 98 농업인 정보화교육 계획을 보면 기본 방향에 “농업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육 실시 - 중진 남성 농업인 위주의 교육에서 여성후계자 등 여성농업인의 교육기회 확대”를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음.

#### ⑭ 정보화교육사업 관련 위원회 성별 비율<sup>18)</sup>

담당자와의 심층인터뷰에서는 정보화교육과 관련된 위원회는 없으며, 필요에 따라 협의회를 운영하고는 있다고 하였다. 이 협의회의 경우 비정기적으로 교수 및 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운영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평가위원도 정해진 것이 아니라 매년 교수들과 정보화교육 관련 담당자들로 구성되고 있었다<sup>19)</sup>. 또한 위원들을 선정할 때 성을 고려하지는 않는다고 한다. 관련기관 담당자가 오기 때문에 그 담당자가 여성이면 여성의 비율로 계산이 될 뿐이다. 대략적으로 전체 위원 중 여성은 1, 2명에 불과하여 여성의 비율은 10~20% 수준이다.

#### 8) 여성 관련 목표달성을 위한 근거법령 정비 여부

#### ⑮ 여성 관련 근거법령 및 지침 유무

농업인 정보화교육 사업에 있어 여성 관련 목표달성을 위한 수단이 적절한지를 보기 위해 근거법, 시행령, 시행규칙, 규정 등을 정비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담당자들과의 심층인터뷰 결과 여성 관련 근거법령은 없음을 확인하였다<sup>20)</sup>.

---

18) 정보화교육사업 관련 위원회는 아니지만, 농림부 전체의 위원회 구성은 2003년도 주요 업무에 대한 자체평가결과에 의하면 “농정관련위원회 여성참여는 정부목표 32%를 초과하여 36%수준 유지에 차질 없도록 추진 (2003년 11월 현재 17개 위원회의 위촉직 237명 중 85명을 여성으로 위촉 35.9%)...”이라고 밝히고 있다.

19) 2003년 농업인 정보화교육 평가위원 위촉 및 평가위원회 참석 요청 공문에 의하면 “2003년도 농업인 정보화교육 전반에 대한 평가를 통해 우수기관 및 공로자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고자”평가위원 위촉 및 평가위원회 개최”그리고 “수신자 : 농촌진흥청장(지원기획과장), 농협중앙회장(이종범과장),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사장(교육팀장), 한경대학교 이학교 교수, 유한대학 서보환 교수, 한국정보문화진흥원장(교육기획팀장), 국가전문행정연수원장(교육과장)”에서 볼 수 있듯이 성별을 고려한 위원회 구성은 아니라고 하였다.

20) 『정보화촉진기본법』에서 제시한 일반 정보화 개념을 성 인지적 관점에서 재정 의하고 새롭게 의미를 설정함에 따라 여성 정보화교육의 방향과 목표를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즉 여성 정보화교육의 방향은 여성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정보화교육을 통한 여성의 인적자원개발 및 사회참여를 확대시키며, 새로운 여성정보문화를 확산하는데에 있다. 그러므로 여성 정보화교육의 목표는 여성의 정보격차 해소, 여성의 경제적 자립 및 전문적인 정보능력개발을 통한 경제 사회활동 참여의 확대, 여성정보문화의 확산, 여성과 국가발전의 사회적 시너지 효과 증대 등에 있다.

## ⑯ 근거법령이 없는 경우 대책 마련 계획 여부

근거법령이 없기 때문에 대책 마련 계획 여부를 확인한 결과,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서도 설명했듯이 농업인 정보화교육은 성별에 관계없이 참여할 수 있고, 성별보다는 도시와 농촌간의 커다란 갭, 그리고 농번기의 교육생 확보의 어려움으로 굳이 여성 관련 목표달성을 위한 근거법령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하였다.

## 9) 담당자의 성 인지성

### ⑰ 담당공무원의 성별 비율

담당공무원의 성별 비율은 성 인지적 업무추진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 농업인 정보화교육을 담당하는 공무원은 여성보다는 남성이 더 많다. 농림부 정보화담당관실의 경우 여성 1명, 남성 2명으로 총 3명이며, 농림수산정보센터 정보교육팀의 경우 여성 2명, 남성 3명으로 총 5명으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경우 농업인 정보화교육만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몇몇 업무를 함께 맡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성별 비율을 제시하기는 어렵지만 일례로 충남 16개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정보화교육을 포함한 교육훈련 부서의 담당공무원들의 성별을 조사한 결과 총 260명 중 여성 65명, 남성 195명으로 여성 25.0%, 남성 75.0%로 구성되었다.

하지만 이 비율은 농업인 대상의 여타 교육에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여성의 비율이 다소 높은 편이라고 볼 수 있다<sup>21)</sup>.

### ⑱ 담당공무원의 양성평등의식 수준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계획들이 설계될 때 성 인지적 관점이 준수될 수 있기 위해서는 담당자의 성 인지성이 매우 중요하다. 즉 담당자가 단순히 기계적으로 사업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현안이 되고 있는 성별 이슈를 인지하

---

21) 담당자에 의하면 정보화교육의 경우 (전통적인) 다른 업무 담당자에 비하여 전문적이기 때문에 여성을 배제하거나 차별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리고 앞서서 살펴본 품목별 상설교육 담당공무원의 성별 비율은 남성 86.7%, 여성 13.3%로 남성의 비율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



고 사업과 관련된 여성의 요구를 이해하고 있는지, 양성평등적 의식과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성 분석 등 성 주류화를 위한 방법론이나 양성평등의식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 사업추진과정에서 집행자의 성 인지성을 제고하기 위해 교육이나 훈련, 자료, 자문 등 가장 효과적인 수단을 파악하고 이를 제공하였는지 등이 분석되어야 한다.

그러한 맥락에서 살펴보면, 농업인 정보화교육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양성평등의식 수준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물론 담당자 스스로는 “여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양성평등적이다”라고 하며, 농업과 관련된 다른 공무원들에 비하면 정보화교육 담당공무원들은 덜 보수적이고 양성평등적이라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성 인지적 관점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다.

### ⑨ 양성평등의식 교육 참여경험 유무

담당자의 양성평등의식 교육 참여 경험 항목에 대해서는 담당자 모두 그러한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 정책집행 단계

평가지표	세부 평가지표	조사결과	해당 부서 및 평가 근거
1) 서비스 (혹은 자원) 전달 여부	① 정보화교육 실시를 위한 홍보 또는 정보전달 여부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홍보를 하고 있으나 큰 효과가 없음	▪정보센터, 시군센터 ◦ 2003년 사업결과 보고서 및 담당자 인터뷰
	② 성별에 따른 홍보, 전달 방안 수립 및 활용 여부	성별에 따른 홍보는 없음	▪정보센터, 시군센터 ◦ 담당자 인터뷰
2) 성별 수혜도 파악 여부	③ 정보화교육의 성별 수혜도 파악 여부	매 회 파악하고 있으나 성별로 분리하여 파악하고는 있지 않음	▪농림부, 정보센터, 시군센터 ◦ 농업인정보화교육사이트(AFFIS)자료 및 담당자 인터뷰
	④ 수혜자 격차의 원인 파악 노력 여부	파악하고 있지 않음	▪농림부, 정보센터, 시군센터 ◦ 담당자 인터뷰
3) 성 인지적 예산집행 여부	⑤ 성별 예산집행 여부	성 인지적 예산집행 없음	▪농림부, 정보센터, 시군센터 ◦ 2003년 사업결과 보고서 및 담당자 인터뷰
	⑥ 여성의 독특한 필요에 의한 추가예산 배정 여부	추가 예산 배정 없음	▪농림부, 정보센터, 시군센터 ◦ 담당자 인터뷰

## 1) 서비스(혹은 재원) 전달 여부

### ① 정보화교육 실시를 위한 홍보 또는 정보전달 여부

이 항목은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정보나 서비스가 정책수혜대상자들에게 체계적으로 전달되고 있는가를 분석하는 것이다. 여성은 남성보다 활동영역이 제한적이고 사회적 연계망이 취약하기 쉽기 때문에 자신과 관련이 있는 사업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도 소외되기 쉬우며, 이러한 정보의 취약성은 여성이 실질적인 사업수혜자가 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농업인 정보화교육 담당자들이 정보화교육과 관련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실행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03년도 농업인 정보화교육 사업결과보고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교육생을 확보하고 있다. 첫째, 정보화교육 안내에 대한 홍보물 제작, 배포·활용이 있다. 교육 이수자, 아피스 회원, 농업인 단체 등에 교육안내 홍보물(리플렛)을 발송하여 교육수요를 창출하고 있다(5월, 30만부 제작). 또한 교육시행기관(지역조합, 농업기술센터, 농과대학, 정보센터 등)에서 자체 홍보물 제작, 배포하여 교육생을 모집하고 있다. 그리고 농업인 정보화 교육 관련 제작·배포하는 책자에 2003년 정보화사업 안내 홍보물에 첨부하여 제작, 배포를 실시하고 있다. 둘째, 언론, 대중매체를 통한 정보화교육 안내이다. 농업전문지에 정보화교육 안내를 광고하여 교육수요를 창출하며(1회), 시행기관에서 지역신문(자체신문, 회보 등) 등에 정보화교육 계획을 안내하여 교육생을 확보하고 있다. 그리고 정보화 교육성과를 방송, 신문 등에 보도(기사)하여 교육수요를 창출하고 있다. 셋째, 지자체, 농업관련단체 등에 정보화교육 실시 안내 및 교육생 확보에 대한 협조를 의뢰하여 교육생을 모집하고 있다. 넷째, 농업인 대상으로 실시하는 행사 등에 참여하여 교육안내 및 수요를 조사한다. 농업인의 날 행사 또는 홈페이지 경진대회 등의 행사에 참관하는 농업인 대상으로 홍보를 실시한다. 다섯째, 정보화교육 과정에서 교육수강생을 대상으로 다른 과정의 정보화교육과 농업인 온라인 원격교육 사이트 등을 안내하여 교육 참석 농업인이 다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담당자들과의 심층인터뷰에 의하면 농업인 정보화교육 실시에 앞서 홍보 및 교육안내를 하고 있는데, 홍보 및 교육안내 전달 방법은 신문 방송을 이용한

보도자료, 매년 홍보비를 책정하여 제작한 팸플렛 및 포스터, 시행기관 자체 홈페이지, 지역신문 및 지역방송 그리고 이장회의 시 자료 제공 등이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홍보 및 교육 안내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며, 또한 농업인들의 정보화교육에 대한 저조한 관심, 교육시기를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농사일로 한창 바쁠 때는 홍보가 아니라 끌고와도 교육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농한기나 농업인의 요구 시기에 가능한 맞춰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토로하였다.

다음의 <표 40>은 농업인 정보화교육의 인지 경로를 제시하고 있다.

<표 40> 농업인 정보화교육의 인지 경로

구 분	빈도 (%)
인터넷 홈페이지의 교육안내	4 ( 2.8)
팸플렛이나 안내문	12 ( 8.5)
지역신문이나 방송	6 ( 4.2)
주변사람(이웃·친구 등)	24 ( 16.9)
농업 관련기관(시·군청, 농업기술센터, 농협 등) 담당자	82 ( 57.7)
기타	14 ( 9.9)

<표 38>에 의하면 농업인 정보화교육의 인지 경로 중 인터넷 홈페이지의 교육안내, 팸플렛이나 안내문 그리고 지역신문이나 방송 등은 별 도움이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인의 57.7%가 농업 관련기관 담당자들이 알려줘서 알게 되었고, 16.9%는 주변사람(이웃, 친구 등)을 통해 알게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 ② 성별에 따른 홍보, 전달 방안 수립 및 활용 여부

농업인 정보화교육 담당자들 모두 성별에 따른 홍보 및 전달 방안을 별도로 수립하거나 활용하고 있지 않았다. 여성들의 참여를 보다 의식하여 여성 참여를 유도하는 경우 성 인지적인 관점을 활용한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정보화교육의 경우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조사에서는 농업인 정보화교육 수혜자 대상으로 정보화교육을 알게 된 경로를 성별로 살펴보았다. <표 4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보화교육을 알게 된 경로는 남녀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남녀 모두 시·군청, 도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농협 등의 농업 관련기관 담당자들을 통해

서 알게 되었다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여성 54.7%, 남성 61.2%). 하지만 농업 관련기관 담당자들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는 비율이 남성이 여성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여성보다 남성들이 농업 관련기관을 더 방문하거나 관련 담당자들과 접촉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표 41> 농업인 정보화교육의 성별 인지 경로

구 분	여성	남성	$\chi^2$
인터넷 홈페이지의 교육안내	2 ( 2.7)	2 ( 3.0)	2.89
팜플렛이나 안내문	6 ( 8.0)	6 ( 9.0)	
지역신문이나 방송	5 ( 6.7)	1 ( 1.5)	
주변사람(이웃·친구 등)	14 ( 18.7)	10 ( 14.9)	
농업 관련기관 담당자	41 ( 54.7)	41 ( 61.2)	
기타	7 ( 9.3)	7 ( 10.4)	

따라서 농업인 정보화교육 사업의 홍보와 정보를 농업인들에게 적극적으로 전달하고자 한다면 성별로 다른 방안을 모색하고 실행해야 한다.

## 2) 성별 수혜도 파악 여부

### ③ 정보화교육의 성별 수혜도 파악 여부

담당자들은 정보화교육의 성별 수혜도 파악을 매 회 교육이 실시될 때마다 집계하고 있었다. 다음의 <표 42>는 2003년 농업인 정보화교육 교육생의 남녀 수와 비율을 제시한 것이다<sup>22)</sup>. 초급 과정인 ‘컴퓨터·인터넷 활용’과정, 중급

22) 다음 <표 43>은 2003년 농업기술센터 농업인 정보화교육 교육생의 남녀 수와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표 43> 농업기술센터 2003년 성별 통계

과정	횟수	인원	여성	남성
컴퓨터·인터넷 활용	164	3,204	1,553 (48.5%)	1,651 (51.5%)
농업정보활용	361	7,082	3,288 (46.4%)	3,794 (53.6%)
과정 합계	525	10,286	4,841 (47.1%)	5,445 (52.9%)
자체교육	190	3,580	1,724 (48.2%)	1,856 (51.9%)
총계	715	13,866	6,565 (47.4%)	7,301 (52.7%)

과정인 ‘농업정보활용’과정, 그리고 자체교육 과정까지 모두 합하면 남녀간의 비율은 여성 42.6%, 남성 57.4%로 14.8%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42> 농업인 정보화교육 2003년 성별 통계

과정		횟수	인원	여성	남성
컴퓨터 · 인터넷 활용	컴퓨터활용	853	17,032	7,897 ( 46.4%)	9,135 ( 53.6%)
	인터넷활용	156	3,094	1,538 ( 49.7%)	1,556 ( 50.3%)
	소 계	1,009	20,126	9,435 ( 46.9%)	10,691 ( 53.1%)
농업 정보 활용	유통정보활용교육	573	11,260	5,376 ( 47.8%)	5,884 ( 52.3%)
	품목정보이용교육	52	999	436 ( 43.7%)	563 ( 56.4%)
	경영분석교육	31	584	248 ( 42.5%)	336 ( 57.5%)
	소 계	656	12,843	6,060 ( 47.2%)	6,783 ( 52.8%)
과정 합계		15,092	50,559	21,652 ( 42.8%)	28,907 ( 57.2%)
자체교육		568	10,936	4,524 ( 41.4%)	6,412 ( 58.6%)
총 계		15,660	61,495	26,176 ( 42.6%)	35,319 ( 57.4%)

※ 출처 : 농림부, 농업인 정보화교육 사이트 *AFFIS* 자료 재구성

2003년의 경우 남녀간의 격차가 14.8%의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이 격차는 매년 감소하고 있는데, 그러한 추세를 알아보기 위해 2001년부터 2004년까지의 농업인 정보화교육의 교육생 수와 남녀 비율을 알아봄으로써 확인할 수 있다(<표 44>). 즉 남녀간의 비율 차이를 보면 2001년 15.6%, 2002년 14.8%, 2003년 14.8%로 점차 격차가 좁혀지다가 2004년에는 3.2%로 나타나 근소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 출처 : 농림부, 농업인 정보화교육 사이트 *AFFIS* 자료 재구성

<표 44> 농업인 정보화교육 2001 ~ 2004년 성별 통계

과정		인원	여성	남성
컴퓨터·인터넷 활용 <sup>1)</sup>	2004년	20,485	10,377 ( 50.7%)	10,108 ( 49.3%)
	2003년	20,216	9,435 ( 46.9%)	10,691 ( 53.1%)
	2002년	35,178	15,203 ( 43.2%)	19,975 ( 56.8%)
	2001년	38,437	15,299 ( 39.8%)	23,138 ( 60.2%)
농업정보활용 <sup>2)</sup>	2004년	13,182	6,155 ( 46.7%)	7,027 ( 53.3%)
	2003년	12,843	6,060 ( 47.2%)	6,783 ( 52.8%)
	2002년	14,161	6,495 ( 45.9%)	7,666 ( 54.1%)
	2001년	14,350	6,916 ( 48.2%)	7,434 ( 51.8%)
과정 합계	2004년	33,667	16,532 ( 49.1%)	17,135 ( 50.9%)
	2003년	50,559	21,652 ( 42.8%)	28,907 ( 57.2%)
	2002년	49,339	21,698 ( 44.0%)	27,641 ( 56.0%)
	2001년	52,787	22,215 ( 42.1%)	30,572 ( 57.9%)
자체교육	2004년	6,781	3,065 ( 45.2%)	3,716 ( 54.8%)
	2003년	10,936	4,524 ( 41.4%)	6,412 ( 58.6%)
	2002년	10,502	3,819 ( 36.4%)	6,683 ( 63.6%)
	2001년	4,678	2,059 ( 44.0%)	2,619 ( 56.0%)
총 계	2004년	40,448	19,597 ( 48.4%)	20,851 ( 51.6%)
	2003년	61,495	26,176 ( 42.6%)	35,319 ( 57.4%)
	2002년	59,841	25,517 ( 42.6%)	34,324 ( 57.4%)
	2001년	57,465	24,274 ( 42.2%)	33,191 ( 57.8%)

※ 출처 : 농림부, 농업인 정보화교육 사이트 AFFIS 자료, 2001~2004 자료 재구성.

<sup>1)</sup> 2001~2002년은 '읍면 기초'과정이었음.

<sup>2)</sup> 2001~2002년은 '시군 중급'과정이었음.

#### ④ 수혜도 격차의 원인 파악 노력 여부

정보화교육 담당자들은 농업인 정보화교육의 성별 수혜도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성별 격차에 대한 원인 파악을 특별히 하지 않았다.

본 연구조사에서는 농업인 정보화교육 수혜자 대상으로 정보화교육 참여의 어려움을 성별로 살펴보았다.

<표 45> 성별에 따른 정보화교육 참여의 어려움

구분	여성	남성	계	$\chi^2$
농사일로 시간내기가 힘들어서	8 ( 10.7)	16 ( 23.9)	24 ( 16.9)	8.62
교육장소까지 교통이 불편해서	8 ( 10.7)	4 ( 6.0)	12 ( 8.5)	
교육을 받아봤자 특별한 게 없어서	0 ( 0.0)	1 ( 1.5)	1 ( 0.7)	
교육내용이 어려워 따라가지 못해서	12 ( 16.0)	10 ( 14.9)	22 ( 15.5)	
가사·자녀양육으로 시간내기 힘들어서	3 ( 4.0)	0 ( 0.0)	3 ( 2.1)	
특별히 어려운 점이 없었다	41 ( 54.7)	33 ( 49.3)	74 ( 52.1)	
기타	3 ( 4.0)	3 ( 4.5)	6 ( 4.2)	

<표 4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보화교육 참여의 어려움은 남녀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남녀 모두 절반 정도가 특별히 어려운 점이 없었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농사일로 시간내기가 힘들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여성 10.7%, 남성 23.9%로 남성이 보다 높게 나타났다.

### 3) 성 인지적 예산집행 여부

#### ⑤ 성별 예산집행 여부

농업인 정보화교육의 경우 성별 예산집행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여성을 위한 별도의 계획, 예산 등이 분리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에 대한 성 인지적 분석을 하기는 어렵다. 다만 농업인 정보화교육의 예산집행액을 교육을 이수한 남녀 비율에 따라 단순 추정하면 여성농업인에게 집행된 예산은 617.7백만원으로 추정되며, 남성에게 배분되는 예산은 832.3백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sup>23)</sup>.

23) 예산 1,450백만원을 여성 42.6%, 남성 57.4%로 추정한 것이다.

<표 46> 2003년 농업인 정보화교육 과정별 예산 및 교육실적

(단위: 명, 백만원)

과정명	교육기관	계 획			실 적		
		예산	회수	인원(A)	회수	인원(B)	대비(B/A)
계		1,450	1,950	39,000	2,220	43,754	112.2%
컴퓨터활용	농협, 기술센터	572	1,400	28,000	1,180	23,597	84.3%
농업정보활용	"	452	550	11,000	691	13,444	122.2%
자체교육 등	농협,기술센터 등	426	-	-	349	6,713	-

\* 교육관리시스템 기준('03.12.30), 정보화선도자 사업비 지자체 50% 분담(123백만원)

※ 출처 : 농림부 정보화담당관실, "2004 농업인 정보화교육 계획(안)", 2004. 1.

#### ⑥ 여성의 독특한 필요에 의한 추가예산 배정 여부

예산 항목에 있어서 여성의 독특한 필요에서 비롯된 추가적인 예산, 예를 들면 여성화장실, 탁아비, 여성숙소 등이 편성되었는지를 살펴보면, 농업인 정보화교육 부문에서 여성의 독특한 필요에 의한 추가예산 배정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의 세부 항목은 대부분이 강사료이며 그 외 교재제작비, 교관훈련비 등으로 구성되었다.



□□ 정책집행 후 단계

평가지표	세부 평가지표	조사결과	지표활용 권고기관 조사분석근거
1) 사후평가 여부 및 성별분리 평가 여부	① 사업수행자 및 수혜자의 성별 만족도 평가	교육수혜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평가는 매 회 하 고 있으나 성별 분리된 평가는 아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림부, 정보센터, 시군센터</li> <li>◦ 농업인정보화교육운영 실태조사(격년)자료 및 교육 후 정보센터, 시 군센터 자체조사자료</li> </ul>
	② 정보화교육의 지속의향 조사 여부	지속의향 조사하고 있음	
	③ 개선점에 대한 양적 질적 요구조사	개선점에 대한 요구조사 있음	
2) 양성평등 의식변화의 긍정적인 영향 여부	④ 여성의 전문능력향상, 사회참여확대 등 양성평등에 영향을 미쳤는 지 여부	정보화교육 이후 인터넷 을 통하여 간접적인 참여 확대로 양성평등에 작게 나마 영향을 미쳤다고 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림부, 정보센터, 시군센터</li> <li>◦ 담당자 인터뷰</li> </ul>
3) 집행성과의 성별영향력 확인 및 대안 마련 여부	⑤ 양성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왔는가 여부	교육수혜율은 남성이 약 간 높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림부, 정보센터, 시군센터</li> <li>◦ 담당자 인터뷰</li> </ul>
	⑥ 수혜도의 성별 격차 존재 시 해결대안 마련 여부	대안 마련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림부, 정보센터, 시군센터</li> <li>◦ 담당자 인터뷰</li> </ul>
	⑦ 여성 관련 예산 마련 계획 여부	여성 관련 별도 예산 마 련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림부, 정보센터, 시군센터</li> <li>◦ 담당자 인터뷰</li> </ul>
4) 집행결과 전달 여부	⑧ 집행성과 자료공개 여부	공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림부, 정보센터</li> <li>◦ 농림부 홈페이지, 농 업인정보화교육사이트 (AFFIS)자료 및 담당자 인터뷰</li> </ul>
	⑨ 사업결과 보고서 성별 내용 포함 여부	결과보고서 성별내용 포 함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림부, 정보센터</li> <li>◦ 자체성과분석보고서, 사업결과보고서 및 담 당자 인터뷰</li> </ul>
	⑩ 사업결과 자료를 관련 공무원들에게 전달하였는지 여부	공개된 자료는 공유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림부, 정보센터</li> <li>◦ 농림부 홈페이지 및 담당자 인터뷰</li> </ul>

1) 사후평가 여부 및 성별분리 평가 여부

① 사업수행자 및 수혜자의 성별 만족도 평가

정보화교육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는가에 대한 분석과 함께 간과되어서는 안되는 것은 사업의 수혜자들이 얼마나 만족했는가에 대한 측정이다. 참여율이 높다고 해서 수혜자들의 만족도도 반드시 높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교육수혜율도 중요하지만 이와 병행하여 사업수혜자들의 성별 만족도도 함께

분석할 필요가 있다.

농업인 정보화교육은 매 회 농업인 정보화교육을 마친 후 교육 해당기관에서 교육이수자들을 대상으로 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성별에 의한 구분은 되어 있지만, 성별에 따른 만족도 평가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에서는 2년마다 전국 규모의 정보화교육 운영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전에는 성별에 따른 분석을 실시하지 않았으나, 2004년 조사부터는 성별에 따른 영향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활용하고자 한다고 강조하였다<sup>24)</sup>.

본 연구조사에서는 15개 문항에 대해 만족도를 평가하도록 하였는데, 크게 교육시설 및 환경, 강사, 교육내용 및 프로그램, 교육운영 및 관리, 그리고 교육효과 및 성과 차원으로 구분하였다. 다음 <표 47>은 성별로 구분한 전체 만족도 평가, 차원별 만족도 평가 그리고 각 항목별 만족도 평가를 보여주고 있다.

전체적으로 만족도는 대부분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5점 척도를 사용한 결과 전체 평균 3.92점이었고 여성은 4.03점, 남성은 3.81점으로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농업인 정보화교육에 대해 보다 만족하는 것으로 보인다( $p < 0.05$  수준).

차원별 만족도를 보면 “교육시설 및 환경” 3.76점, “강사” 4.30점, “교육내용 및 프로그램” 3.71점, “교육운영 및 관리” 3.84점 그리고 “교육효과 및 성과” 4.10점으로 강사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교육내용 및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또한 남녀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차원별 만족도를 보면 “강사” 차원은 여성 4.51점, 남성 4.07점( $p < 0.001$  수준), “교육내용 및 프로그램” 차원은 여성 3.86점, 남성 3.55점( $p < 0.001$  수준), 그리고 “교육운영 및 관리” 차원은 여성 3.99점, 남성 3.67점( $p < 0.001$  수준)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는 보이지 않았지만, “교육시설 및 환경” 차원은 여성보다 오히려 남성들에게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여성 3.70점, 남성 3.82점).

---

24) 농업인 정보화교육 운영실태 조사는 2년마다 실시하고 있으며, 정보화교육 이수자, 교육 희망자, 교육담당자별로 전화조사를 실시하여 향후 농업인 정보화교육에 결과를 반영하고 있다. 2004년 11월 현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표 47> 농업인 정보화교육의 성별 만족도

구분	전체	여성	남성	t값
전체(15문항) 만족도	3.92	4.03	3.81	2.546*
1. “교육시설 및 환경” 만족도	3.76	3.70	3.82	-0.929
1) 교육장비의 성능이나 관리상태	3.74	3.72	3.76	-0.249
2) 교육장소의 지역적 편의성	3.77	3.68	3.88	-1.350
2. “강사” 만족도	4.30	4.51	4.07	3.580***
1) 교육내용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능력	4.39	4.57	4.18	3.221**
2) 다양한 농업인 수준(예.성별) 고려 능력	4.22	4.45	3.96	3.351***
3. “교육내용 및 프로그램” 만족도	3.71	3.86	3.55	3.340***
1) 전반적인 교육내용	3.94	4.13	3.72	2.532*
2) 총 교육시간	2.94	3.15	2.72	2.358*
3) 교육방법 (강의 및 실습 구성)	3.92	4.03	3.81	1.825+
4) 교육시간대	3.95	3.96	3.94	0.163
5) 교재내용	3.79	4.03	3.52	3.431***
4. “교육운영 및 관리” 만족도	3.84	3.99	3.67	2.491*
1) 교육생 의견 반영하려는 교육기관 노력	3.86	3.99	3.72	1.818+
2) 교육 이후 사후관리	3.81	3.97	3.62	2.289*
5. “교육효과 및 성과” 만족도	4.10	4.12	4.08	0.368
1) 정보이용능력 향상 정도	4.11	4.19	4.03	0.922
2) 농사에 실제 도움이 된 정도	3.80	3.79	3.82	-0.172
3) 자신감 획득 정도	4.38	4.40	4.36	0.269
6. 전반적인 만족도	3.98	4.03	3.93	0.678

\*\*\* : p<0.001, \*\* : p<0.01, \* : p<0.05, + : p<0.1

항목별 만족도를 보면 15개의 전체 항목 중 “총 교육시간”에 대한 만족도가 2.94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여성의 경우 3.15점, 남성의 경우 2.72점). 반면 4.00점 이상의 높은 만족도를 보인 항목은(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교육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강사의 능력” 4.39점, “교육 후 자신감 향상 정도” 4.38점, “성별 등을 고려한 다양한 농업인의 수준을 고려하는 강사의 진행” 4.22점, 그리고 “교육 후 컴퓨터나 인터넷을 활용하는 정보이용능력 향상 정도” 4.11점이다. 그리고 남녀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항목은 “교육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강사의 능력” 여성 4.57점, 남성 4.18점( $p<0.01$  수준), “성별 등을 고려한 다양한 농업인의 수준을 고려하는 강사의 진행” 여성 4.45점, 남성 3.96점( $p<0.001$  수준), “전반적인 교육내용” 여성 4.13점, 남성 3.72점( $p<0.05$  수준), “총 교육시간” 여성 3.15점, 남성 2.72점( $p<0.05$  수준), “강의 및 실습으로 구성된 교육방법” 여성 4.03점, 남성 3.81점( $p<0.1$  수준), “이해하기 쉽도록 구성된 교재내용” 여성 4.03점, 남성 3.52점( $p<0.001$  수준), “교육생의 불만 및 건의사항을 반영하려는 교육기관의 노력 정도” 여성 3.99점, 남성 3.82점( $p<0.1$  수준), “보충 및 향후 교육일정 안내 등의 교육 이후 사후관리” 여성 3.97점, 남성 3.62점( $p<0.05$  수준)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반면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만족도를 보인 항목은 “컴퓨터의 성능이나 인터넷 속도 등 교육장비의 성능이나 관리상태”(여성 3.72점, 남성 3.76점)와 “교육장소의 지역적 편의성”(여성 3.68점, 남성 3.88점)으로 나타났다.

## ② 정보화교육의 지속의향 조사 여부

정보화교육의 지속의향은 매 회 정보화교육 실시 후 행하는 조사에 포함시키기도 하고, 2년마다 행하는 전국 규모의 만족도 조사에 포함시켜 조사하고 있다. 본 연구조사에서도 농업인 정보화 수혜자 대상으로 향후 정보화교육과 관련된 다른 교육을 받을 의향이 있는지 질문하여 성별로 살펴보았다.

다음 <표 48>에서 보는 바와 같이 향후 정보화교육과 관련된 다른 교육에 대한 수강 의향은 남녀 모두 대다수가 수강할 생각이 있다고 응답하고 있었다(여성 97.3%, 남성 94.0%).

<표 48> 향후 다른 농업인 정보화교육의 수강 의향

구분	여성	남성	계	$\chi^2$
수강할 생각이 있다	73 ( 97.3)	63 ( 94.0)	136 ( 95.8)	0.95
수강할 생각이 없다	2 ( 2.7)	4 ( 6.0)	6 ( 4.2)	

### ③ 개선점에 대한 양적 질적 요구조사

농업인 정보화교육의 개선점에 대한 조사 또한 만족도 평가에 포함되어 조사하고 있다.

본 조사결과에 의하면, 남녀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남녀 모두 농업인 정보화교육의 개선점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여성 26.7%, 남성 23.9%). 개선점을 지적한 경우, 정보화교육 총 교육시간의 확대(여성 13.3%, 남성 13.4%)<sup>25)</sup>와 교육내용 및 교육수준의 개선(여성 10.7%, 남성 14.9%)이 가장 많았다.

<표 49> 성별에 따른 농업인 정보화교육의 개선점

구분	여성	남성	계	$\chi^2$
교육내용 및 교육수준의 개선	8 ( 10.7)	10 ( 14.9)	18 ( 13.3)	6.27
교육시기 및 교육시간대의 개선	2 ( 2.7)	5 ( 7.5)	7 ( 5.2)	
총 교육시간의 확대	10 ( 13.3)	9 ( 13.4)	19 ( 14.1)	
교통편 개선	2 ( 2.7)	1 ( 1.5)	3 ( 2.2)	
교육방법 개선	0 ( 0.0)	2 ( 3.0)	2 ( 1.5)	
교육시설 및 장비의 개선	3 ( 4.0)	3 ( 4.5)	6 ( 4.5)	
강사 관련 개선	5 ( 6.7)	2 ( 3.0)	7 ( 5.2)	
기타	1 ( 1.3)	6 ( 9.0)	7 ( 5.2)	
없다	20 ( 26.7)	16 ( 23.9)	36 ( 26.7)	
모르겠다	17 ( 22.7)	13 ( 19.4)	30 ( 22.2)	

25) 2002년도 농업인 정보화교육 운영실태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현 정보화교육의 개선사항에 대한 질문에 교육시간 확대가 28.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정보화교육 강사 또한 교육시간 확대(34.4%)를 가장 큰 개선사항으로 응답하였다.

## 2) 양성평등의식 변화의 긍정적인 영향 여부

### ④ 여성의 전문능력향상, 사회참여확대 등 양성평등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정보화사회로의 사회적인 변화에 맞추어 농업인 정보화교육을 통하여 여성의 정보화를 도모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며 양성평등한 사회 구현을 위하여 필수적이라고 본다.

정보화교육 담당자들은 농업인 정보화교육 자체가 여성의 전문능력향상, 사회참여확대 등 양성평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진 않았다고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심층인터뷰에서 담당자들은 한결같이 여성들이 교육을 마친 후 컴퓨터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으로부터 탈피, 컴퓨터 조작능력을 갖게 되면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고 평가한 점, 그리고 정보화가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볼 때 간접적인 사회참여의 통로로 인식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하였다.

다음 <표 50>은 본 연구조사에서 정보화교육 참여 후 이점에 대해 질문한 결과이다. 남녀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으며, 남녀 모두 컴퓨터·인터넷의 기초지식 습득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영농·농업정보로 이용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반적으로 저조하였으며, 여성(8.0%)보다 남성(13.4%)이 약간 높게 나타났다.

<표 50> 성별에 따른 정보화교육 참여 후 이점

구분	여성	남성	계	$\chi^2$
컴퓨터·인터넷의 기초지식 습득	41 ( 54.7)	40 ( 59.7)	81 ( 57.0)	6.09
영농·농업정보로 이용	6 ( 8.0)	9 ( 13.4)	15 ( 10.6)	
일상생활 및 자녀교육·지도에 도움	8 ( 10.7)	4 ( 6.0)	12 ( 8.5)	
정보화기기에 대한 두려움 해소	1 ( 1.3)	1 ( 1.5)	2 ( 1.4)	
자신감과 열의가 생김	9 ( 12.0)	6 ( 9.0)	15 ( 10.6)	
특별히 좋은 점이 없었다	4 ( 5.3)	6 ( 9.0)	10 ( 7.0)	
기타	6 ( 8.0)	1 ( 1.5)	7 ( 4.9)	

### 3) 집행성과의 성별영향력 확인 및 대안 마련 여부

#### ⑤ 양성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왔는가 여부

사업의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 간과될 수 없는 평가항목 중 하나는 이 사업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친 영향에 대한 평가라고 할 수 있다. 이 사업이 여성의 역할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지에 대한 평가, 자원과 혜택에 대한 여성의 접근과 통제권 증진을 통해 여성지위 향상에 얼마나 기여하였는가에 대한 평가, 이 사업의 결과가 남성과 여성의 성별 관계에 이어 평등성의 진전에 얼마나 기여하였는가에 대한 평가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바라볼 때, 농업인 정보화교육 이수자의 비율이 남성 57.4%, 여성 42.6%로 나타나 농업인 정보화교육이 양성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왔다고 일차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교육의 효과를 성별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았다.

<표 51> 성별에 따른 정보화교육 후 활용 용도

구분	여성	남성	계	$\chi^2$
인터넷 정보검색	26 ( 34.7)	29 ( 43.3)	55 ( 38.7)	7.26
이메일 사용	6 ( 8.0)	3 ( 4.5)	9 ( 6.3)	
문서작성	1 ( 1.3)	3 ( 4.5)	4 ( 2.8)	
전자상거래 등 사이버농산물 시장 구축	5 ( 6.7)	8 ( 11.9)	13 ( 9.2)	
농가경영개선 및 영농일지 작성	1 ( 1.3)	0 ( 0.0)	1 ( 0.7)	
홈페이지 운영	1 ( 1.3)	2 ( 3.0)	3 ( 2.1)	
특별히 활용한 게 없다	27 ( 36.0)	15 ( 22.4)	42 ( 29.6)	
기타	8 ( 10.7)	7 ( 10.4)	15 ( 10.6)	

<표 51>을 보면 교육 후 활용 용도에 있어서 성별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다. 하지만 특별히 활용한 게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남성은 22.4%인데 반해 여성은 36.0%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활용 용도가 있다고 한 경우 남녀 모두 인터넷 정보검색을 가장 많이 지적하였다. 또한 보다 전문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등 사이버농산물 시장 구축까지 활용한 경우는 여성 6.7%, 남성 11.9%로 근소한 차이이지만 남성이 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서도 보여지듯이 농업인 정보화교육이 구체적인 계획이나 비전 없이 초보수준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즉 정보화교육을 이수한 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마인드 재고나 교육생의 욕구(need) 충족에 기반하지 않는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문제로 지적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정보화교육은 다양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 여성과 남성이 적절한 교육을 통해 적극적인 활용주체가 되도록 해야 한다. 이는 다양한 욕구와 이해가 교육에 얼마나 반영되고, 장기적인 전망 속에서 욕구와 이해가 발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는가에 달려 있다.

#### ⑥ 수혜도의 성별격차 존재시 대안 마련 여부

담당자의 심층인터뷰와 2004년도 교육계획안 자료를 보면, 2003년도 교육실적에 성별과 관련된 내용은 없었다. 따라서 수혜도의 성별격차에 따른 대안 마련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⑦ 여성 관련 예산 마련 계획 여부

2004년도 교육계획안의 예산 관련 자료를 보면 성별로 구분되지 않았으며, 담당자와의 심층인터뷰에서도 여성 관련 예산을 마련할 계획이 없음을 밝혔다.

### 4) 집행결과 전달 여부

#### ⑧ 집행성과 자료공개 여부

농업인 정보화교육의 집행결과에 대해서는 농림부의 농업인 정보화교육 사이트인 *AFFiS* 에 교육과정별, 성별, 경영형태별, 연령별 통계를 집계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하였다. *AFFiS*의 교육실적 외에도 농업인 정보화교육 관련 문서(연도별 농업인 정보화교육 계획안, 자체 성과분석 보고서 등)를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개하고 있었다.

#### ⑨ 사업결과 보고 시 성별 내용 포함 여부

농업인 정보화교육 사이트인 *AFFiS* 에 성별 교육실적 집계를 실행하고는



있지만, 사업결과 보고 시 성별 내용을 포함하지는 않았다.

#### ⑩ 사업결과 자료를 관련 공무원들에게 전달하였는지 여부

정보화교육 관련 사업결과 자료를 홈페이지에 올리거나 보고서 배부 그리고 워크숍을 실시함으로써 관련 공무원들에게 전달하고 있지만, 관련 공무원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고 하였다.

### 4. 농촌관광마을 인력육성사업

#### 가. 전화조사 개요

농촌관광마을인력육성사업의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위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농림부가 매년 발행하는 「농림사업시행지침서」의 2004년도 자료
2. 농림부 농촌정책국 농촌진흥과에서 제공한 '04년 농촌관광 및 지역개발 관련 교육 추진 자료(농업기반공사 도농교류센터에 위탁하여 수행한 교육)
3. 농촌관광마을 인력육성을 담당하는 공무원과의 인터뷰 자료
  - 농림부 농촌진흥과 기획에 관한 사항 담당자
  - 농진청 농촌지원국 지원기획과, 농촌생활자원과 인력교육담당자
  - 충청남도 농업기술원 기술개발국 교육정보과 기술교육담당
4. 농림부가 농업기반공사 도농교류센터에 위탁하여 수행한 교육훈련에 참여 하였던 남녀 교육생 총 959명(남 854명, 여 105명) 대상 전화 설문조사

전화설문은 2004년 12월 2일부터 16일까지 훈련된 조사원에 의해 실시하였다<sup>26)</sup>. 전화 인터뷰에 응해 준 응답자는 총 121명이었고 이중 남성은 79명(89.0%), 여성은 42명(11.0%)이었다.

대부분의 조사대상자는 70%이상이 4,50대이었고 여성이 남성에 비해 평균 연령이 더 낮았다. 교육수준은 남성의 경우 고졸 이상이 65.7%, 여성은 고졸 이상이 48.8%로 나타나 여성의 학력이 더 낮았다. 가족소득은 남성의 경우 3000만 원 이상이 43.8%이었고 여성의 경우 3000만 원 이상이 34.2%로 나타나

26) 최종 집계된 결과와, 확보한 교육생 연락처 명단과는 3명의 차이가 난다.

여성이 남성보다 낮았다. 주 영농형태는 전체의 46.5%가 논벼였고 다음이 과수(23.2%), 기타가 21.2%이었다. 남녀 간의 의미 있는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농사경력은 남성이 여성에 비해 평균 5.83년이 더 높게 나타났다.

〈표 52〉 조사대상자의 특성

(명, %)

구분	여성	남성	계	
연령	30대 이하	6 ( 14.3)	6 ( 7.6)	12 ( 9.9)
	40대	18 ( 42.9)	30 ( 38.0)	48 ( 39.7)
	50대	11 ( 26.2)	26 ( 32.9)	37 ( 30.6)
	60대 이상	7 ( 16.7)	17 ( 21.5)	24 ( 19.8)
교육수준	초졸 이하	12 ( 29.2)	16 ( 21.1)	27 ( 23.1)
	중졸	9 ( 22.0)	10 ( 13.2)	19 ( 16.2)
	고졸	13 ( 31.7)	28 ( 36.8)	41 ( 35.0)
	대졸 이상	7 ( 17.1)	22 ( 28.9)	29 ( 24.8)
연 가족소득	1000만원 미만	6 ( 14.6)	11 ( 15.1)	17 ( 14.9)
	2000만원 미만	11 ( 26.8)	15 ( 20.5)	26 ( 22.8)
	3000만원 미만	10 ( 24.4)	15 ( 20.5)	25 ( 21.9)
	5000만원미만	5 ( 12.2)	17 ( 23.3)	22 ( 19.3)
	5000만원 이상	9 ( 22.0)	15 ( 20.5)	24 ( 21.1)
막내자녀 연령	취학 전	2 ( 4.9)	8 ( 10.8)	10 ( 8.7)
	초등학생	8 ( 19.5)	14 ( 18.9)	22 ( 19.1)
	중고등학생	8 ( 19.5)	13 ( 17.6)	21 ( 18.3)
	20세 이상	22 ( 53.7)	37 ( 50.0)	59 ( 51.3)
	자녀 없음	1 ( 2.4)	2 ( 2.7)	3 ( 2.6)
거주지역 규모	읍	6 ( 14.3)	13 ( 16.9)	19 ( 16.0)
	면	34 ( 81.0)	62 ( 80.5)	96 ( 80.7)
	동	2 ( 4.8)	2 ( 2.6)	4 ( 3.4)
영농형태	논벼	17 ( 48.6)	29 ( 45.3)	46 ( 46.5)
	과수	7 ( 20.0)	16 ( 25.0)	23 ( 23.2)
	채소	2 ( 5.7)	7 ( 10.9)	9 ( 9.1)
	기타	9 ( 25.8)	12 ( 18.8)	21 ( 21.2)
농사 경력	10년 미만	5 ( 14.3)	15 ( 23.1)	20 ( 20.0)
	10~19년	16 ( 45.7)	10 ( 15.4)	26 ( 26.0)
	20~29년	4 ( 11.4)	19 ( 29.2)	23 ( 23.0)
	30~39년	5 ( 14.3)	11 ( 16.9)	16 ( 16.0)
	40년 이상	5 ( 14.3)	10 ( 15.4)	15 ( 15.0)
	평균 경력	21.80 년	27.63 년	24.79 년
계	42 ( 34.7)	79 ( 65.3)	121 (100.0)	

□□ 정책결정단계

평가 지표	세부 평가 지표	조사 결과	지표활용 권고기관 조사분석근거
1. 정부의 양성평등 정책방향과 관심사 반영 여부	①정부의 성 주류화 정책 인지 ②'여성농업인육성 5개년 계획' 인지여부 ③성별영향분석평가 인지여부	-성 주류화에 대해 들어본 적 있음 -육성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 -인지하고 있지 않음	농림부 농촌진흥과 담당자인터뷰
2. 여성관련 이슈 파악 여부	④해당사업과 관련한 여성 이슈 확인 여부 ⑤전문농업인육성과 관련한, 농촌관광마을 인력육성사업의 중요성 인식 여부	-여성과 관련이 있다는 것은 인식하고 있었으나 여성이 많이 참여해야 한다는 정도 -대체로 인식하고는 있으나 교육 단계 및 수행과정에서 연관지어 수행하고 있지 않음	농림부 농촌진흥과 담당자 인터뷰
3. 여성의 요구 파악 여부	⑥성별 요구조사 실시 여부	-성별 요구조사 실시하지 않음	관련문서
4. 성 인지적 통계자료 수집 및 활용 여부	⑦사업 추진과정에서 성인지적 통계자료 수집, 활용 ⑧성인지적 통계 생산 여부 및 생산계획 여부	-성인지적 통계자료 수집 및 활용 안함 -생산하지 않고 생산계획 특별히 없음	관련문서
5. 성 인지적 예산편성 여부	⑨양성에게 균등하게 전달되는지 여부 ⑩성별격차 존재시 해결대안 마련 여부 ⑪해당사업 여성관련 예산 항목 유무	-성인지적예산편성이 되지 않음 -해결대안 마련 하지 않음 -여성관련 예산 항목 없음	관련문서
6. 여성관련 목표 포함 여부	⑫해당사업의 가치나 이념이 성역할 고정관념 극복 기여 여부	-여성에 대한 언급을 한 내용이 있었음	'농촌마을개발협의회' 구성개선자료
7. 여성의 자문참여 여부	⑬젠더전문가, 여성단체의 자문, 의견수렴 ⑭해당사업 관련 위원회 성별 비율	-여성위원이 없는 위원회 -여성전문가가 있는 위원회가 있으나 젠더관련은 아님 2/16 (12.5%)	-도농교류 및 농촌지역개발 자문위원회 '04년녹색농촌체험마을심사위원
8. 여성관련 목표달성을 위한 근거법령 정비 여부	⑮여성관련 근거법령 및 지침 유무 ⑯근거법령이 없는 경우 대책마련 계획여부	-시행지침 중 여성을 포함시키도록 개선되었음	'농촌마을개발협의회' 구성개선자료
9. 담당자의 성인지성	□양성평등의식교육 참여 경험 유무 □담당공무원의 성별비율 □담당공무원의 양성평등의식수준	-과정전체는 아니고 몇 시간 강의를 들었음 -농촌진흥과 내 사무관급 이상 여성비율 20%. 타부처의 관리직 평균 성별비율보다는 높음 -양성평등의식수준 높지 않음	담당자인터뷰

## 가) 정부의 양성평등 정책방향과 관심사 반영 여부

### ① 정부의 성 주류화 정책 인지 여부

농촌관광마을 정책담당자들은 정부의 양성평등정책과 관련한 ‘성 주류화’라는 용어는 들어 본적이 있는 것 같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한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고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성 주류화 정책이 정책과 프로그램을 추진할 때 여성과 남성의 요구를 파악하고 경험과 관점을 고르게 반영하여 공정하게 이루어지게 한다는 설명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이해는 하지만, 이에 해당되는 정책은 소수의 특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본인이 담당하는 농촌관광마을 인력육성사업이 성 주류화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담당자들은 대부분의 농업인력 육성교육 및 훈련사업에 여성의 참여율이 낮은 것은 여성들이 농사일 집안일 등으로 바빠서, 그리고 배우는데 소극적이라서 참석을 못할 뿐이지 정책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성 주류화 정책이 생소한 개념이기는 하지만 이 정책이 보다 정교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것이라면 공무원으로서 이것을 잘 알아서 정책과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해야 된다는 자세는 가지고 있었다.

### ② ‘여성농업인육성5개년계획’ 인지 여부

정책담당자들은 ‘여성농업인육성5개년계획’을 농림부내에 여성정책담당관제가 신설이 되면서 그 부서가 중심이 되어 만든 것으로 알고 있었다. 직제와 부서가 새로 만들어졌으므로 해당 부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법과 시행령 등은 만들어야 하고 그에 따른 계획도 나오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인터뷰하였던 담당자들은 여성농업인5개년계획의 목표와 15개 분야의 정책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목적과 내용은 알고 있지 못하였다. 여성공무원들조차도 단지 농촌에서 여성들이 주로 농사를 전담하고, 기여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여성농업인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이런 계획이 만들어졌다는 정도로 알고 있었다.

### ③ 성별영향분석평가 인지 여부

면담과정에서 만났던 모든 공무원들은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전혀 생소한 용

이라고 응답하였다. 여성발전기본법 제10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정책이 여성의 권익과 사회참여 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평가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는 사실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인터뷰하였던 담당자들은 2005년부터 행정기관과 광역자치단체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게 될 것이라는 사항에 대해서도 모두 처음 듣는 얘기라고 하였다. 그리고 공무원들은 평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무척 민감할 수밖에 없으므로 그 평가가 시행된다면 급속히 확산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지금까지 여성이 남성에 비해 많이 억눌려 왔고 희생당해 온 것을 인정하지만 시대가 바뀌어서 이제는 오히려 여성이 이런 제도까지 만든 것은 현실을 지나치게 앞서가는 것 같다고 하였다.

## 2) 여성관련 이슈 파악여부

### ④ 농촌관광마을 인력육성사업과 관련한 여성 이슈 확인

농촌관광마을 담당자들은 인력육성사업이 여성과 남성 간에 형평성에 문제가 되는 이슈가 존재한다는 것에 대해 지금까지 인식하지 못했다고 하였다. 다만 농촌관광마을 사업에서 여성이 담당해야 할 일이 많다는 것은 인식하고 있었다. 마을주변을 가꾸고 식사를 제공하고, 청소, 빨래 등의 일이 많은 만큼 여성들의 몫이 많다는 것이다. 결국은 이 모든 일은 여성들이 해야 할 일이고 또 찾아온 도시민들이 다시 방문을 하도록 하려면 여성들의 섬세함, 친절함, 인내심으로 무장된 아이디어와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농촌관광의 성공여부가 여성들에게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 점에서 여성들이 더 많이 참석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담당자들은 농촌관광마을 사업의 노동 자체가 성별분업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담당자들은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일을 하는 것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여성이 리더로 나서서 일을 하지 않는 자체를 문제 삼기는 어렵다고 하였다. 그 이유는 농촌마을은 아직도 보수적이기 때문에 여성이 나서서 일을 싫어할 뿐만 아니라 여성들도 마을의 대표나 지도자로서 일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준비도 되어 있지 않다고 하였다.

담당공무원들이 농촌관광마을 정책이나 사업, 또는 프로그램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데 성 인지적인 관점을 도입하는데 장벽이 되는 주요한 이유는 정책에서 젠더관련 이슈를 도출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지적되고 있다.

농촌관광사업에서 중요한 젠더 이슈는 사업이 성별 위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2004년 현재 76개 마을에서 추진되고 있는 녹색농촌체험 관광마을 사업은 리더를 포함하여 마을위원회가 거의 남성들에 의해 구성되고 추진되고 있다. 충남지역에는 총 19개 녹색농촌관광마을이 있는데 대표는 모두 남성이고 7개 농촌전통테마마을 역시 모두 남성이 대표이다.

교육 수혜자들을 대상으로 농촌관광마을에서 역할을 조사해 본 결과 표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대표는 남성이고 여성은 과반수 이상이 일반회원으로 남녀에 따른 위계구조를 이루고 있다.

<표 53> 농촌관광마을에서의 역할

구분	남성	여성	계
대표자(리더)	24 ( 30.4)	4 ( 9.5)	28 ( 23.1)
마을추진위원	14 ( 17.7)	3 ( 7.1)	17 ( 14.0)
부녀회장	1 ( 1.3)	2 ( 4.8)	3 ( 2.5)
이장	10 ( 25.3)	-	10 ( 8.3)
일반회원	20 ( 25.3)	24 ( 57.1)	44 ( 36.4)
기타	10 ( 12.7)	9 ( 21.4)	19 ( 15.7)
전체	79 (100.0)	42 (100.0)	121 (100.0)

( $\chi^2=22.988$ ,  $p=.000$ )

그러나 인터뷰한 공무원 중에서는 지금까지 농촌관광마을 인력육성사업이 성 형평성 문제와 관련성이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으나 인터뷰를 하고 나니 그런 문제점이 이해가 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사실을 좀 더 빨리 알았더라면 매년 초에 농촌관광마을 사업에 대해 사업수행실무자와 농업인교육을 할 때 포함시켰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공무원 자신이 강의도 하고 설명회를 할 기회가 종종 있으니 이 때 적극적으로 여성 참여의 필요성과 적극적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내용을 포함시키겠다는 의지도 나타냈다.

##### ⑤ 전문농업인육성과 관련한 농촌관광마을 인력육성사업의 중요성 인식 여부

농촌관광마을 인력육성사업 담당자들은 농촌관광마을 여성들의 역할이 중요

하다는 것은 인식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실제로 여성들을 전문농업인력으로 육성될 대상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았다. 현재 농촌관광마을사업을 하고 있는 농촌여성들은 저학력, 고연령인데다 활동범위가 제한되어 왔으므로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본 연구에서 농촌관광마을 교육을 받았던 남성과 여성들을 대상으로 수혜자로서 인력육성 사업에 대한 만족도를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한다고 하였더니 나이가 많아서 제대로 응답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본 조사 여성농업인의 연령과 학력은 40대 이하가 57.2%이었고, 고등학교졸업이 31.7%이고 대학교 졸업도 17.1%나 되었다.

따라서 농촌관광마을 인력육성사업에 참여하는 농가여성은 상대적으로 연령이 낮고 고학력이라고 볼 수 있다. 연령과 학력수준이 인적자원 질적 수준에 영향을 크게 미친다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이들은 농촌관광의 전문인력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앞으로 창조적인 서비스와 경영적 마인드가 요구되는 농촌관광마을 사업에 여성인력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정책이 시행될 필요가 있으며 이들을 집중 육성하여 향후 고부가가치의 농업 농촌 발전의 주역으로 키워야 한다.

### 3) 여성의 요구 파악여부

#### ⑥ 성별 요구조사 실시 여부

농촌관광마을 담당자들은 인력육성사업을 계획하는 단계에서 성별 요구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성별요구조사를 하지 않는 것은 농촌관광마을사업과 인력육성사업의 취지가 어려워져가는 농업·농촌과 마을 주민을 살리는 것이므로, 굳이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여 사업을 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정책담당자는 인터뷰가 진행되면서 교육 훈련에 대한 내용도 여성과 남성의 요구가 다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였다. 그리고 마을에서 여성들이 많이 하는 역할이 따로 있으니 그 부분을 남녀로 나누어 할 필요가 있겠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 방문객 서비스, 특색 있는 향토음식 제공 등의 내용을 제안하였다.

정책의 대상이 되는 주민들, 수혜자들의 요구는 다양하다. 당장 현실적이

고 직접적으로 필요한 요구가 있는가 하면, 동시에 개인으로서 자신감을 갖고 능력을 발휘하며 자신의 이상과 자아를 실현하고자 하는 추상적이고 장기적인 요구도 있다. 농촌관광마을사업을 계획하고 운영하는 남녀농업인들도 당장 필요한 정보나 지식에 대한 요구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적 교양이나 인문적인 요구도 있다. 특히 여성농업인들에게는 공식적인 마을사업을 추진할 때 가장 장애가 되는 것은 사업추진과정에 대한 정보와 자신감 부족이다.

본 정책의 남녀 수혜자들을 대상으로 ‘마을에서 농촌관광마을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을 잘 알고 계십니까?’라고 질문한 결과, 남성은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74.7%이었고, ‘대체로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17.7%이었다. 전체적으로, 알고 있다는 비율이 92.4%이었다. 이와 반면에 여성은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45.2%, ‘대체로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33.3%이었다. 그리고 ‘잘 모르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의 21.4%이었다. 농촌관광마을 인력육성을 위한 교육에 참석한 여성들 중에서도 사업추진 상황을 잘 모르고 있는 비율이 높게 나타난 점으로 보아 농촌관광마을 인력육성사업의 인지도에 남녀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교육계획이나 사업을 결정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받을 수 있다.

〈표 54〉 농촌관광마을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한 인지도

구분	남성	여성	계
잘 알고 있다	59 ( 74.7)	19 ( 45.2)	78 ( 64.5)
대체로 알고 있다	14 ( 17.7)	14 ( 33.3)	28 ( 23.1)
잘 모르고 있다	6 ( 7.6)	9 ( 21.4)	15 ( 12.4)
전체	79 (100.0)	42 (100.0)	121 (100.0)

( $\chi^2=10.810$ ,  $p=.004$ )

농촌관광마을교육에 참석한 가장 큰 동기에 대해 조사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으나 남성은 여성에 비해 ‘마을에 방문객이 더 오도록 하여 소득을 더 얻고 싶어서’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정보를 더 얻기 위하여’가 높게 나왔고, 여성은 ‘농촌관광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얻기 위하여’와 ‘주위사람의 권유에 의하여’가 더 높게 나타났다. 여성은 남성



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극적이고 전반적인 지식을 얻는데 비중을 두고 있는 반면에, 남성은 보다 경제적이고 실질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데에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남녀의 교육에 대한 기대가 차이를 파악하고 교육내용을 계획하고 운영해야 한다. 성별로 다른 요구와 조건에 부응하는 교육 내용을 통해서 여성도 기획력과 창의성을 발휘하는 마을사업의 주체가 될 수 있고 보다 근본적으로 농촌관광마을을 가꾸는 인력으로 육성될 수 있다. 성 주류화 정책이 궁극적으로 정책과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근거는 성별로 다른 요구와 경험이 반영되는 과정을 갖기 때문에 가능하다.

〈표 55〉 농촌관광마을 교육에 참석한 동기

구분	남성	여성	계
농촌관광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얻기 위하여	38 ( 48.7)	25 ( 59.5)	63 ( 52.5)
농촌관광사업을 하면서 부딪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7 ( 9.0)	4 ( 9.5)	11 ( 9.5)
마을에 방문객이 더 오도록 하여 소득을 더 얻고 싶어서	18 ( 23.1)	7 ( 16.7)	25 ( 20.8)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정보를 더 얻기 위하여	6( 7.7)	1 ( 2.4)	7 ( 5.8)
주위사람의 권유에 의하여	5 ( 6.4)	4 ( 9.5)	9 ( 7.5)
기타	4 ( 5.1)	1 ( 2.4)	5 ( 4.2)
전체	78 (100.0)	42 (100.0)	120 (100.0)

#### 4) 성 인지적 통계자료 수집 및 활용 여부

##### ⑦ 사업 추진과정에서 성 인지적 통계자료 수집 및 활용 여부

성 인지적 통계는 정책의 입안, 설계 및 실행에서 여성적 관점을 도입시키는데 매우 필수적인 도구이다. 성별로 분리된 자료와 지표는 여성의 지위에 대한 위치를 보여주고, 어떤 정책이 개입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준다. 정책담당자들에게 농촌관광마을 인력육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양성평등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한 성별 통계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였는지의 여부를 알아본 결과 그 필요성을 인식하지 않고 있었다. 그 이유는 정책의 결정이나 수행에서 특별히 여성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데에 의문을 갖는 경우가 많았고 따라서 성별 분리된 통계를 사용해야 한다고도 생각하지 않고 있었다.

농림부가 농촌관광마을사업 추진 배경으로서 제시하는 통계는 다음과 같다.

- 국내관광총량
- 농촌관광수요
- 농가인구비율
- 도시근로자 대비 농가소득비
- 면지역인구
- 노령화율
- 농외소득
- 도시근로자 가구소득 대비 농가소득

위의 통계 중 성별로 분리된 자료는 하나도 없다. 농촌관광마을사업을 추진하는데 제시되고 있는 통계 중에는 반드시 성별로 분리되어 활용되어야 할 내용은 농가비율인구, 면지역인구, 노인가구, 농외소득, 가구주 소득 등이다. 이외에도 인력육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통계는 각 농촌관광마을의 리더와 마을추진위원회 위원의 성별 분포, 참여하는 여성가구주의 수, 성별국내관광 총량 및 농촌관광 수요 등이다.

#### ⑧ 성 인지적 통계 생산 여부 및 생산계획 여부

또 성 인지적인 시각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공무원도 실제로 성별분리통계를 사용해야 하는 필요성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고, 그런 통계가 없을 경우 그 통계를 스스로 생산해야 하는 주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었다.

담당자들은 농촌관광마을과 관련된 성별 분리통계는 찾아보면 찾을 수 있겠지만 다른 일이 많은데 그렇게 할 여유가 없고 또 그럴 필요성까지는 느끼지 못한다고 응답하였다. 실제로 본 연구자가 담당자들과 인터뷰를 하는 도중에

도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걸려오는 전화를 받아야 하고 예정되어 있는 다른 일을 처리하기 위해 자리를 비워야 하는 경우가 자주 일어났다. 농촌관광마을 인력육성사업만을 전담하는 공무원은 한명도 없었고 대개는 서너가지 일들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었고 폭주하는 많은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매우 고심을 하고 있었다. 농진청의 경우 주말에도 나와서 업무를 하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하였다. 따라서 현장에 있는 공무원들에게 양성평등을 위한 정책혁신과 정책의 품질향상은 현실적으로 거리감이 많은 이상적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성평등한 정책수행을 위하여는 담당자들의 성 인지적 정책에 대한 이해와 의지가 관건이고 성별분리통계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농림부의 담당자와 인터뷰 후 나중에 요청한 자료를 받았을 때 농촌관광마을 교육훈련에 참여한 교육생을 성별로 나누어서 집계한 자료를 보내 준 사례가 말해 주듯이 성별분리된 통계는 정책담당자의 의지에 따라 생산해낼 수 있고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5) 성 인지적 예산 편성 여부

### ㉠ 양성에게 균등하게 전달되는지 여부

성 인지 예산은 특별히 여성 혹은 남성을 위해서 형성된 예산뿐만 아니라 일반예산의 지출이 남성과 여성의 삶의 차이와 특성을 반영하여 계획, 집행되고 그 효과가 남녀에게 평등하게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다. 이 중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가 대상으로 하는 예산은 일반 주류예산에 대한 것이다.

농촌관광마을정책 담당자들은 본 사업을 함으로써 농업과 농촌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 결과적으로 특정한 성을 겨냥하지는 않는 주민에게 혜택이 갈 것이라고 기대하는 정도이었다. 이 사업이 주민으로서 남성과 여성에게 예산과 서비스가 다르게 전달되는 성 형평성과 관련이 있다고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농림부에서 2004년도 농촌관광마을 인력육성사업에 배정된 예산은 총 1억 원이다. 2004년도에는 이 예산을 농업기반공사 도농교류센터에 용역을 주어 교육을 수행하였다. 이 중 교육을 받은 수혜자 중 남성이 89.0%이고, 여성은 11.0%로 나타난 것을 보면 예산도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9 : 1정도로 전달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농촌관광마을 인력육성사업이 주민으로서 남성과 여성을 동시에 포함하는 정책이고 실제적으로 남녀 참여율의 격차가 나타나고 있고 활동에서도 성별분업적인 현상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예산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농촌관광마을 인력육성사업의 결정단계에서 성인지예산 편성의 방법은 예산 우선순위에 관한 평가가 가장 적합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 방법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서비스 전달체계와 예산지출이 남성과 여성의 요구를 얼마나 충족시키는지 평가하고 이를 반영하는 것이다<sup>27)</sup>. 이를 위해서 해당되는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여론 조사와 태도조사 결과 등의 양적 자료와 실사나 심층면접, 자문회의나 토론 결과 등의 질적조사 자료가 필요하다.

#### ⑩ 성별 격차 존재 시 해결대안 마련 여부

정책담당자들은 예산이 성별로 다르게 전달되는지에 대한 인식이 없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결책을 따로 마련해야 한다는 인식 역시 하지 못하고 있었다.

#### ⑪ 농촌관광마을 인력육성사업 여성 관련 예산 항목 유무

농촌관광마을 인력육성사업에 대한 여성관련예산 항목은 배정되어 있지 않았다. 결정된 정책에 따라 인력육성사업을 수행하는 하부기관에서도 여성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필요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추가적인 예산이 편성된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실제로 ‘농촌관광마을 교육에 참석하시는데 가장 어려웠던 점이 무엇이었습니까?’를 조사한 결과 특별히 어려운 점이 없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여성이 63.4%, 남성이 47.4%로 여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어려운 점이 있었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어려움의 내용은 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즉 여성은 ‘가사일, 자녀양육으로 시간대기가 힘든점’을 많이 응답하였고, 남성은 이에 해당하는 사람이 한사람도 없었다. 한편 남성은 ‘농사일로 시간대기가 힘들어서’가 가장 많았다.

---

27) 이외에도 영역별 성인지적 정책평가, 성별시간사용에 대한 예산 영향 분석, 성인지적 중기 거시경제정책분석틀 등의 방법이 있다. 김경희(2004), “성주류화와 성인지 예산의 개념”, 『2004 성인지 예산 및 정책워크숍』, 한국여성단체연합, p.57.

<표 56> 남성, 여성으로서 참여하는데 어려웠던 점

구분	남성	여성	계
농사일로 시간내기가 힘든 점	20 ( 26.3)	2 ( 4.9)	22 ( 18.8)
가사일, 자녀양육으로 시간내기가 힘든 점	-	8 ( 19.5)	8 ( 6.8)
교육장소까지 교통이 불편한 점	4 ( 5.3)	2 ( 4.9)	6 ( 5.1)
가족들이 싫어함	1 ( 1.3)	-	1 ( 0.9)
교육을 받아보아야 특별한 것이 없는 점	3 ( 3.9)	-	3 ( 2.6)
특별히 어려운 점이 없었다	36 ( 47.4)	26 ( 63.4)	62 ( 53.0)
기타	12 ( 15.8)	3 ( 7.3)	15 ( 12.8)
전체	76 (100.0)	41 (100.0)	117 (100.0)

( $\chi^2=26.289$ ,  $p=.000$ )

따라서 교육에 참석한 여성들의 어려움은 가사일, 자녀양육이 대부분인 만큼 이에 대한 해소책과 그에 따른 예산배정이 필요하다.

## 6) 여성 관련 목표 포함 여부

### ⑫ 농촌관광마을 인력육성사업의 가치나 이념이 성역할 고정관념 극복 기여 여부

농촌관광마을 인력육성사업의 가치나 이념은 정책 수립의 필요성과 목적을 기술한 문서를 통해 분석할 수 있다. 특별히 농촌관광마을 인력육성과 관련한 문서의 목적에 여성의 요구나 경험, 상황을 고려하여 정책을 결정한 문서는 없었다.

그러나 2004년도 상반기에 농촌관광마을 사업과 맥을 같이 하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추진계획 보완대책에서 농촌마을개발협의회의 운영 개선 조치사항이 시달된 사례가 있었다. 그 내용은 현행 ‘지역개발협의회’의 구성원을 ‘농촌마을개발협의회’로 명칭을 바꾸고 구성원 중 지구내의 마을대표에 여성농업인이 포함되도록 명시한 것이다<sup>28)</sup>. 이는 여성이 마을개발협의회에 참여할 것을 명시하는 문서로서 해당사업이 추진될 것이 기대된다.

전통적인 성역할 고정관념에 의해 여성 스스로도 대표자로 나서서 일하는 것을 억제해 왔다. 이러한 성별 역할과 의식의 차이를 이해하고 여성을 참여자로서 일할 수 있는 적극적인 조치를 정책결정자들이 취할 필요가 있다.

## 7) 여성의 자문참여 여부

### ⑬ 젠더전문가, 여성단체의 자문, 의견수렴 여부

농촌관광마을 인력육성정책 담당공무원들에게 젠더전문가로서의 개인이나 단체에게 의견수렴을 조사한 결과 이에 해당되는 사례가 한 건도 발견되지 않았다.

사업수혜대상이 되는 농촌관광마을 참여여성들의 요구를 확인하고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여성 집단의 자문참여가 매우 중요하다. 이것은 여성과 남성의 다른 경험에서 비롯된 독특한 이해와 요구를 여성전문가집단이 대표해 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생물학적 여성이 반드시 젠더로서의 여성의 이해와 요구를 대표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남성과는 다른 삶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여성이 참여한다는 것은 사업의 성 평등을 제고하는 단초가 된다고 보여진다. 아울러 굳이 여성이 아니라 할지라도 성 주류화의 지식과 경험을 가진 개인이나 지역사회 및 여성단체들이 충분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과 편의를 고려한 필요가 있다.

### ⑭ 농촌관광마을 인력육성사업 관련 위원회 성별비율

농림부에는 ‘도·농교류 및 농촌지역개발 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 위원회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도·농교류 활성화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추진 관련, 각계 원로들로 위원

	현 행 (지역개발협의회)	개 선 (농촌마을개발협의회)
구 성 원	지구내의 주민대표(마을당 1인), 농업기반공사, 농업기술센터, 지역농협 등의 기관장 또는 실무책임자, 지역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등	지구내 마을대표(여성농업인 포함), 농업기반공사, 농업기술센터, 지역농협 등의 기관장 또는 실무책임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2인, 시장·군수 등 10인 내외
28) 협의회 회장	시장·군수	민간전문가 및 시장·군수 공동

출처 : 농림부

회를 구성하여 전통문화자원의 활용, 농촌다움의 유지 등 개발 방향에 대한 자문 및 사회적 관심을 유도한다.

○ 지역개발 전문가로 실무위원회를 구성, 농촌지역개발 방향 설정 및 지구별 기본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자문위원회 구성의 원칙은 각분야 원로급 사회 저명인사로 위촉하고 위원수는 10-15명 내외이다.

위원회 기능은 ○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대한 자문 ○ 농촌관광 및 도·농교류 활성화방안에 대한 자문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농촌관광마을 육성, 1사1촌운동 등 지역활성화, 지역이 주체역량 강화를 위한 지도자 육성, 지역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마케팅 전략이다. 위원회 활동은 농정현장 방문 및 간담회를 통해 도·농교류 및 농촌지역개발 관련 자문 등이다.

자문위원회 위원은 2004년 10월 현재 14명으로 문학분야 2명, 생태환경 분야 3명, 언론분야 3명, 출판 1명, 농업 1명, 미술 1명, 전통문화 1명, 정보통신 1명, 지역개발 1명 등인데 여성은 한명도 없다. 각 위원회의 여성위원 비율은 여성참여와 여성의 대표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지표이다. 따라서 정부 각 부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위원회의 여성비율을 적어도 30%까지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이 위원회에 여성이 한사람도 참여하지 않고 있는 것은 여성위원회 참여에 인식이 결여되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2004년 농림부에서 추진하는 '녹색농촌체험마을'선정 심사위원을 보면 총 16명 중 남성은 14명, 87.5%이었고 여성은 2명으로 전체의 12.5%이었다.

## 8) 여성관련 목표달성을 위한 근거 법령 정비 여부

### ⑮ 여성관련 근거법령 및 지침 유무

농촌관광마을사업의 근거 법령은 농업·농촌기본법 제38조 제2항 및 제3항과 농촌진흥법 제13조 제1항이다.

농업·농촌기본법 제38조 제2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민이 건전한 정서 함양과 도·농간의 교류확대 및 농촌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지역의 특색을 살린 녹색관광 및 휴양자원의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이다. 제3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시설 등의 설치·운영과 지역의 문화행사개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이다.

농촌관광마을사업과 관련한 공문자료에서 근거로 한 여성관련 근거법령이나 지침은 없었다. 모든 정책의 결정과 시행에는 법령과 지침이 근거가 되므로 법령과 지침의 유무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인터뷰 중 한 정책담당자는 본인도 농촌관광마을 인력육성사업에 여성의 많이 참여하기를 원하고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하고 싶지만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못한다고 하였다.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 그 중 정책담당자들이 사업수행과정에서 부딪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가 있으면 정책담당자가 법의 발의를 추진할 수도 있다.

한편 기존의 법령이나 지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이런 사례로 여성농업인의 지원근거로서 마련된 농업농촌기본법과 여성농어업인육성법과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여성농업인육성5개년계획 등이 있다.

농업농촌기본법 제14조 (여성농업인의 육성)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정책의 수립·시행에 있어서 여성농업인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과 전문인력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다.

여성농어업인육성법은 제정의 목적이 '여성농업인 및 여성어업인의 권익보호·지위향상·삶의 질 제고 및 전문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농어촌가정 구현과 농어업의 발전 및 농어촌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이다.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여성농어업인의 능력개발과 지위향상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삶의질향상특별법 제12조(농림어업인등의 복지증진), 제15조, 제18조(농산어촌 여성의 복지증진) 등이 있다.

## □ 근거법령이 없는 경우 대책마련 계획 여부

근거법령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에 대책마련이 있는지에 대해서 정책담당자



는 본인의 역할이 아니라고 하였다. 그러나 법령 제정이나 개정의 수준은 아니지만 농림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촌마을개발협의회 운영개선’에 대한 시행지침에서 지구내 마을대표에 여성농업인을 포함시키도록 정책담당자의 권한 내에서 적극적으로 지침을 개정하여 시달하는 사례가 있듯이 기존 법령의 한계 내에서 지침을 개발하는 방법도 있다.

## 9) 담당자의 성 인지성

### ⑩ 담당공무원의 성별 비율

농림부에서 농촌관광마을 인력육성사업을 담당하는 부서는 농촌정책국 농촌진흥과 기획담당이다. 이 부서의 업무는 ○농촌진흥업무의 총괄 ○농촌관광장단기 계획 수립 ○농촌관광 법령 제정 및 운영 ○농촌관광 교육 및 홍보 ○도·농 교류관련 사업 ○도시자본투자유치 관련 사항 등이다. 따라서 기획담당 부서에서는 농촌관광마을 인력육성사업 외에도 적어도 다섯가지 이상의 사업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농촌진흥과에는 기획담당 이외에 세 개의 부서가 있는데 농촌관광에 관한 사항 담당과 지역개발1에 관한 사항, 지역개발2에 관한 사항의 담당이다. 이 중 농촌관광에 관한 사항 담당은 여성으로 2004년에 채용되었다. 농촌관광마을인력육성사업과는 직접 관련이 없으나 이 부서는 ○농촌관광휴양자원개발 총괄 ○농촌관광포털사이트 운영 지원 ○농촌마을가꾸기 경진대회 ○농촌체험관광지원 ○농촌관광 홍보 등의 사항을 담당하고 있다.

농촌진흥과내에 사무관급 이상 여성의 비율은 20%정도라고 볼 수 있다. 높은 비율은 아니지만 중앙 정부 내 여성 관리직급 비율이 6.1%<sup>29)</sup>임에 비추어 볼 때는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비율임을 알 수 있다.

인력육성을 위한 교육훈련에서는 담당 공무원 이상으로 중요한 사람이 교육을 이끌어 가는 진행자로서의 강사이다. 강사는 교육생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태도, 가치의 변화를 유도하고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중요한 매체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강사의 개인적 특성이 교육생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모델로서 작용할 수 있고, 이런 점에서 강사의 성별 분포는 남녀 교육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29) 여성부(2004), 여성관리직 임용확대 연도별 추진실적(2003), www.moge.go.kr.

2004년에 농촌관광마을 인력육성을 담당하였던 강사는 권역별 당일과정으로 운영되었던 초급(입문)과정에 16명이었는데, 이 중에 여성 강사는 한명도 없었다. 5일 합숙으로 진행되었던 중급(지도자)과정의 강사는 총 25명이었는데 이 중 여성은 두 명(8.0%)이었다. 12일 합숙과정으로 진행된 고급(전문가)과정은 총 43명의 강사가 투입되었는데 이 중 여성은 4명이었다(9.3%). 전체적으로 총 90명의 강사 중 여성이 6명으로 6.7%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로서 인력육성사업의 교육진행자로서의 강사의 성별분포도가 매우 편중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⑱ 담당공무원의 양성평등의식수준

담당공무원은 더 이상 남녀차별적인 제도나 생각은 사라져야 한다고 하였다. 전통농경사회가 산업사회가 되고 시대가 바뀌었으므로 모든 사람들이 남녀차별적인 의식을 버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농촌여성도 남성보다 오히려 더 많이 일을 하고 있는 만큼 그들의 역할을 인정해 주어야 하고 더욱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나 여성과 남성에게 알맞다고 여겨지는 역할, 책임, 활동 등이 따로 있으므로 농촌관광마을사업도 여성과 남성이 할일이 따로 구분되어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농촌관광마을교육에서 여성반을 따로 만들어서 전통술만들기, 향토요리개발하기, 서비스 제공, 자생화가꾸기 등의 교육이 여성에게 집중해서 제공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농업인력이 노령화, 여성화되고 축소되어 가고 있는 추세에 여성의 평등한 노동참여가 중요하지만 성별고정관념에 기반한 성별분업적 역할을 여성에게 강조하고 기대하는 것은 성인지적인 관점이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양성평등은 남녀간의 양적인 평등 뿐만 아니라 성에 기반한 역할을 떠나 개인의 관심이나 소질, 능력에 따른 일의 분배가 실현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농촌관광마을 인력육성사업 정책담당자의 양성평등의식 수준은 아직 미흡한 상태라고 판단되었다.

#### ⑲ 양성평등의식 교육참여 경험 유무

양성평등한 정책이 계획되고 수행되는 과정에서 담당자의 성인지성은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비록 정책지침이 불분명하고, 예산부족, 주변환경이 제한되어 있을지라도 담당자의 성인지도와 양성평등에 대한 의지여하에 따라 극복될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이다. 담당자의 성인지도에 양성평등의식 교육 참여 경험은 많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정책담당 공무원 중 성 주류화 및 양성평등교육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고 여성공무원 중에도 없었다. 단지 장기전문교육 중 양성평등에 대해 몇 시간 강의를 들어 보았다는 공무원이 있었고 남성들은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에서 양성평등에 대한 말을 들었다고 하였다.

## □□ 정책집행 단계

평가 지표	세부 평가 지표	조사 결과	근거
1. 서비스(혹은 재원) 전달 여부	①해당사업실시를 위한 홍보 또는 정보 전달 여부 ②성별에 따른 홍보, 전달방안 수립 및 활용 여부	-중앙정부, 시도, 시군까지 전달된 후 마을의 리더를 통하여 전달되고 있었음 -남성과 여성의 전달경로가 차이가 있었으나 반영되고 있지 않았음	-농림부농촌진흥과 -담당자인터뷰 -수혜자조사
2. 성별수해도 파악 여부	③농촌관광마을 인력육성사업의 성별 수해도 파악 여부 ④수해도 격차의 원인파악 노력 여부	-농촌관광마을의 추진위원회의 성별구성은 파악되어 있지 않음. 최종참석자 명단은 성별로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있으나 최종집계는 구분되어 있음 -없음	-관련문서
3. 성인지적 예산집행 여부	⑤성별 예산집행 여부 ⑥여성의 독특한 필요에 의한 추가예산 배정 여부	-성 인지적 예산집행 없음 -추가예산 없음	-관련문서 -수혜자조사

### 1) 서비스(혹은 재원)전달여부

#### ① 해당사업실시를 위한 홍보 또는 정보전달 여부

농촌관광마을 인력육성사업의 집행과정에서 교육훈련에 대한 내용홍보가 정책수혜대상 여성들에게 어떻게 전달되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정책담당자와 수행자들은 하부단위 기관의 담당자들이 평소에 활용하고 있는 행정 전달체계를 가장 많이 이용할 것이라고 했다. 중앙-광역시·도-시·군단위로 내려가서 읍·

면·동으로 연락하고 읍·면·동에서는 통·리장을 통해서 전달되는 것이 일반적인 전달체계이다. 그러나 농촌관광마을사업의 경우 한 시군에서 해당되는 마을이 많지 않으므로 시·군의 담당자들이 직접 가까운 마을의 리더인 대표나 이장에게 전화를 해서 교육훈련 내용을 전달하고 교육생을 모집한다. 이 과정에서 여성들은 남성보다 활동영역이 좁고 사회적 연계망도 취약하기 때문에 제외되기 쉽다.

담당자들은 기존의 관례에 따라 홍보나 정보전달을 하고 교육 훈련 인력을 모집하지만 여성과 남성의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참여율에서 남녀 차이가 나타나게 된다.

농촌관광마을 수혜자로서의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된 경로를 조사한 결과 남녀가 차이가 나타났다. 남성은 전체의 73.4%가 ‘농업관련기관(농협, 시군청, 농업기술원, 센터 등) 담당자의 연락을 받고’ 알게 되었다고 응답하였고, 다음은 ‘인터넷의 교육안내를 통해’(13.9%), ‘주변사람(이장, 부녀회장, 리더, 이웃, 친구 등)을 통해’가 8.9%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성은 ‘농업관련기관 담당자의 연락을 받고’가 61.9%로 가장 높지만 다음이 ‘주변사람들을 통해’가 33.3%로 남성에 비해 3.7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인터넷의 교육안내를 통해’는 4.8%에 불과하였다.

<표 57> 교육을 알게 된 경로

구분	남성	여성	계
인터넷의 교육안내를 통해	11 ( 13.9)	2 ( 4.8)	13 ( 10.7)
팸플렛 또는 안내문 등을 통해서	2 ( 2.5)	-	2 ( 1.7)
주변사람들을 통해	7 ( 8.9)	14 ( 33.3)	21 ( 17.4)
농업관련기관 담당자의 연락을 받고	58 ( 73.4)	26 ( 61.9)	84 ( 69.4)
기타	1 ( 1.3)	-	1 ( 0.8)
전체	79 (100.0)	42 (100.0)	121 (100.0)

( $\chi^2=13.724$ ,  $p=.008$ )

따라서 농업인력관련 정책의 홍보나 정보를 대상자들에게 적극 전달하고자 할 때 성별로 다른 전략을 준비하고 실행할 필요가 있다. 즉 여성들에게는 보

다 비공식적인 주변사람들을 활용하여 홍보나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별히 공식적인 조직 경로를 활용한다면 마을 여성들의 조직, 즉 여성농업인단체나 부녀회에 연락하는 것이 유효하다. 그리고 마을의 리더나 이장들을 통해 연락해야 할 때는 특별히 여성참여율을 일정 수준 할당을 주는 방법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농촌관광마을 인력은 반드시 교육훈련의 형태 뿐만 아니라 마을리더나 추진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는 과정에서 집중적으로 육성될 수 있다. 당일이나 3일, 5일과정의 단기 교육보다는 오히려 마을내에서 농촌관광마을사업을 구상하고 추진하는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진행과정을 경험하고 문제점을 해결함으로써 역량을 키워가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마을추진사업의 계획단계부터 여성이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농촌마을의 보수성 때문에 여성을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므로 농촌관광마을선정 기준에 여성이 마을추진위원회에 일정비율 반드시 참석할 것을 명시하는 적극적인 전략을 만들 필요가 있다. 동시에 인력육성 차원에서 수행되는 교육훈련의 홍보에도 여성이 반드시 일정비율 참여할 수 있도록 강제조항을 넣을 필요가 있다.

## ② 성별에 따른 홍보, 전달방안 수립 및 활용 여부

정책담당자들은 성별로 다른 홍보나 정보의 전달방안을 수립하지 않았다.

## 2) 성별수혜도 파악 여부

### ③ 농촌관광마을 인력육성사업의 성별 수혜도 파악 여부

정책담당자들은 사업종료 후 평가에서 교육생의 인원수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성별로 분리된 인원수는 과정에 따라 파악이 된 것과 되지 않는 것이 있었다. 숙박을 했던 교육이나 소규모로 수행했던 교육과정은 성별로 분리된 교육생 명단이 있었다. 농업기반공사 도농교류센터에서 전국의 권역별로 시행했던 농촌관광 및 지역개발 초급과정의 경우는 당일교육이었고 성별로 몇 명 참여했는지 명단으로는 구분이 되지 않았다. 그러나 11월말까지의 교육결과는 총 956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중 남성은 851명(89.0%), 여성

은 105명(11.0%)이었다. 따라서 성별 참여비율은 남성과 여성이 9 : 1 정도로 나타나 여성의 수혜율이 현저히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조사대상자들에게 평소에 농업인력육성관련 교육을 누가 가는지를 질문한 결과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분명히 나타났다. 즉 남성의 경우 ‘대체로 본인이 간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의 87.0%이었다. 그러나 여성의 경우 ‘대체로 본인이 간다’는 비율이 48.7%이었고 교대로 가거나(23.1%), ‘대체로 배우자가 가지만 이 교육은 특별히 내가 갔다’고 응답한 비율이 20.5%로 나타났다. 따라서 인력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수행되는 남녀 농업인의 교육훈련의 접근도에서 남녀간에 현저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고, 특별히 여성의 참여를 제고할 수 있는 특별하고도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보여지는 점이다.

〈표 58〉 성별 농업인력육성관련 교육에 참여하게 된 상황

구분	남성	여성	계
대체로 본인이 간다	67 ( 87.0)	19 ( 48.7)	86 ( 74.1)
대체로 배우자가 가지만 이 교육은 특별히 내가 갔다	5 ( 6.5)	8 ( 20.5)	13 ( 11.2)
늘 같이 간다	1 ( 1.3)	2 ( 5.1)	3 ( 2.6)
교대로 간다	2 ( 2.6)	9 ( 23.1)	11 ( 9.5)
기타	2 ( 2.6)	1 ( 2.6)	3 ( 2.6)
전체	77 (100.0)	39 (100.0)	116 (100.0)

( $\chi^2=22.579$ ,  $p=.000$ )

#### ④ 수혜도 격차의 원인 파악 노력 여부

정책담당자와 사업수행자들은 전체적으로 교육생들의 참여도가 낮은 것과 그 원인에 대해서는 매우 고심하고 있었으나 남녀의 수혜도 격차가 나고 있다는 것과 그 원인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고 있지 않았다. 여성은 농사일에다가 집안일도 많고 아이들도 돌봐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참여율이 낮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정도이었다.

### 3) 성 인지적 예산집행 여부

#### ⑤ 성별 예산집행 여부

남성과 여성의 참여율이 다르다는 것에 대해 인식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별 예산집행 역시 따로 하지 않았다.

#### ⑥ 여성의 독특한 필요에 의한 추가예산 배정 여부

여성과 관련된 예산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않고 있었고 더구나 독특한 필요에 의한 추가예산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여성의 경우 교육참여에 남성과는 다른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이에 대한 배려와 예산의 배정이 필요한지 확인해 보아야 한다.

다음 표는 교육장소까지 이용한 교통수단을 성별로 조사한 결과이다. 남성의 경우 ‘내가 운전한 자가용으로’가 41.0%로 가장 많고, ‘다른사람의 자가용을 얻어타고(17.9%)’, ‘대중교통으로 관련기관으로 가서, 한꺼번에 교육장소까지 버스로(16.7%)’, ‘버스나 기차 등 대중교통수단 등을 여러번 갈아타고(15.4%)’로 비슷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여성은 ‘다른 사람의 자가용을 얻어타고’가 전체의 31.0%로 가장 높고, 다음이 ‘대중교통으로 관련기관으로 가서, 한꺼번에 교육장소까지 버스로’가 28.6%, ‘버스나 기차 등 대중교통수단 등을 여러번 갈아타고’가 26.2%의 순으로 나타난다. ‘내가 운전한 자가용으로’의 비율은 11.9%에 불과하다.

교육 훈련의 기회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교통수단의 편의성이 매우 중요한 만큼 여성농업인 교육훈련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성들에게 필요한 교통수단에 대한 예산을 포함하여 기타의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59〉 교육장소까지 이용한 교통 수단

구분	남성	여성	계
버스나 기차 등 대중교통수단 등을 여러번 갈아타고	12 ( 15.4)	11 ( 26.2)	23 ( 19.2)
버스나 기차 등 대중교통수단으로 한번에	4 ( 5.1)	-	4 ( 3.3)
내가 운전한 자가용으로	32 ( 41.0)	5 ( 11.9)	37 ( 30.8)
다른사람의 자가용을 얻어타고	14 ( 17.9)	13 ( 31.0)	27 ( 22.5)
대중교통으로 관련기관으로 가서, 한꺼번에 교육장소까지 버스로	13 ( 16.7)	12 ( 28.6)	25 ( 20.8)
기타	3 ( 3.8)	1 ( 2.4)	4 ( 3.3)
전체	78 (100.0)	39 (100.0)	116 (100.0)

( $\chi^2=15.410$ ,  $p=.009$ )

□□ 정책집행 후 단계

평가 지표	세부 평가 지표	조사 결과	지표활용 권고기관 조사분석근거
1. 사후평가 여부 및 성별분리 평가 여부	①사업수행자 및 수혜자의 성별 만족도 평가 여부 ②해당사업의 지속의향 조사 여부 ③개선점에 대한 양적, 질적 요구 조사 여부	-만족도 평가는 있었으나 성별자료는 아님 -지속의향 조사하고 있으나 성별자료는 아님 -개선점에 대한 양적, 질적요구조사하였으나 성별분리 되어 있지 않음	-교육평가보고서
2. 양성평등의식변화의 긍정적인 영향 여부	④여성의 전문능력향상, 사회참여확대 등 양성 평등에 영향을 주었는지 여부	-사전사후 평가가 아니었으므로 영향여부를 판정하기 어려움	-관련문서
3. 집행성과의 성별 영향력 확인 및 대안미련 여부	⑤양성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왔는지 여부 ⑥수혜도의 성별격차 존재 시 해결 대안미련 여부 ⑦여성관련 예산 미련 계획 여부	-영향여부를 평가하기 어려움 -대안미련에 미흡 -별도 여성관련 예산 미련하지 않음	-관련문서
4. 집행결과 전달여부	⑧집행성과 자료 공개 여부 ⑨사업결과 보고 시 성별 내용 포함여부 ⑩사업결과 자료를 관련 공무원들에게 전달여부	-일부 공개함 -결과 보고 시 성별 내용 포함 안함 -공개된 자료는 공유함	-교육평가보고서



## 1) 사후평가 여부 및 성별분리 평가 여부

### ① 사업수행자 및 수혜자의 성별 만족도 평가

교육수행자들은 해당사업이 끝나면 보고를 하는데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사후평가를 하는 경우도 있었고 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초급과정의 경우 당일교육이었고 비교적 대규모의 교육이었기 때문에 교육생 개인마다 만족도 조사를 하지 않았고 중급이상 교육과정은 만족도를 설문과 질적인 평가를 병행하여 파악하고 있었다.

설문내용은 강의내용의 충실성, 강사와 강의 내용의 전문성, 강의의 충실성, 강의시간의 적정성, 숙소의 편의성, 운영진의 성실성 등이었다. 그러나 성별로 분리하여 결과를 집계하지 않았다. 여성의 참여가 5.6%로 매우 낮았기 때문에 제시할만큼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제시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성별분리통계는 차후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자료가 되므로 제시해야 한다.

농촌관광마을 교육에 참여했던 남녀 교육생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전체적으로 만족하는 비율이 41.2%로 가장 높았고 보통이 33.6%이었다. 이를 성별로 보면 남성의 경우 만족하는 비율과 보통인 비율이 각각 38.5%, 37.2%이고 매우만족과 만족을 합친 비율이 47.5%임에 비해 여성은 매우 만족하는 비율과 만족하는 비율이 63.4%로 남성에 비해 높고 보통이하가 낮게 나타나, 전반적으로 여성이 교육에 만족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0> 농촌관광마을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구분	남성	여성	계
매우 불만족	-	2 ( 4.9)	2 ( 1.7)
불만족	12 ( 15.4)	2 ( 4.9)	14 ( 11.8)
보통	29 ( 37.2)	11 ( 26.8)	40 ( 33.6)
만족	30 ( 38.5)	19 ( 46.3)	49 ( 41.2)
매우 만족	7 ( 9.0)	7 ( 17.1)	14 ( 11.8)
전체	78 (100.0)	41 (100.0)	119 (100.0)

( $\chi^2=9.086$ ,  $p=.059$ )

### ② 농촌관광마을 인력육성사업의 지속의향 조사여부

교육담당자들은 해당 교육을 계속할 것인지에 대해 참석자들의 의향을 조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교육에 참석한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다른 농촌관광마을 교육과정을 수강할 의향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남녀 평균 91.5%가 수강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90.8%가, 여성은 92.7%가 향후 다른 교육을 받을 의향이 있었으나 성별로 의미있는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61> 향후 다른 농촌관광마을 교육과정을 수강할 의향

구분	남성	여성	계
있다	69 ( 90.8)	38 ( 92.7)	197 ( 91.5)
없다	7 ( 9.2)	3 ( 7.3)	10 ( 8.5)
전체	76 ( 100.0)	41 (100.0)	117 (100.0)

( $\chi^2=0.122$ ,  $p=.727$ )

### ③ 개선점에 대한 양적, 질적 요구 조사 여부

사업수행기관에서 숙박교육에 참여했던 교육생을 대상으로 개선점에 대하여 조사를 하고 있었다. 농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할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고 다양한 방식을 익힌 점, 같은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알게 되었고 교류의 장에 참여할 수 있었던 점을 성과로 꼽았고 대부분의 과정에서 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었다.

개선점에는 주로 질적 요구조사를 실시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평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강의시간 조정(쉬는 시간 확보, 수료식 시간 조정)
- 과정별 수준에 맞는 수강생 모집 노력 및 모집된 수강생의 수준에 맞는 교육노력(강사와의 협의 필요)
- 레크레이션 강의 시간 확대(수강생의 교육에 임하는 태도 개선 효과)
- 현장강의 시간 조정(도착하는 시간이 예정보다 늦어 저녁식사가 늦어지지 않도록)

- 마을 자원찾기 및 마스터 플랜 작성, 발표 및 평가에 충분한 시간 배려가 필요함
- 자율적인 토론시간의 충분한 배려가 필요
- 교육관에 난방시설이 되어 있지 않고 숙박인원에 비해 세면시설과 화장실이 부족해서 불편했음

그러나 성별로 분리되어 조사된 평가결과는 참여인원 이외에는 없어서 남성과 여성의 평가나 의견, 개선점이 다른 양상에 대해 파악할 수 없었다.

## 2) 양성평등의식향상의 긍정적인 영향 여부

### ④ 여성의 전문능력향상, 사회참여확대 등 양성평등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이에 대해 교육수행자들은 양성평등과 관련이 있는 사업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에 대한 변화여부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있지 않았다.

### ⑤ 양성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왔는지 여부

본 조사에서 교육을 받고 난 후 생각이 변화한 부분에 대해 조사한 결과 남성과 여성에 있어서 차이가 나타났다. 남성은 ‘마을리더나 추진위원 등의 역할로 더 앞장서 일하겠다는 생각을 하였다’가 38.2%로 가장 많았고 여성은 ‘마을리더나 추진위원들을 뒤에서 더 열심히 도와야겠다는 생각을 하였다’가 가장 많았다. 그리고 남녀 모두 ‘농촌관광마을 사업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야겠다는 생각을 하였다’가 28.9%, 26.8%이었다. 남성의 경우 ‘마을리더나 추진위원들을 뒤에서 더 열심히 도와야겠다는 생각을 하였다’는 14.5%, 이었고 여성이 ‘마을리더나 추진위원 등의 역할로 더 앞장서 일하겠다는 생각을 하였다’고 응답한 비율은 14.6%이었다.

<표 62> 교육을 받은 후 생각의 변화

(단위 : 명, %)

구분	남성	여성	계
마을리더나 추진위원 등의 역할로 더 앞장서 일하겠다는 생각을 하였다	29 ( 38.2)	6 ( 14.6)	35 ( 29.9)
농촌관광마을 사업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야겠다는 생각을 하였다	22 ( 28.9)	11 ( 26.8)	33 ( 28.2)
마을리더나 추진위원들을 뒤에서 더 열심히 도와야겠다는 생각을 하였다	11 ( 14.5)	14 ( 34.1)	25 ( 21.4)
특별히 생각이 바뀌지 않았다	11 ( 14.5)	10 ( 24.4)	21 ( 17.9)
기타	3 ( 3.9)		3 ( 2.6)
전체	76 (100.0)	41 (100.0)	117 (100.0)

따라서 이 교육을 받기전과 받고 난 후의 생각이 얼마나 달라졌는지는 알 수 없으나 여성은 여전히 마을리더나 추진위원들을 지원하거나 보조하는 역할을 해야겠다는 의향이 많은 것으로 보아 전통적인 성역할 고정관념을 크게 탈피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양성평등한 역할의 변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의도적인 계획과 집행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 3) 성별불평등한 참여확인 및 해결 대안마련 여부

#### ⑥ 수혜도의 성별격차 존재 시 대안마련 여부

교육담당자들은 성별격차가 존재한다는 공감은 하고 있었지만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자신의 일이라고는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 ⑦ 여성관련 예산마련 계획 여부

정책담당자와 사업수혜자들은 인터뷰를 하면서 농촌관광마을 사업이 성형평성과 관련이 있으며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여성관련 예산이 따로 필요하다는 인식은 하게 되었지만 실제로 예산을 마련하는 것은 상급자와 의논을 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 4) 집행결과 전달 여부

##### ⑧ 집행성과 자료 공개 여부

교육담당자들은 부처에 따라 집행성과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경우에 따라 공개하지는 않는 것이 있으므로 과정별이나 사례별로 결정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농림부의 경우 자체 기준에 따른 자체 사업평가로서 「2003년도 농림주요업무에 따른 상반기 평가」와 2004년도에는 「2004년 상반기 평가」 자료를 기관의 홈페이지에 정보나 정책자료로서 공개하고 있었고 도의 경우 내부적으로 문서만 가지고 있었고 일반에게는 공개하지 않고 있었다.

교육에 대한 평가보고서는 교육을 수행했던 농업기반공사 도·농교류센터로부터 입수할 수 있었고 이에 대한 자료의 공개 여부는 아직 미정이다.

##### ⑨ 사업결과 보고 시 성별내용 포함여부

보고된 사업결과에는 참석자의 성별 인원만 집계되어 있었고 그 이외에는 성별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 ⑩ 사업결과 자료를 관련 공무원들에게 전달 여부

농림부의 경우 자체 사업평가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었으나 업무와 관련이 직접적으로 없다고 생각하는 공무원들에게 전달하고 있지는 않았다.

## V. 농업 분야의 성 인지적 정책 사례

---

## V. 농업 분야의 성 인지적 정책 사례

농업 부문에서 성 인지적인 정책의 출현은 주로 여성이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배제되고, 상대적으로 남성에 비하여 낮은 대표성을 지니며,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데 많은 장벽에 가로막혀 있는 현실을 개선하려는 취지에서 비롯되었다.

특히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는 지속가능한 농업의 발전 및 농촌개발이 성 평등성을 기반으로 하지 않으면 성취될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농업 정책 결정 과정에서 여성들의 삶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여 실천해왔다. 일부 선진국들에 의해 추진된 이러한 시도들은 1990년대 후반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는데, 주로 여성농업인(농촌여성 포함)의 정책 참여를 어렵게 하는 현실 요소들을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조사 연구 및 프로젝트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 중에서 농림부 등과 같이 농업정책의 입안·결정·수행을 직접 담당하는 행정기관이 직접 관련되어 있는 성 인지적 정책 사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사례 1】

호주의 “농업과 자원관리에서의 여성을 위한 계획”

(The National Plan for Women in Agriculture and Resource Management)

- 이 ‘계획’은 호주 전역에서 구성된 ‘농촌여성 활동가 집단’(the Rural Women's Working Group)에 의하여 만들어졌으며, 이 활동가 집단은 농촌여성, 여성농업인, 농촌 여성 관련 지원 기관 종사자 등으로 이루어졌다.
- 1998년 ‘농업 및 자원관리 상임위원회’가 이 ‘계획’을 승인하면서, 곧 모든 호주의 지방 정부에서 이를 채택하게 되었다.
- ‘계획’의 비전은 여성 잠재력의 완전한 실현을 통하여, 혁신적인 농업, 지속가능한 자원관리, 활력 있는 농촌 공동체를 달성하는 것이다.

- ‘계획’은 5가지의 주요 원칙에 기반하고 있으며, 5개의 핵심 분야 전략을 포함하고 있다.

#### 〈원칙〉

- ▶ 여성과 남성은 미래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책임을 공유하고, 농업과 공동체를 위한 성과를 달성하는 일을 하는데 있어 책임을 공유한다.
- ▶ 농업의 번영과 지속가능성은 농촌에서 일하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다양한 기술과 관점을 활용할 때 가장 잘 이루어질 수 있다.
- ▶ 여성의 참여를 가로막는 장벽을 줄이는 것은 정부, 산업, 공동체의 공동 책임이다. 이 작업은 파트너십을 통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 ▶ 다양한 스텝들의 숙련 기술들을 효율적으로 끌어내는 조직들은 다양한 수혜자들에 대하여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 훌륭한 자료의 축적과 연구조사는 효과적인 변화의 관리에 필수적이다.

#### 〈핵심 분야의 전략〉

- ▶ 구조적 지원 및 전략적 지원
- ▶ 숙련 기술
- ▶ 서비스, 프로그램, 정책의 기획 및 수행
- ▶ 커뮤니케이션
- ▶ 조사연구 및 자료

이러한 원칙과 전략에 따라 호주 정부는 여성들의 정책 참여를 제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지원 및 가동, 서비스 지원, 업무 담당자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하여 호주 농촌 여성 및 여성농업인들의 정책 결정 참여를 강화하고 있다.



**【사례 2】**

호주 연방 농림부의 ‘수혜자로서의 여성’ 전략

(AFFA, Women as Clients)

호주 연방 농림부는 ‘계획’과 함께 여성을 주요 정책 수혜자로 재인식하고, 여성을 농업 정책 사업의 결정, 집행에 적극적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전략을 수행하고 이의 실천을 위한 지침을 개발하였다.

1999년 농림부는 ‘수혜 전략대상으로서의 여성’(Women of client strategy)을 정책 추진의 의제로 삼았다. 이것은 농림부의 수혜자로서의 여성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농림부 프로그램, 정책, 서비스의 개발에 여성의 참여를 증대시키기 위해 발의한 것이다. 그 전략은 ‘농업 및 자원관리에서의 여성을 위한 계획’을 보완하는 것이며, 정책결정 부문에서 여성을 포함하는데 있어 가장 좋은 실천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주는 것이다.